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35-10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제 출 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5.

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수행책임자 : 이용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한석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영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노수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박규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조소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요 약 문

식품제조업 출하액(사료를 제외한 10인 이상 사업체)은 2010년에 전년대비 8.6% 증가한 57.1조 원, 2011년에는 5.9% 증가한 60.5조 원으로 추정된다. 식품제조업의 출하액 증가세는 2008년 이후 약화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출하액이 빠르게 증가한 업종은 도축 및 육가공업, 곡물가공업, 과채가공, 유지류이다. 출하액이 빠르게 증가한 품목은 식료품에서 햄, 김치, 대두유, 치즈, 홍삼 등이며, 음료류 중 막걸리, 맥주, 생수, 커피음료, 두유 등으로 고급화, 건강 중시, 간편성 추구 경향이 뚜렷하다.

외식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최근 5년간 완만하지만 계속 증가하여 2010년 각각 58.6만 개, 160.9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식업 매출액은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 외식업은 2010년 업체당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영업비용도 감소하여 영업이익률은 23%로 2008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외식업 업종별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업이 연평균 1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공급액의 국산 비중은 2008년 83.0%에서 2009년 85.8%로 증가했다.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식품가공업의 이용 비중은 89%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외식업의 국산 이용 비중은 86.6%에서 88.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성장으로 농어업 등 타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모두 증가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생산성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는 2006~09년간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 연구개발주체로 기업자체의 투자가 감소한 반면, 정부와 공공부문의 투자는 크게 증가했다.

식품산업의 제품 트렌드는 프리미엄제품 개발 등 고급화, 기능성식품 등 건강 중시, 가정간편식(HMR) 등 편의성 제고로 요약된다. 식품산업의 사업 트렌드는 식품기업과 산지 간 협업·제휴의 확대, 식품산업과 정보기술(IT) 또는 문화사업간의 결합에 의한 컨버전스 마케팅,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로 요약된다.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12년에 2011년보다 4.4% 증가한 63.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과 음료품 출하액은 전년대비 각각 4.6%, 3.4% 증가한 54.5조 원, 8.6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12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13년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2.3%, 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소재식품의 수급 모형을 추정하고 사후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실측치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MAPE와 Theil의 불평등계수가 수출입 부문을 제외하면 10% 이하로 나타나 수급모형의 예측력(모형적합도)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재식품이 타 업종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소재식품에 대한 관측이 다양한 식품가공업에 사전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 차

제 1 부 식품산업 동향분석과 전망

I.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3
1.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3
2.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6
II. 식품제조업 동향	12
1. 출하	12
2. 업체수와 고용·임금	18
3. 경영성과	20
4. 수출입	26
III. 외식업 동향	30
1. 식품소비 및 외식 지출	30
2. 외식업 매출	35
IV. 식품산업의 구조변화와 트렌드	39
1.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관관계	39
2. 시장경쟁구조	46
3. 생산성 변화와 R&D 투자	47
4. 식품산업 트렌드	50

목 차

V. 세계 식품산업 동향	58
1. 식품시장 및 교역 규모	58
2. 외식업 동향	63
3. 주요 국별 식품산업 동향	68
4. 식품산업 트렌드	78
VI. 2012~13년 식품제조업 전망	84
1. 환경변화와 외생변수 가정	84
2. 식품제조업부문 전망	85

목 차

제 2 부 소재식품 시범관측

I. 시범관측품목과 수급모형	95
1. 시범품목 선정	95
2. 모형 추정 방식	97
3. 수급모형의 구조	98
4. 데이터베이스	101
5. 수급모형 추정결과	103
6. 모형 적합도(예측력)	108
II. 2012년 1~2분기 품목 관측 결과	110
1. 밀가루	110
2. 설탕	113
3. 식물성 유지류	116
III. 시범관측 평가	128

< 표 목 차 >

표 1-1. 2009 ~ 2011 일반경제동향	3
표 1-2. 2005 ~ 2011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	4
표 1-3. 식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6
표 1-4. 푸드시스템의 산업 범위	7
표 1-5. 2009년 푸드시스템의 공급	8
표 1-6. 2009년 푸드시스템의 총수요	10
표 1-7. 푸드시스템의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9)	11
표 2-1. 식품제조업 출하액 동향(명목기준)	13
표 2-2. 가공식품 출하량과 생산자물가 동향	14
표 2-3.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15
표 2-4. 2005년 대비 2010년 가공식품 출하량 및 가격 변화 유형별 품목 ·	17
표 2-5. 출하액 및 종사자 규모별 식품제조업체수 비중	18
표 2-6. 식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추이	19
표 2-7. 식품제조업 성장성 분석(2010)	22
표 2-8. 식품제조업 수익성 분석(2010)	24
표 2-9. 식품제조업 재무안정성 분석(2010)	25
표 2-10. 2007년 대비 2011년 품목별 식품 내수 · 수출 증가 유형 ····	27
표 2-11. 부류별 가공식품의 수입 추이	29
표 3-1. 전국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 동향(2인 이상)	30
표 3-2. 전국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2인 이상)(2011) ·	33
표 3-3. 전국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2인 이상)(2011) ·	33
표 3-4. 외식업 경영성과 지표	36
표 3-5. 외식업 매출액 동향	37
표 4-1. 국내 농축수산물 공급액의 국산 · 수입 비중(2008 ~ 09)	40
표 4-2. 국내 주요 농식품 자급률	40
표 4-3. 식품제조용 농축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투입액의 국산 · 수입 비중 ·	41
표 4-4. 소재식품용 원료농산물의 수입 비중(2009)	42
표 4-5. 외식업용 농축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투입액의 국산 · 수입 비중 ·	43
표 4-6. 식품산업 생산유발계수	44

< 표 목 차 >

표 4-7. 식품산업의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45
표 4-8. 식품제조업 업종별 상위 4개 기업 매출액점유율(CR4) 변화 ..	46
표 4-9. 식품제조업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액과 집약도 추이(2006~2010) ..	49
표 4-10. 개발주체별 식품제조업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	50
표 4-11. 주요 업체별 프리미엄 제품군	51
표 4-12. 식품·유통기업과 산지 간 협업·제휴 사례	55
표 4-13. 해외시장 진출 내역	57
표 5-1.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	59
표 5-2.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	60
표 5-3.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61
표 5-4.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2009)	62
표 5-5. 세계 주요 식품기업 순위(2010)	63
표 5-6. 세계 외식산업 동향	64
표 5-7. 국가별 외식산업 규모(상위 10개 국)	66
표 5-8. 주요 외식업체 매출액 및 점포수	67
표 5-9.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68
표 5-10.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69
표 5-11. 미국 전가구 식품소비지출 및 앵겔계수	70
표 5-12.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71
표 5-13.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72
표 5-14. 일본 전가구 월평균 식품소비지출	73
표 5-15. 일본 전가구 월평균 식품 부류별 소비지출 추이	74
표 5-16. EU의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표 5-17. EU의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추이	75
표 5-18. EU 주요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76
표 5-19. EU 주요 국가별 식품소비지출 추이	77
표 6-1. KASMO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84
표 6-2. 식품제조업 산출액 전망	88
표 6-3.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전망	89

< 표 목 차 >

.....

표 1-1. 시범관측품목과 선정기준	95
표 1-2. 생산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96
표 1-3. 변수별 데이터베이스 출처	102
표 1-4. 시범관측품목 수요함수 추정결과	103
표 1-5. 시범관측품목 생산 및 재고함수 추정결과	105
표 1-6. 시범관측품목 수출입함수 추정결과	107
표 1-7. 시범관측품목 수급모형 적합도	109
표 2-1. 밀가루 수급모형 전망	110
표 2-2. 설탕 수급모형 전망	113
표 2-3. 대두유 수급모형 전망	116
표 2-4. 옥수수유 수급모형 전망	119
표 2-5. 참기름 수급모형 전망	122
표 2-6. 마가린 수급모형 전망	125

< 그림 목 차 >

그림 1-1. 국내 주식시장 동향	5
그림 1-2.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09)	9
그림 2-1.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12
그림 2-2. 식품제조업 출하량과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14
그림 2-3. 식료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15
그림 2-4. 음료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16
그림 2-5. 식품제조업 종사자수 추이	19
그림 2-6. 식품제조업 임금 변동추이(2005=100)	20
그림 2-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1990~2010 ·	23
그림 2-8.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990~2010 ·	24
그림 2-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추이, 1990~2010 ·	26
그림 2-10. 농림수산물식품 연간 수출액 추이	27
그림 3-1. 식품소비지출과 앵겔계수 추이	31
그림 3-2.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식품소비지출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11) ·	32
그림 3-3. 소비자동향지수	34
그림 3-4. 외식업 변화 추이	35
그림 3-5.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추이	37
그림 4-1. 농축수산물의 부문별 투입(이용) 구조	39
그림 4-2. 식품제조업의 투입과 배분 구조	41
그림 4-3. 외식업의 투입과 배분 구조	43
그림 4-4. 식품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	47
그림 4-5. 연도별 식품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와 변화요인	48
그림 4-6.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추이	52

< 그림 목 차 >

그림 5-1.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이	58
그림 5-2. 세계 식품시장 지역별 비중(2010)	59
그림 5-3. 세계 외식산업 매출액 추이	64
그림 5-4. 지역별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 추이	65
그림 5-5. 국가별 외식산업 성장률(상위 10개국)	66
그림 5-6. 미국의 식품소비지출 추이	70
그림 5-7. EU 가계소비지출 현황(2006)	77
그림 5-8. EU 국가별 가계 식품소비지출 비중(2010)	78
그림 6-1. FISMO 모형구조	87
그림 6-2. 식품제조업 산출액 추이	88
그림 6-3.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89
그림 6-4. 식품제조업 생산액,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율 전망	90

< 그림 목 차 >

그림 2-1. 밀가루 수급 전망	111
그림 2-2. 밀가루 수출입 전망	112
그림 2-3. 밀가루 가격 전망	112
그림 2-4. 설탕 수급 전망	114
그림 2-5. 설탕 수출입 전망	115
그림 2-6. 설탕 가격 전망	115
그림 2-7. 대두유 수급 전망	117
그림 2-8. 대두유 수출입 전망	118
그림 2-9. 대두유 가격 전망	118
그림 2-10. 옥수수유 수급 전망	120
그림 2-11. 옥수수유 수출입 전망	121
그림 2-12. 옥수수유 가격 전망	121
그림 2-13. 참기름 수급 전망	123
그림 2-14. 참기름 수출입 전망	123
그림 2-15. 참기름 가격 전망	124
그림 2-16. 마가린 수급 전망	126
그림 2-17. 마가린 수출입 전망	126
그림 2-18. 마가린 가격 전망	127

제 **1** 부

.....

식품산업 동향분석과 전망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1.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수출 증가 등으로 2009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3% 성장했다. 2011년도 국내총생산은 1사분기부터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3.6%로 성장하였다.

표 1-1. 2009~2011 일반경제동향

구 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경제성장률(%)							
GDP성장률	0.3	6.3	4.2	3.5	3.6	3.3	3.6
GNI성장률	1.6	5.6	1.9	0.6	1.2	2.2	1.5
산업생산지수 (2005=100)	119.7	139.2	143.6	151.1	146.3	154.0	148.8
제조업	120.0	140.1	143.6	153.0	147.6	155.4	149.9
식품제조업	99.0	105.0	102.8	105.8	106.3	107.9	105.7
음료제조업	99.3	104.4	99.8	113.0	119.0	99.7	107.9
서비스업생산지수 (2005=100)	129.5	137.1	139.6	144.5	145.5	150.0	144.9
경상수지(백만 \$)	32,790	29,394	2,610	5,492	6,896	11,507	26,505
상품수지	37,866	40,083	5,843	7,661	7,198	10,249	30,950
서비스수지	-6,641	-8,626	-2,538	-796	-1,198	155	-4,377
물가지수							
생산자물가 (2005=100)	110.9	115.1	120.7	122.2	122.7	122.8	122.1
소비자물가 (2010=100)	97.1	100.0	102.8	103.6	104.7	104.9	104.0
수출입물가지수 (2005=100)							
수출물가	109.2	106.4	110.9	110.5	110.2	113.0	111.1
수입물가	137.7	145.0	161.2	164.9	163.8	167.8	164.4
환율(원/\$, 평균)	1,276	1,156	1,120	1,084	1,083	1,145	1,108

주: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139.2에서 2011년 1사분기 143.6, 2사분기 151.1로 증가했으며, 3사분기에는 146.3으로 감소했으나 4분기에는 154.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도 2009년 129.5에서 2010년 137.1, 2011년 144.9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2009년 328억 달러에서 2010년 294억 달러, 2011년 26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2010년 400억 달러에서 2011년 31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2010년 86억 달러에서 2011년 44억 달러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는 연간 상승률이 2010년 3.0%, 2011년 4.0%로 2009년 2.8%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생산자 물가의 경우, 2010년에는 3.8% 상승하였고, 2010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국내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면서 6.1%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외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05~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4.7%, 소비지출 4.2%, 음식료품비 2.8%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1-2. 2005~2011 가계 소득 및 소비 지출

단위: 천 원, (%)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소득	2,898 (3.9)	3,391 (6.0)	3,432 (1.2)	3,632 (5.8)	3,842 (5.8)
소비지출	1,872 (4.2)	2,114 (4.9)	2,149 (1.7)	2,287 (6.4)	2,393 (4.6)
음식료품비	534 (1.0)	587 (6.7)	580 (-1.1)	612 (5.3)	642 (4.9)

주: 1) 음식료품비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와 식사비가 포함됨.

2) ()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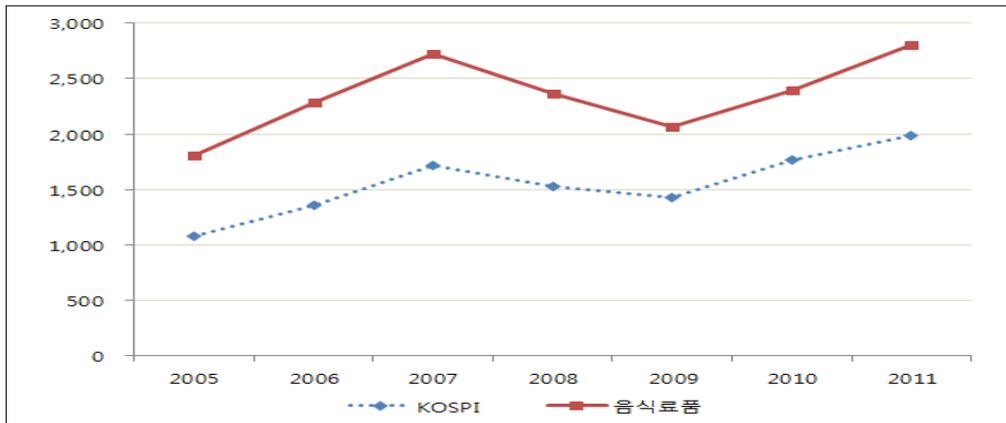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득은 2010년 363만 원, 2011년 384만 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5.9%씩 증가하였다. 가계소비지출은 2010년 229만 원, 2011년 239만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6.4%, 4.6% 증가하였다. 음식료품비는 2010년 612만 원, 2011년 642만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5.3%, 4.9%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낮아졌다가 2011년에는 다시 높아졌다.

종합주가지수(KOSPI)는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9년 대비 23.5%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12.4% 상승한 1,983이었다. 음식료품 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낸다. 2010년 음식료품 주가지수는 2009년보다 15.7%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17.4% 상승한 2,807이었다. 음식료품 주가지수 상승률은 2010년에 국내외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성 하락으로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에 비해 낮았지만 2011년에는 2사분기 이후 식품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1-1. 국내 주식시장 동향



자료: 한국거래소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식품제조업 출하액 비중은 4.8%로 2009년 5.4%보다 감소하였다. 식품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2009년 7.2%에서 2010년 6.8%로 낮아졌으며, 고용 비중은 동기간 6.8%에서 6.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은 생산·출하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체수와 고용 증가율도 감

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전체 제조업 중에서 음식료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4.8%, 사업체수 6.8%, 고용 6.5%로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타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1-3. 식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고용
2009	5.4	5.8	7.2	6.8
2010	4.8	-	6.8	6.5

주: 종사자 수 10인 이상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2.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푸드시스템은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 제조·가공, 소비, 수출입에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포괄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의 관계 등을 파악하였다. 산업연관표상 산업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규정하여 분류하였다.

푸드시스템상 산업은 크게 농수산물(농수산업), 식품소재(소재식품산업), 가공식품(식품가공업), 음료품(음료가공업), 외식(외식업)으로 대별된다. 다만 식품가공업과 음료가공업은 합하여 식품가공(제조)업으로 칭하기도 하며, 외식업에는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표 1-4. 푸드시스템의 산업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수산물	농산물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일
		기타 식용작물
	축산물	낙농 및 육우
		기타축산
	임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
	식품소재	
제분		
제당		
유지 및 식용유		
가공식품 (식료품)		육류 및 육가공품
		수산가공품
		낙농품
		전분 및 당류
		빵, 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 식료품
음료품	알콜음료	주류
	비알콜음료	음료수 및 얼음
외식	외식	음식점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2009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의 공급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생산액은 195조 원, 수출은 5.7조 원, 수입은 26조 원으로 국내공급액은 215.5조 원 규모로 나타났다¹⁾. 국내생산액 중 농수산물은 47.9조 원, 식품소재 13.8조 원, 식품가공 51.1조 원, 음료품 12조 원, 외식 70.4조 원 규모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 수출은 6,540억 원이며, 해외 농수산물 수입은 7.8조 원이다. 따라서 2009년 국내에 공급된 농수산물은 총 55.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1) 국내공급액은 국내총공급(총수요)액에서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상품세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한다.

농수산물 이외의 산업별 국내공급액은 소재식품 17.4조 원, 가공식품(식료품)은 56.5조 원, 음료품 12.2조 원, 외식 74.4조 원으로 산출된다.

표 1-5. 2009년 푸드시스템의 공급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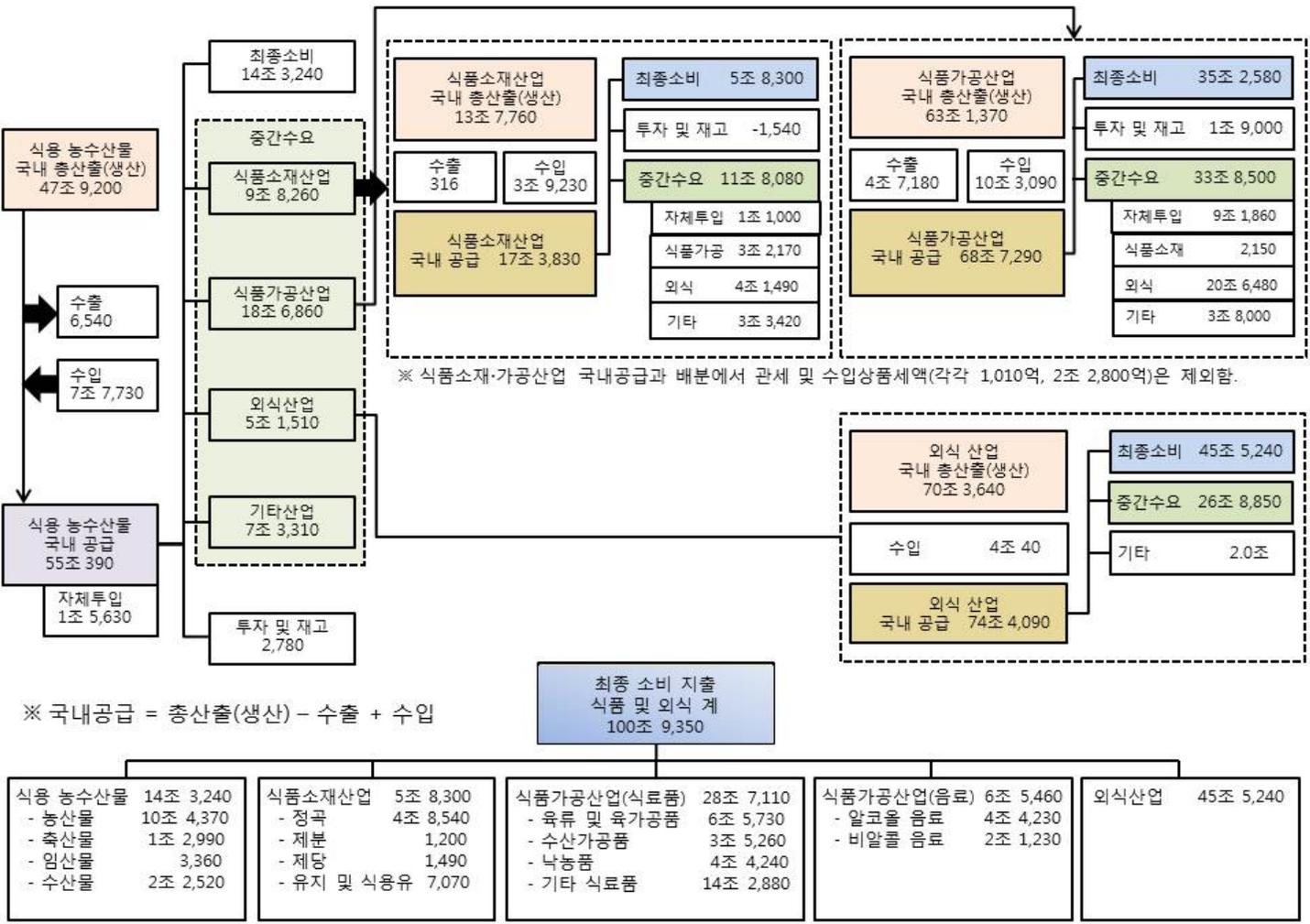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생산 (A)	수출 (B)	수입 (C)	국내공급액 (D=A-B+C)
농수산물		47,920	654	7,773	55,039
	농산물	23,523	308	5,796	29,010
	축산물	15,603	4	242	15,841
	임산물	1,869	61	1,010	2,818
	수산물	6,925	281	726	7,370
소재식품		13,776	316	3,923	17,383
가공식품(식료품)		51,148	4,075	9,418	56,491
음료품		11,989	643	891	12,238
	알콜 음료	7,945	497	834	8,282
	비알콜 음료	4,044	146	57	3,955
외식		70,364	-	4,004	74,368
계		195,198	5,688	26,010	215,520

주: 국내공급액은 국내총공급(총수요)액에서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상품세를 제한 금액에 해당함.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농수산물 최종소비는 14.3조 원, 중간수요는 41.0조 원 규모다. 농수산물은 식품소재산업,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등에 중간수요로 이용된다. 농수산물은 각 산업별로 식품소재산업 9.8조 원, 식품가공산업 18.7조 원, 외식산업 5.2조 원, 기타 산업 7.3조 원이 투입·이용된다.

그림 1-2. 농림수산물 및 식재·가공식품 흐름도(2009)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푸드시스템에서 농수산물은 최종소비로 14.3조 원이 이용되며, 식품소재산업,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등에 중간수요로 38.9조 원 규모가 이용된다. 산업별 농수산물 투입·이용 규모는 식품소재산업 9.8조 원, 식품가공산업 18.7조 원, 외식산업 5.2조 원, 기타 산업 7.3조 원이다.

표 1-6. 2009년 푸드시스템의 총수요

단위: 십억 원

대분류	중분류	중간수요계	민간소비지출	최종수요계	총수요
농수산물		40,962	14,324	15,256	56,218
	농산물	19,946	10,437	9,767	29,713
	축산물	13,793	1,299	2,065	15,858
	임산물	2,075	336	832	2,907
	수산물	5,148	2,252	2,592	7,739
식품소재		11,808	5,830	5,993	17,800
식품가공		27,671	28,711	34,428	62,099
음료품		6,179	6,546	7,448	13,627
	알콜 음료	4,353	4,423	5,167	9,520
	비알콜 음료	1,826	2,123	2,281	4,107
외식		26,885	45,524	47,483	74,368
계		113,505	100,935	110,608	224,113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2009년 푸드시스템의 수요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 푸드시스템의 중간수요는 113.5조 원, 최종수요는 110.6 조 원으로 총수요는 224.1조 원 규모로 산출된다. 농수산물은 중간수요의 비중이 높고, 외식산업은 민간소비지출 등 최종수요의 비중이 높다. 총수요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외식산업으로 33.2%인 74.4조 원, 그 다음으로 식품 가공산업이 27.7%인 62.0조 원, 농수산물이 25.1%인 56.2조 원, 식품소재산업이 7.9%인 17.8조 원, 음료품이 6.1%인 13.6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요 측면에서는 농수산물이 36.1%인 41조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식품 가공산업이 24.4%인 27.7조 원, 외식산업이 23.7%인 26.9조 원, 식품소재산업이 10.4%인 11.8조 원, 음료품이 5.4%인 6.2조 원으로 나타났다²⁾.

2009년 기준 푸드시스템에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의 소비지출은 생산자평가액 기준으로 농수산물 14.3조 원, 식품소재 5.8조 원, 식품가공 28.7조 원, 음료품 6.5조 원 등 모두 100.9조 원에 이르고 있다.

표 1-7. 푸드시스템의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9)

단위: 백만 원, (%)

대분류	소분류	최종소비
농수산물		14,323,712 (14.2)
	농산물	10,437,319
	축산물	1,299,027
	임산물	335,786
	수산물	2,251,580
식품소재		5,830,113 (5.8)
	정곡	4,854,192
	제분	120,437
	제당	148,505
	유지 및 식용유	706,979
식품가공		28,711,408 (28.4)
	육류 및 육가공품	6,573,066
	수산가공품	3,526,220
	낙농품	4,324,216
	기타 식료품	14,287,906
음료품		6,546,398 (6.5)
	알콜 음료	4,423,272
	비알콜 음료	2,123,126
외식		45,523,764 (45.1)
계		100,935,395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2) 외식산업의 중간수요는 가계 외 소비지출로 기업에서 이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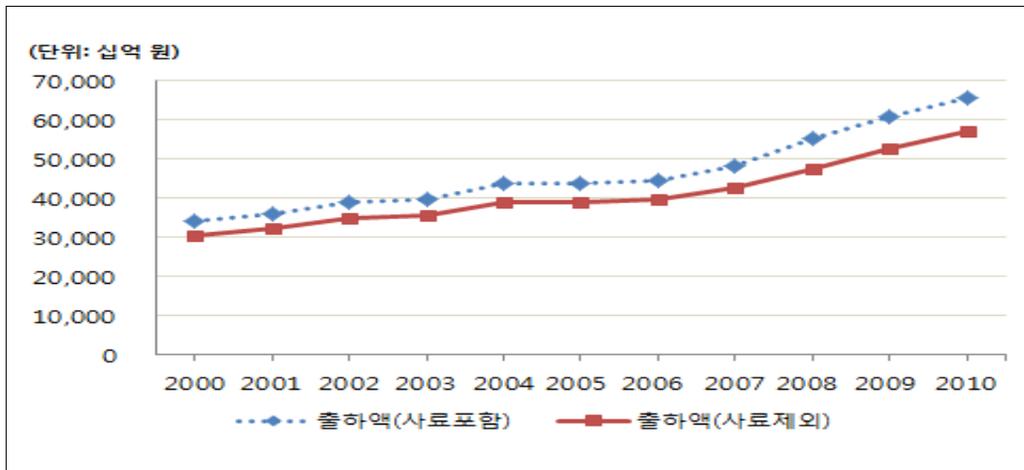
II | 식품제조업 동향

1. 출하

1.1. 출하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10년 57.1조 원으로 나타났다³⁾. 식품제조업 출하액 증가율은 2008년, 2009년에 각각 11.6%, 11.2%로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증가율이 8.6%로 낮아졌다. 한편 2011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010년에 비해 5.9% 증가한 60.5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2-1.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주: 종사자 수 10인 이상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3) 사료(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와 담배를 제외한 음식료품제조업 기준이다. 사료를 포함한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은 2010년 65.4조 원 규모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식품제조업 출하액 증가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11년간 식품제조업 출하액이 증가한 것은 2010년에는 가공식품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2-1. 식품제조업 출하액 동향(명목기준)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추정)
출하액(사료 제외)		39,059	47,319	52,599	57,120	60,480
출하액(사료 포함)		43,668	55,212	60,771	65,446	-
연간 증감률	사료제외	0.3	11.6	11.2	8.6	5.9
	사료포함	0.8	14.7	10.1	7.7	-

주: 1) 종사자 수 10인 이상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 기준

2) 2011년 추정치는 출하량지수와 물가지수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가공식품 출하량 지수는 2010년 103.6, 2011년 105.1로 각각 전년보다 5.7%,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공식품 생산자물가는 2010년 121.4, 2011년 127.3으로 각각 전년보다 2.5%,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공식품 출하량 증가율은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다⁴⁾. 2011년 식료품은 출하량이 전년보다 0.6% 감소하고 가격은 6.4%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2010년 하반기 이후 곡물, 원당 등 수입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 음료는 출하량이 전년대비 3.5% 증가하고 가격 수준 2.9% 상승하였다.

4) 가공식품 전체 지수는 식료품과 음료의 생산자물가지수상의 가중치 29.1과 11.4로 가중평균하여 구했다.

표 2-2. 가공식품 출하량과 생산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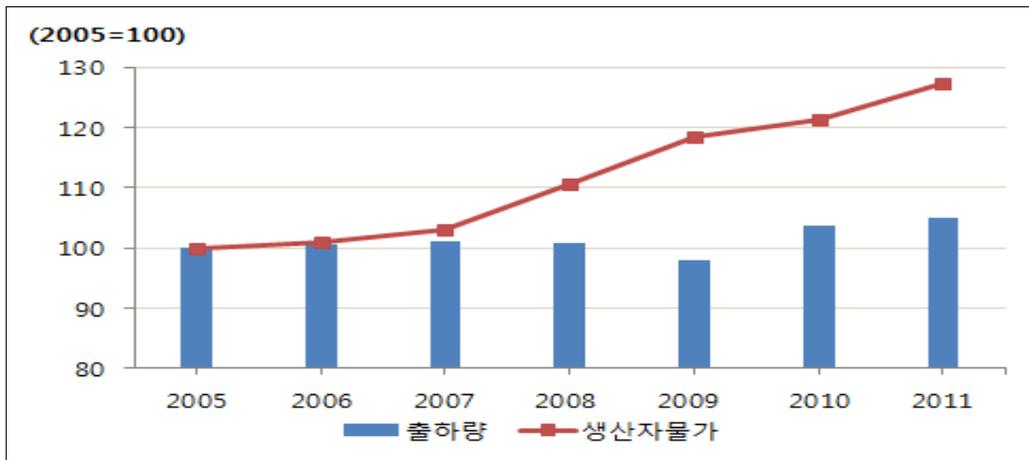
단위: 2005=100,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률	
						'10/'09	'11/'10
출하량 지 수	가공식품	100.9	98.0	103.6	105.1	5.7	1.5
	식료품	97.0	96.5	102.2	101.5	5.9	-0.6
	음 료	104.9	99.5	105.0	108.7	5.5	3.5
생산자물가 지 수	가공식품	110.7	118.5	121.4	127.3	2.5	4.9
	식료품	115.9	126.5	130.6	139.0	3.2	6.4
	음 료	105.4	110.4	112.2	115.5	1.6	2.9

주: 물가지수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집계치를 산출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체가공)

그림 2-2. 식품제조업 출하량과 생산자물가 변동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2. 업종 및 품목별 출하

2005~11년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주로 도축 및 육가공, 과채가공, 곡물가공, 수산가공, 기타식품 업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5~11년간 출하액의 총 증가율은 도축 및 육가공업 95.1%, 과채가공업 86.0%, 수산가공 80.5%, 곡물가공업 78.8%, 기타식품 65.1%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알콜 음료와 비알콜 음료는 각각 5.7%, 29.2% 증가한 반면, 유지류는 18.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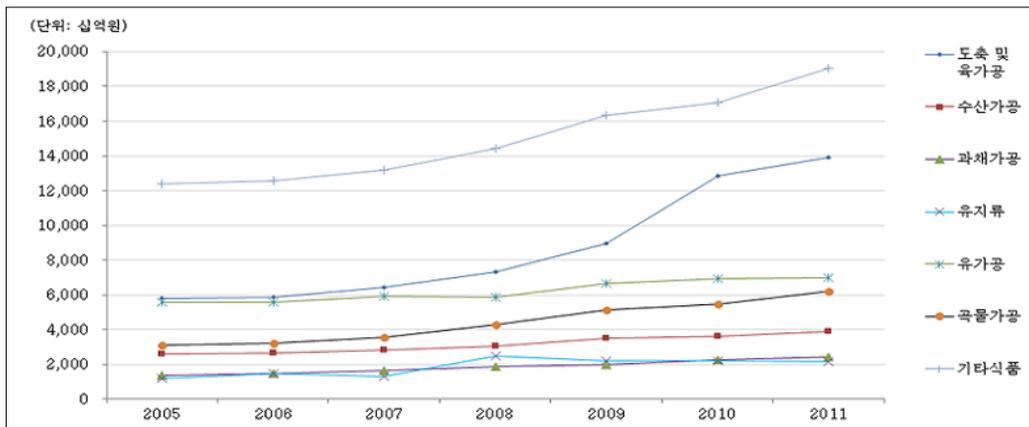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추정)	'11/'05
식 료 품 업	도축 및 육가공	5,830	7,346	8,956	10,480	11,373	95.1
	수산가공	2,598	3,073	3,482	4,323	4,689	80.5
	과채가공	1,340	1,836	1,968	2,203	2,359	86.0
	유지류	1,201	2,460	2,209	1,007	980	-18.4
	유가공	5,578	5,850	6,629	6,197	6,249	12.0
	곡물가공	3,107	4,268	5,129	4,917	5,555	78.8
	기타식품	12,403	14,428	16,333	18,372	20,474	65.1
음 료 업	알콜음료	3,793	4,571	4,524	3,922	4,008	5.7
	비알콜음료	3,209	3,487	3,368	3,675	4,147	29.2

주: 1) 2011년 추정치는 출하량지수와 물가지수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2) 도축 및 육가공: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가공: 수산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채가공: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유지류: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유가공: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식품: 기타식품제조업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은행, 「물가지수」

그림 2-3.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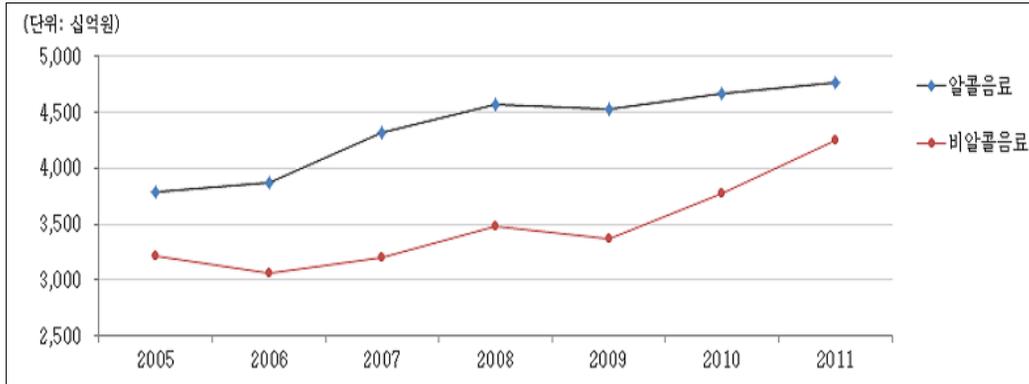


주: 2011년은 자체 추정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은행, 「물가지수」

도축 및 육가공, 과채가공, 곡물가공, 비알콜음료, 기타식품류는 2009~11년간 출하액 증가율이 식품제조업 평균을 상회한 반면 유지류는 2009년 이후 출하액이 정체되고 있다.

그림 2-4. 음료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동향



주: 2011년은 자체 추정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은행, 「물가지수」

출하 동향은 동일 업종 내에서도 품목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2005~10년간 출하량이 증가한 품목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전분·물엿·과당 등 곡물가공품, 간장·빵류·홍삼 등 기타식품, 막걸리·맥주 등 저알콜주류, 생수·커피음료·두유 등 비알콜음료로 분석되었다. 출하량이 증가한 품목은 건강, 기호상의 이유로 소비자 선호가 증대되거나 물가상승에 따라 신선농산물, 외식 등에 대한 대체수요가 증대되었으며, 햄이나 (시판)김치처럼 원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하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품목은 수산물통조림, 농산물통조림, 대두유를 제외한 유지류, 치즈를 제외한 유가공품, 밀가루, 커피류·조미식품(케첩, 고추장, 혼합조미료), 위스키·소주 등 고알콜음료, 탄산·과즙음료 등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품목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급등하거나 선호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대표적인 예가 마가린, 쇼팅 등의 유지류와 위스키, 소주 등의 고알콜 주류다.

표 2-4. 2005년 대비 2010년 가공식품 출하량 및 가격 변화 유형별 품목

구 분	출하량 증가		출하량 정체·감소	
	가격 상승	가격 보합·하락	가격 상승	가격 보합·하락
도축 및 육가공업	햄	소시지		
수산가공업			수산물통조림	
과채가공업	김치			농산물통조림
유지류제조업	대두유		옥수수유, 쇼팅	참기름, 마가린
유가공업	치즈		시유, 아이스크림류	분유, 유산균발효유
곡물가공업	전분, 물엿	과당	밀가루	
기타식품 제조업	간장	빵 및 케이크, 홍삼	케첩, 고추장, 커피, 커피크리머	껌, 라면류, 혼합조미료
알콜음료		막걸리, 맥주		주정, 소주, 위스키
비알콜음료		생수, 커피음료, 두유	탄산음료	과즙음료

주: 출하량 및 가격 변화 유형은 전체 평균치(출하량 6%, 가격 23%) 대비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요약하면 식품제조업 생산·출하 동향은 고급화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지류 출하량은 마가린, 쇼팅, 옥수수유가 감소하고 대두유는 증가했으며, 주류는 고알콜주류가 감소하고 저알콜주류는 증가했다. 음료는 탄산음료가 감소하는 대신 생수와 두유가 증가했으며, 커피·프리마가 감소하는 대신 커피음료는 증가하였다. 한편 (시판)김치, 햄, 치즈 등의 출하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공식품의 기본적인 특성인 간편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업체수와 고용·임금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수는 2000년 3,431개에서 2010년 4,269개로 24.4% 증가하였고, 식품제조업체 업체당 출하액도 증가하여 식품기업의 규모는 완만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출하액 기준 업체 수 비중은 10억 미만의 소기업 업체수가 감소하고, 10억 이상의 중대규모 업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규모별 업체 수 비중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종사자규모별 업체수 비중은 소기업 81%, 중기업 18%, 대기업 1% 수준에서 안정적이다.

표 2-5. 출하액 및 종사자 규모별 식품제조업체수 비중

단위: 개, %

구 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3,431	3,932	4,257	4,061	4,169	4,269
출하액 규모별	(100)	(100)	(100)	(100)	(100)	(100)
10억 미만	39.1	29.3	26.9	22.9	19.4	-
10~100억	45.6	53.3	55.1	56.6	57.9	-
100~1,000억	13.1	14.9	15.6	17.3	19.2	-
1,000억 이상	2.1	2.5	2.3	3.2	3.5	-
종사자 규모별	(100)	(100)	(100)	(100)	(100)	(100)
50인 미만	79.5	82.0	82.6	81.5	81.0	81.3
50~299인	18.9	16.9	16.4	17.5	18.0	17.8
300인 이상	1.6	1.1	0.9	1.0	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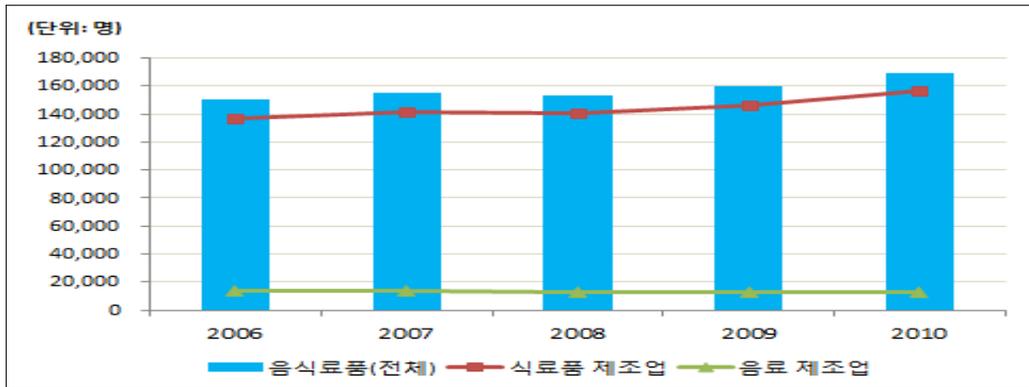
주: 종사자 10인 이상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10인 이상 기준 2009년 15.9만 명, 2010년 16.9만 명이다. 식품제조업 종사자수는 2009년에 전년보다 4.4%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2010년 식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는 식료품제조업 부문이 전체 고용의 92.3%, 음료제조업 부문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의 업종별 종사자수는 2010년 기준

기타식료품 업종이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업 17.2%, 수산가공업 14.5%, 과채가공업 8.0% 순이다.

그림 2-5. 식품제조업 종사자수 추이



주: 10인 이상 음식료품제조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표 2-6. 식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종사자수	비중								
식료품제조업	136,600	91.1	141,913	91.3	140,076	91.5	146,267	91.8	156,210	92.3
육가공	24,345	16.2	25,977	16.7	25,610	16.7	27,650	17.3	29,246	17.3
수산가공	22,590	15.1	22,736	14.6	22,481	14.7	24,101	15.1	24,566	14.5
과채가공	13,033	8.7	13,699	8.8	13,484	8.8	14,357	9.0	13,540	8.0
식용유지	2,414	1.6	1,855	1.2	2,470	1.6	2,450	1.5	2,228	1.3
유가공	10,459	7.0	10,159	6.5	9,530	6.2	9,235	5.8	8,630	5.1
곡물가공	6,421	4.3	6,702	4.3	7,198	4.7	7,672	4.8	7,734	4.6
기타 식료품	57,338	38.2	60,785	39.1	59,303	38.8	60,802	38.2	62,964	37.2
음료제조업	13,341	8.9	13,478	8.7	12,948	8.5	13,109	8.2	13,087	7.7
알콜음료	6,513	4.3	6,373	4.1	6,478	4.2	6,662	4.2	6,513	3.8
비알콜음료	6,828	4.6	7,105	4.6	6,470	4.2	6,447	4.0	6,574	3.9
합계	149,941	100.0	155,391	100.0	153,024	100.0	159,376	100.0	169,2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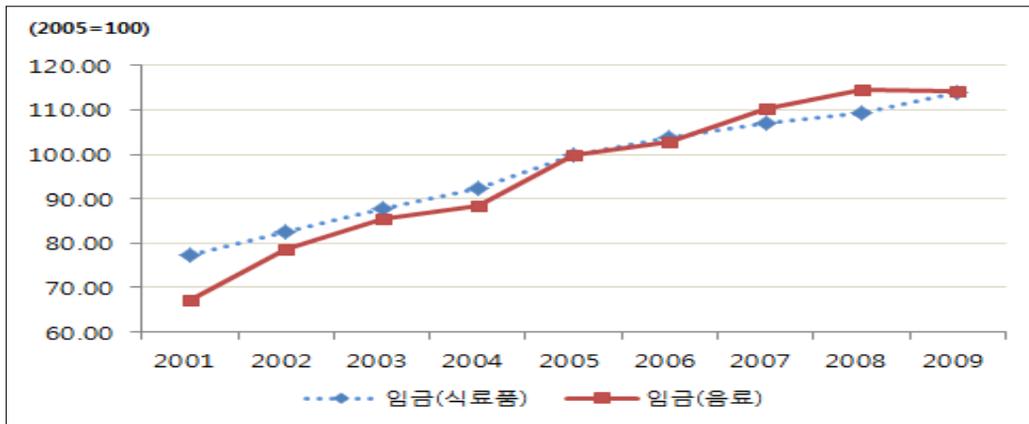
주: 1)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2) 2010년은 경제총조사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제총조사」

식품제조업의 임금 수준은 2001년 이후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모두 계속 상승하였다. 식료품제조업의 1인당 임금 지수는 2001년 77.2에서 2009년 114.0으로 47.8% 증가하였고, 음료제조업 역시 2001년 67.2에서 2009년 114.3으로 7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음료제조업의 임금은 최근 정체되고 있다.

그림 2-6. 식품제조업 임금 변동추이(2005=1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3. 경영성과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를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지표로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을 이용하였고,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재무안정성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였다.

<기업경영 분석지표>

매출액증가율은 전기매출액에 대한 당기매출액의 증가율로 기업의 외형적 성장 추세를 파악하며,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로 기업의 설비 투자 동향과 성장 잠재력을 나타낸다. 총자산증가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운용한 총자산의 증가율로 기업규모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text{유형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유형자산} - \text{전기말 유형자산}}{\text{전기말 유형자산}} \times 100,$$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생산·판매 활동의 성과인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비율로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활동에서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낸다. 기업순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의 운영효율성을 나타내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업의 자기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기업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 + \text{금융비용}}{\text{총자산}} \times 100$$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평가된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총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3.1. 성장성

2010년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대체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반면 식료품제조업체의 성장성이 음료제조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6.4%로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 17.5%보다 낮았다. 식료품제조업 중 매출액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타식품제조업으로 2009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료제조업은 전체적으로 1.3%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알콜음료의 매출이 2009년 대비 7.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2-7. 식품제조업 성장성 분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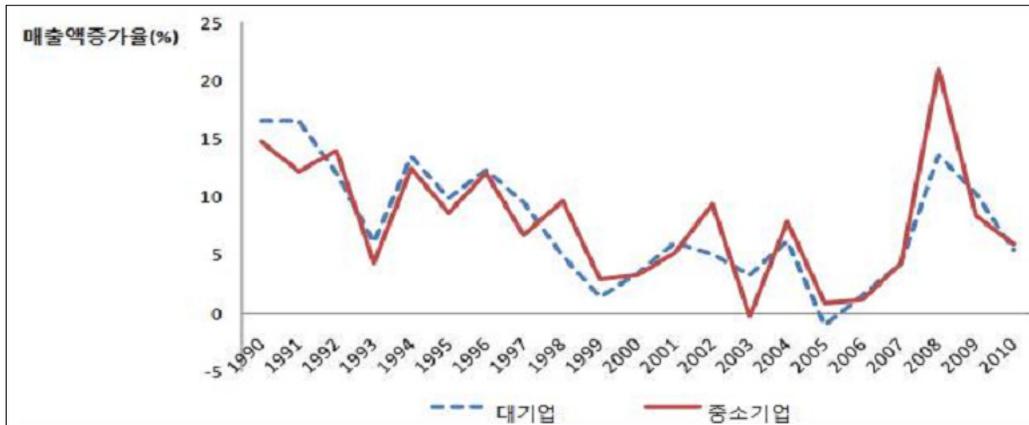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11.70	9.66	17.53
(대기업)	11.56	9.63	18.51
(중소기업)	11.94	9.71	16.04
식료품제조업	11.07	10.00	6.44
(대기업)	10.04	2.76	7.34
(중소기업)	12.46	20.03	5.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12.66	16.38	6.6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8.49	2.53	6.20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10.58	12.66	3.81
기타 식품	11.14	7.75	7.69
음료제조업	9.42	1.60	-1.33
(대기업)	11.74	3.39	-6.37
(중소기업)	1.33	-6.09	12.46
알콜음료	10.87	0.64	-7.81
비알콜음료 및 얼음	6.20	3.27	7.6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외환위기 동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에는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13.6%, 중소기업 21.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성장률을 추월하였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7.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추이,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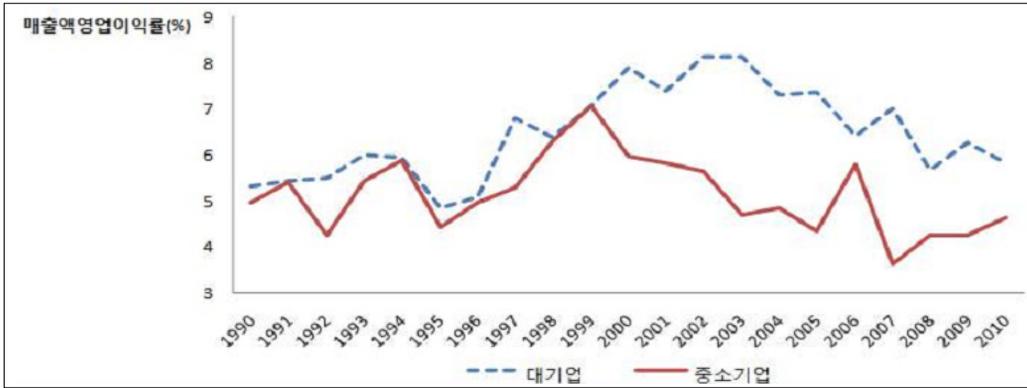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3.2. 수익성

식품제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타 식품으로 2009년 대비 6.0%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9.6%로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음료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 9.8%, 중소기업 9.2%로 비슷한 수준이다. 알콜음료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4.0%로 비알콜음료 및 얼음의 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7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상승 추세다.

그림 2-8.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0년 식품제조업체의 수익성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음료제조업이 높았으나 기업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식료품제조업체가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2%로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6.9% 대비 낮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 식품제조업 수익성 분석(2010)

단위: %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제조업	6.89	8.01	13.51
(대기업)	7.83	9.01	15.25
(중소기업)	5.45	6.29	9.83
식료품제조업	5.21	8.06	13.69
(대기업)	6.09	8.96	14.01
(중소기업)	4.28	6.86	12.97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4.75	8.53	17.8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4.91	6.98	9.61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4.38	6.07	10.73
기타 식품	6.00	8.97	14.73
음료제조업	9.62	3.67	3.20
(대기업)	9.78	2.72	1.03
(중소기업)	9.24	7.15	11.77
알콜음료	13.98	4.27	3.61
비알콜음료 및 얼음	4.43	2.31	2.5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3.3. 재무안정성

식품제조업체는 자기자본이 부족하지만 단기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며, 음료제조업체는 자기자본은 양호하지만 단기 채무상환능력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05.0%로 전체 제조업의 부채비율 101.5%에 비해 높다. 식품제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18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101.1%로 전체 제조업의 부채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콜 음료의 부채비율은 124.8%로 비알콜음료 및 얼음의 61.7%에 비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9. 식품제조업 재무안정성 분석(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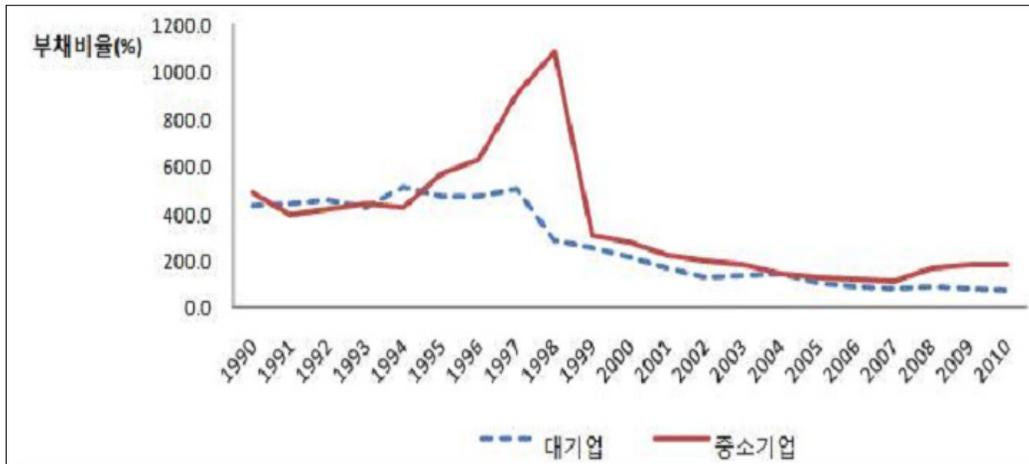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제조업	101.53	121.03	49.62
(대기업)	86.32	116.12	53.67
(중소기업)	134.41	127.81	42.66
식품제조업	105.02	115.49	48.78
(대기업)	68.93	122.85	59.20
(중소기업)	186.05	108.92	34.96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188.51	116.82	34.66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51.21	170.78	66.13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126.82	110.49	44.09
기타 식품	87.54	109.61	53.32
음료제조업	101.16	75.51	49.71
(대기업)	99.44	57.84	50.14
(중소기업)	108.05	123.96	48.06
알콜음료	124.80	73.45	44.48
비알콜음료 및 얼음	61.67	84.38	61.85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가, 수익성 개선과 구조조정의 결과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림 2-9. 식품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추이, 1990~2010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4.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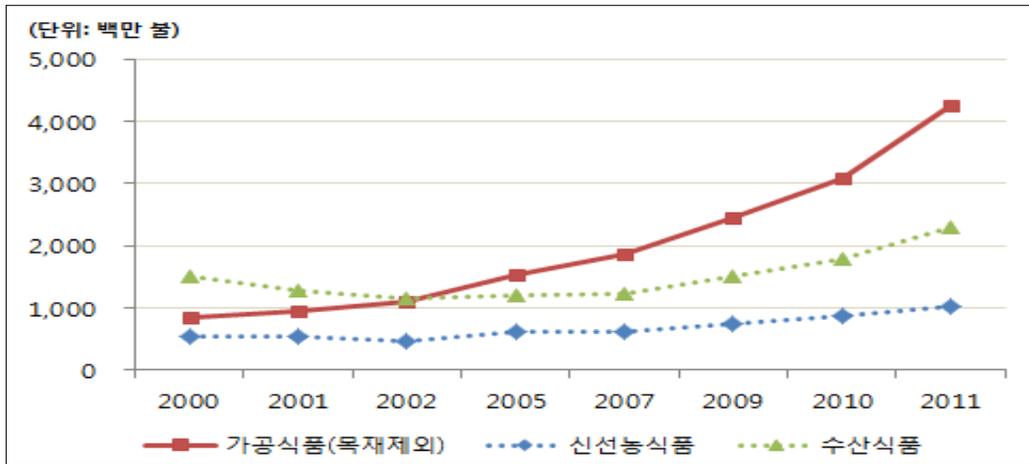
가공식품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농림수산물(이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주도하였다⁵⁾. 가공식품 수출액은 2010년 30.9억 달러이며, 2006년 이후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공식품(목재 및 수산가공품은 제외) 수출은 42.6억 달러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37.9%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수출은 가격 수준이 작년보다 8.9% 상승하면서도 수출량이 15.5% 증가하여 국내산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특히 음료(생수, 커피음료), 커피류, 주류(막걸리, 맥주), 과자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⁶⁾. 2011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중국·동남아의 소득 증가와 한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여기서 가공식품이란 대체로 2차 또는 3차 가공하였거나 수입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산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것 등은 신선식품으로 분류된다.

6) 신선농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삼식품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2-10. 농림수산물 연간 수출액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11년간 가공식품 생산은 내수에 의존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0. 2007년 대비 2011년 품목별 식품 내수·수출 증가 유형

구분	내수 증가	수출 증가	내수·수출 증가
육류가공업	햄		
수산가공업	수산물통조림		
유지류제조업		대두유(식용)	참기름
곡물가공업	밀가루, 혼합조제분말, 전분	과당	
기타식품 제조업	빵 및 케이크, 건과자 및 스낵류, 라면류, 혼합조미료, 냉동식품	케첩	레토르트식품
알콜음료			막걸리
비알콜음료	생수, 탄산음료, 커피음료, 과즙음료, দু유		

주: 내수와 수출 부분의 성장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식품 전체의 내수 또는 수출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된 것은 아님.

자료: 통계청

2007~11년간 내수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햄, 수산물통조림, 곡물가공품(밀가루·혼합조제분말·진분), 기타식품류(빵류·과자류·라면류·혼합조미료·냉동식품), 비알콜음료(생수·탄산음료·커피음료·과즙음료·두유) 등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품목은 대두유, 과당, 케첩 등이며, 내수, 수출 모두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참기름, 레토르트식품, 막걸리로 나타났다⁷⁾.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2010년 54.5억 달러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수입액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가공식품 품목별 수입액은 규격 외 일반가공품, 기타 식품류, 주류, 식용유,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과자류, 김치류, 건포류,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았다.

2006~10년 사이 수입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당시럽류, 드레싱, 커피, 당류, 조림식품, 면류, 규격 외 일반가공품, 조미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등은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액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의 수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수입식품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 내수와 수출 부분의 성장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식품 전체의 내수 또는 수출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된 것은 아니므로 성장 유형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참기름은 수출 증가율이 높았지만 수출 증가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 수출이 식품제조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표 2-11. 부류별 가공식품의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06~'10)
건포류	104,234	107,692	99,348	99,327	100,557	-0.8
과자류	122,847	160,272	165,728	135,746	103,605	-2.0
김치류	87,509	107,920	107,251	65,645	103,143	10.3
다류	22,277	17,159	16,132	15,664	22,218	2.5
당류	13,989	45,407	38,140	25,022	29,768	48.3
당시럽류	1,495	2,503	2,816	2,504	4,396	36.1
두부류 또는 묵류	2,349	1,339	1,115	612	1,060	-7.9
드레싱	1,275	1,650	2,296	2,544	3,508	29.3
면류	46,444	57,748	75,928	75,776	87,900	17.9
빵 또는 떡류	33,728	47,046	51,921	40,118	49,853	12.8
식용유지류	373,350	316,880	427,305	203,750	210,500	-7.3
식육 또는 알가공품	45,168	53,588	49,981	34,105	51,337	7.7
어육가공품	424,408	153,807	218,766	132,657	181,935	-5.9
엿류	32,526	42,273	54,911	44,198	41,143	8.4
음료류	53,903	62,032	59,694	50,947	59,650	3.4
장류	10,988	17,470	15,338	13,946	12,394	6.6
잼류	5,647	7,126	8,130	7,828	7,941	9.5
절임식품	43,034	50,887	55,717	45,693	64,379	12.7
젓갈류	21,390	11,466	9,633	8,248	14,367	-0.6
조림식품	7,175	8,965	9,739	10,584	14,730	20.4
조미식품	127,712	160,823	175,499	163,771	226,823	16.7
주류	325,837	453,834	478,838	341,326	432,860	10.7
커피	38,711	49,401	71,718	77,341	93,473	25.4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30,680	169,778	153,943	155,186	199,627	12.5
특수용도식품	14,265	11,886	15,583	15,468	22,107	14.2
기타식품류	323,704	430,047	476,405	411,013	502,143	13.0
규격 외 일반가공품	1,045,106	1,336,251	1,497,711	1,495,675	1,924,198	17.1
식품첨가물	469,812	519,268	615,409	550,153	653,994	9.3
건강기능식품	229,732	215,051	220,550	209,671	225,667	-0.3
합계	4,159,295	4,619,569	5,175,545	4,434,518	5,445,276	7.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III | 외식업 동향

1. 식품소비 및 외식 지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2005~11년간 연평균 6.4%씩 증가하여 2011년에 239.3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식품소비지출(음식료품비)은 전년대비 4.9% 늘어났다. 식품소비지출 중 외식비는 전년대비 2.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식품소비지출 중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국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 동향(2인 이상)

단위: 원, %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소비지출	1,871,887	2,114,217	2,149,184	2,286,874	2,392,666
음식료품비	533,989 (100.0)	587,166 (100.0)	580,794 (100.0)	611,625 (100.0)	641,711 (100.0)
신선식품	159,924 (29.9)	170,110 (29.0)	164,145 (28.3)	173,707 (28.4)	181,906 (28.3)
가공식품	120,517 (22.6)	136,181 (23.2)	141,863 (24.4)	152,250 (24.9)	166,865 (26.0)
외식비	253,548 (47.5)	280,875 (47.8)	274,786 (47.3)	285,668 (46.7)	292,940 (45.6)
엔겔계수	14.6	14.1	13.8	13.9	14.2

주: 1) 신선식품 -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포함.

2) 가공식품 -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및 차·음료와 주류, 유지·조미료 포함.

3) 엔겔계수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와 비알콜음료를 합한 금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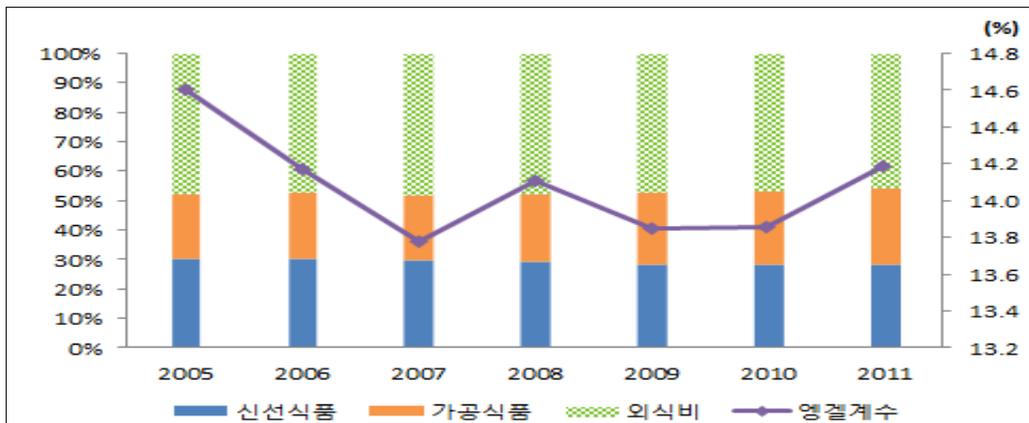
4) 괄호 안의 수치는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중 외식비를 제외한 식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⁸⁾.

2인 이상 가구의 외식비 지출은 2005~11년까지 연평균 3.8%씩 증가하여 2011년에 29.3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외식비의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47.8%에서 2011년 45.6%로 하락하였다. 즉 음식료품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류별 비중은 가공식품이 늘어나는 반면, 외식비는 줄어들고 있다.

그림 3-1. 식품소비지출과 엔겔계수 추이



주: 1) 신선식품 -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포함.

2) 가공식품 -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및 차·음료와 주류, 유지·조미료 포함.

3) 엔겔계수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와 비알콜음료를 합한 금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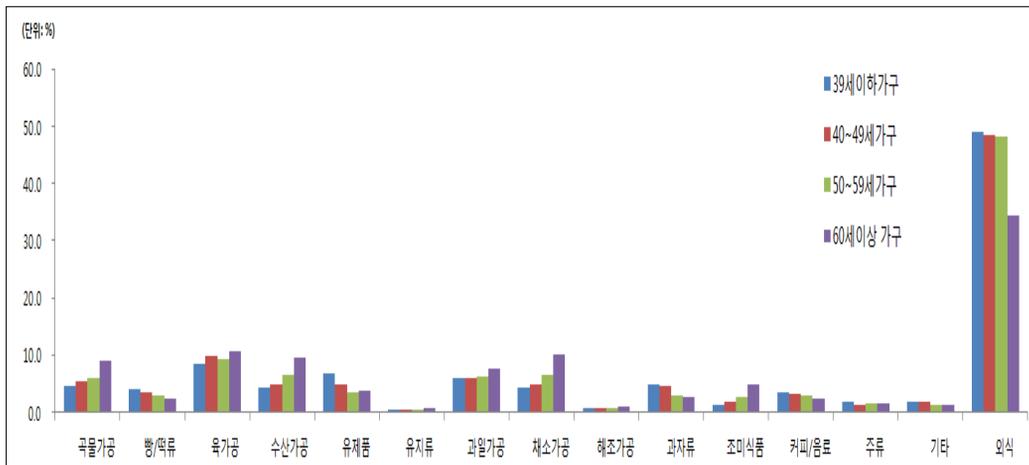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선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공식품이나 외식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곡류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

8) 엔겔계수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와 비알콜음료를 합한 음식료품비의 비중으로 측정되며, 음식료품비에 주류와 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유지류,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빵 및 떡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커피·음료, 주류, 외식 등의 비목은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식품소비지출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앵겔계수가 큰 반면, 음식료품비 대비 외식비 지출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 평균소득 600만 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92.4만 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앵겔계수가 11.6%, 300~4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4.6만 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14.4%,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9.3만 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앵겔계수가 24.3%로 나타났다.

한편 월 평균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47만 원, 300~4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9.8만 원,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8만 원을 전체 소비지출 중 외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 평균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50.9%, 300~4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46.1%로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만 원 미만인 가구들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0만 원 미만

인 가구의 경우 23.2%로 외식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 전국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2인 이상)(2011)

단위: 원, %

구 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
소 득	617,786	1,524,293	2,515,081	3,490,904	4,482,749	5,432,311	7,972,501
소비지출	906,440	1,348,685	1,894,914	2,354,408	2,799,464	3,121,123	3,815,327
음식료품비	292,920	410,637	544,487	645,718	733,190	808,088	923,958
외식비	67,930 (23.2)	136,990 (33.4)	235,568 (43.3)	297,542 (46.1)	355,473 (48.5)	396,599 (49.1)	469,803 (50.9)
엔겔계수	24.3	19.8	15.8	14.4	13.1	12.8	11.6

주: 1) 엔겔계수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와 비알콜음료를 합한 금액의 비중

2) 괄호 안의 수치는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엔겔계수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엔겔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전국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소비지출(2인 이상)(2011)

단위: 원, %

구 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 득	3,898,830	4,288,910	4,210,865	2,632,242
소비지출	2,465,305	2,790,041	2,467,337	1,570,532
음식료품비	617,140	717,529	681,947	502,404
외식비	308,111 (49.9)	365,728 (51.0)	347,743 (51.0)	324,366 (64.6)
엔겔계수	12.5	13.1	14.1	20.7

주: 1) 엔겔계수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와 비알콜음료를 합한 금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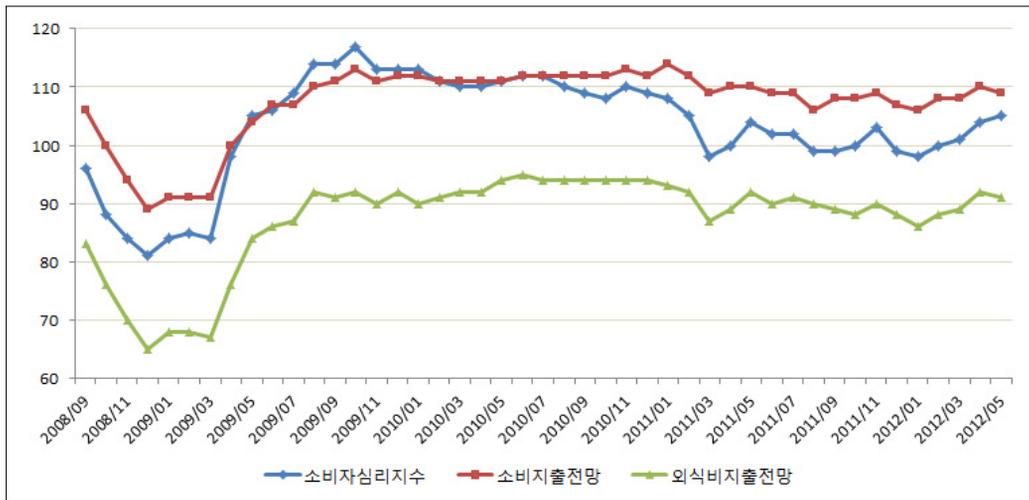
2) 괄호 안의 수치는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49세와 50~59세 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모두 51.0%로 전체 소비지출 중 비슷한 수준의 비중으로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민경제는 성장률이 3.5% 내외로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이후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어 긍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다소 많지만 2011년 이후 횡보하고 있다. 특히 외식비지출전망지수는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3-3. 소비자동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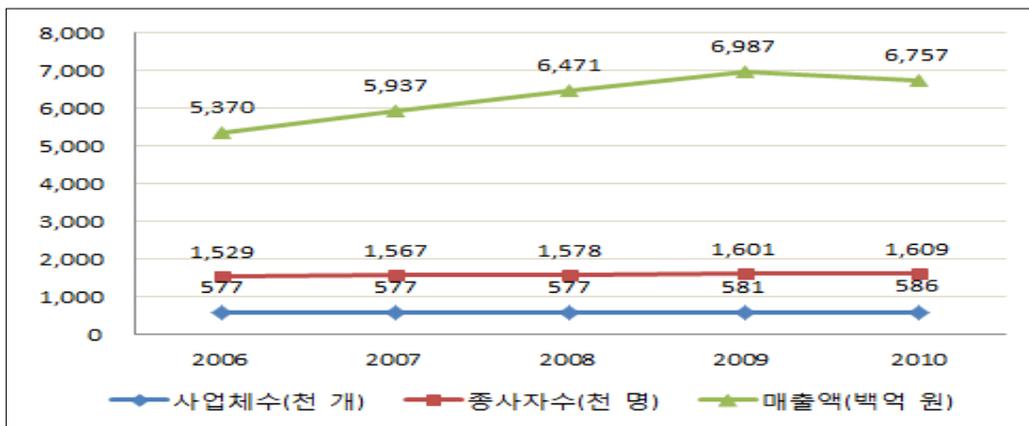
주: 소비자동향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긍정적인 응답자가 많고, 이를 하회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음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2. 외식업 매출

외식업체 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7.7만 개에서 2009년 58.1만 개, 2010년 58.6만 개로 증가하였다. 외식업은 사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수도 2006년 152.9만 명에서 2009년 160.1만 명, 2010년 160.9만 명으로 완만하지만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외식업 매출액은 2006년 53.7조 원에서 2009년 69.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67.6조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외식업 변화 추이



주: 외식업에는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외식업 종사자 수는 2006년 약 153만 명에서 2010년 약 161만 명으로 연평균 1.3%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9년 2.8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매출액 1억 원당 종사자 수는 2009년 2.3명에서 2010년 2.4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감소폭이 커 실질적으로 매출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메뉴의 간편화 내지 전문화, 외식프랜차이즈 확대, 주방의 현대화 등이 촉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009년 1.2억 원에서 2010년 1.2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2006년 이후 연평균 5.7%로 증가하며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체당 영업비용의 경우도 2009년 9,580만 원에서 2010년 8,870만 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06년 이후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사업체당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한편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으로 산출되는 영업이익률은 2006년 26.6%에서 2010년 23.0%로 감소하여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외식업 경영성과 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93.1	102.8	112.2	120.4	115.2
- 전년대비 변동률(%)	7.1	10.5	9.1	7.3	-4.2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68.3	76.6	86.4	95.8	88.7
- 전년대비 변동률(%)	8.1	12.1	12.9	10.8	-7.3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2.7	2.7	2.7	2.8	2.7
- 전년대비 변동률(%)	-2.3	2.4	0.7	0.8	-0.5
영업이익률(%)	26.6	25.5	22.9	20.4	23.0
매출 1억원당 종사자수(명)	2.8	2.6	2.4	2.3	2.4

주: 외식업에는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을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외식업 매출액은 2006~09년까지 연간 8~11%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매출액은 2009년 69.9조 원에서 2010년 67.6조 원으로 3.3% 감소하였다. 2010년 부문별 매출액은 음식점업과 주점업 부문 모두 감소하였으나 주점업 매출액이 특히 2010년에 12.4%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음식점업과 주점업의 매출액은 각각 55.5조 원, 12.0조 원 수준이다.

표 3-5. 외식업 매출액 동향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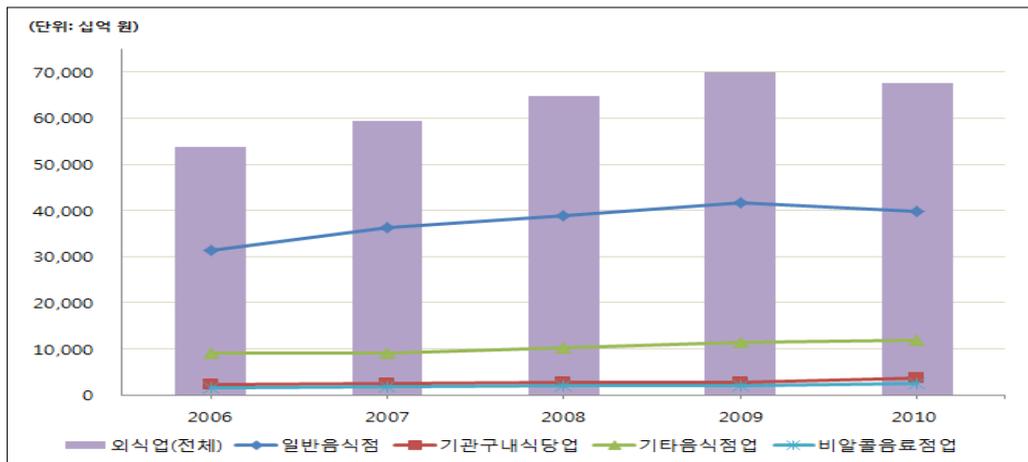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음식점업	42,905	47,917 (11.7)	51,942 (8.4)	56,121 (8.0)	55,527 (-1.1)
주점업	10,796	11,448 (6.0)	12,770 (11.5)	13,745 (7.6)	12,039 (-12.4)
외식업 계	53,701	59,365 (10.5)	64,712 (9.0)	69,865 (8.0)	67,566 (-3.3)

- 주: 1) 2010년은 경제총조사 기준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3) 주점업에는 비알콜음료업 포함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음식점업 매출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6.1%씩 증가하여 2010년 55.5조 원에 이르렀다⁹⁾. 일반 음식점업의 경우 외식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연평균 6.4%씩 증가하여 2010년 39.9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추이



주: 2010년은 경제총조사 기준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9) 광의의 외식업은 음식점업과 주점업을 포함하지만, 협의의 외식업은 음식점업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기관구내식당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6%씩 증가하여 2010년 3.6조 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연평균 7.0%씩 증가하여 2010년 11.9조 원에 이르렀다. 일반 음식점에 비해 기관구내식당업의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의 단체급식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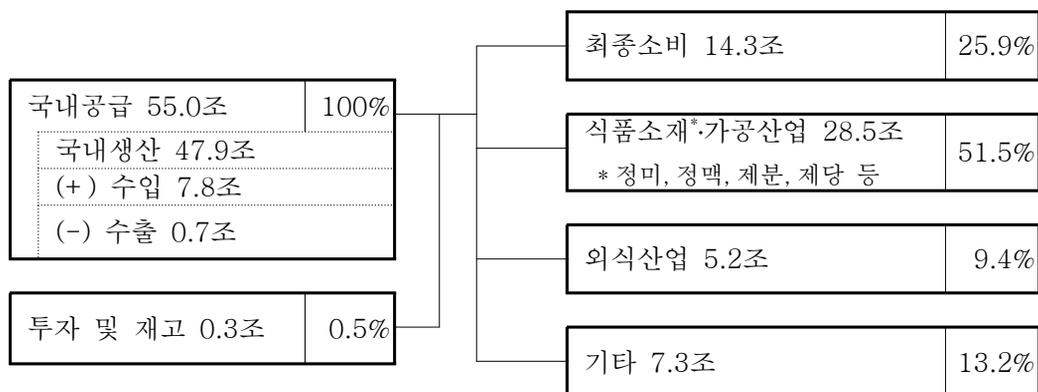
IV 식품산업의 구조변화와 트렌드

1.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관관계

1.1. 식품산업의 농축수산물 투입·이용 구조

국내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은 최종소비로 전체의 25.9%에 해당하는 14.3조 원 규모가 이용된다. 농축수산물은 최종소비 외에 식품제조업(소재·가공산업)에 전체의 51.5%인 28.5조 원, 외식산업에 9.4%인 5.2조 원이 원재료로 투입·이용된다.

그림 4-1. 농축수산물의 부문별 투입(이용) 구조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국내에 공급된 농축수산물 가액은 2008년 53.4조 원에서 2009년 55.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은 2008년 44.3조 원에서 2009년에는 47.2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수입 농축수산물은 동기간 9.1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수산물 공급액 중 국내산 비중이 2008년 83.0%에서 2009년 85.8%로 증가했다.

표 4-1. 국내 농축수산물 공급액의 국산·수입 비중(2008~09)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축수산물 계	53.4	100.0	55.0	100.0
국내산	44.3	83.0	47.2	85.8
수입	9.1	17.0	7.8	14.2

주: 1) 국내 공급액은 총산출(생산)액에서 수출액을 제하고 수입액을 더하여 산출됨.

2) 국내산은 국내 산출(생산)액에서 수출액을 제하여 산출됨.

자료: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09 산업연관표」

<식품 자급률 동향>

물량기준으로 산정하는 농식품 자급률은 2007~09년간 대체로 증가한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는 27.4%에서 30.2%로 증가했다. 곡류 외에도 채소류, 과일류, 어패류, 해조류, 유지류 등의 자급률도 증가했다. 한편 두류(콩)와 종실류 자급률은 감소했다. 육류에서는 돼지고기 자급률이 증가했으나 쇠고기 자급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국내 주요 농식품 자급률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곡류	27.4	28.4	30.2
쌀	92.5	94.4	101.1
보리	48.4	40.7	45.8
밀	0.2	0.4	0.5
옥수수	0.7	1.0	1.0
서류	98.3	97.9	98.4
두류	11.6	9.3	10.7
콩	11.1	8.6	9.8
종실류	30.4	35.8	29.3
채소류	90.4	91.0	92.6
과실류	83.5	84.8	89.5
육류	78.2	78.6	77.5
쇠고기	46.4	47.6	42.2
돼지고기	75.8	76.5	78.9
닭고기	87.7	86.4	87.1
계란류	99.4	99.7	99.8
우유류	70.8	72.3	70.5
어패류	72.3	72.4	74.8
해조류	110.7	115.4	117.5
유지류	1.7	3.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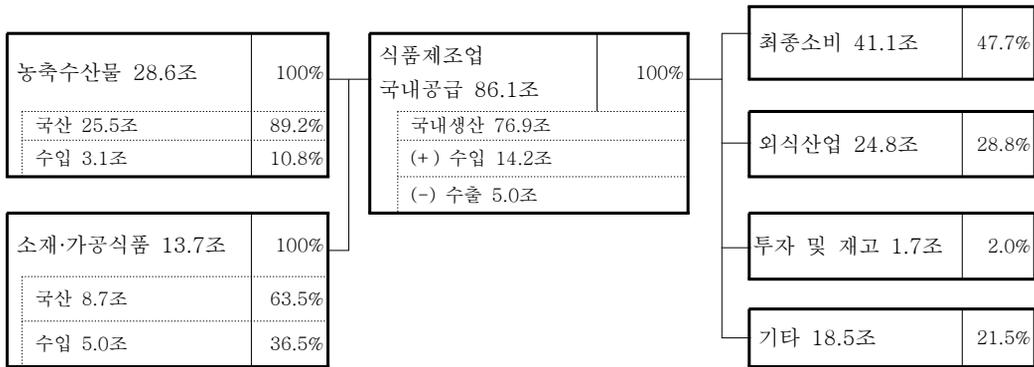
주: 1) 곡류는 기타곡물(호밀, 조, 수수, 메밀 등) 포함.

2) 자급률 =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식품제조업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농축수산물 28.6조 원(국산 89.2%), 가공식품은 13.7조 원(국산 63.5%)으로 산출되었다. 이 때 국내에 공급된 가공식품(수입 가공식품 포함)은 일반소비자에게 47.7%, 외식산업에 28.8%가 배분·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식품제조업의 투입과 배분 구조



주: 1) 소재·가공식품은 식품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소재식품과 가공식품을 모두 포함.
 2) 식품가공산업 국내공급과 배분에서 관세 및 수입상품세액(2.4조 원)은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식품제조·가공용 농축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투입액의 국산, 수입 비중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이 89%, 수입산이 11%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표 4-3. 식품제조용 농축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투입액의 국산·수입 비중

단위: 조 원, %

구 분	농축수산물		소재·가공식품	
	2008	2009	2008	2009
투입 계	26.6 (100.0)	28.6 (100.0)	12.1 (100.0)	13.7 (100.0)
국내산	23.7 (89.1)	25.5 (89.2)	7.5 (62.0)	8.7 (63.5)
수입	2.9 (10.9)	3.1 (10.8)	4.6 (38.0)	5.0 (36.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09 산업연관표」

2, 3차 식품가공용 소재·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이 2008년 62.0%에서 2009년 63.5%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2008년 38.0%에서 2009년 36.5%로 감소했다.

소재식품(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유지류)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산물은 2009년 기준 10.8조 원이며, 이 중 수입 농축산물은 2.8조 원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부 업종에 따라 수입 원료 이용 비중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정곡의 수입비중은 0.8%에 불과하지만 정곡을 제외한 소재식품용 원재료의 수입비율이 85~100% 수준이다¹⁰⁾. 2009년 소재식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이용도는 제분을 제외한 정곡, 제당, 전분 및 전분당, 유지류 업종에서 모두 낮아졌다.

표 4-4. 소재식품용 원료농산물의 수입 비중(2009)

단위: 십억 원, %

구 분	정곡	제분	제당	전분 및 전분당	유지류
원료농축산물 계(A)	7,910	1,162	716	248	755
국내산	7,843	1	8	19	114
수입(B)	67	1,161	709	229	641
수입 비중(B/A)	0.8	99.9	99.0	92.3	84.9
수입 비중(2008)	0.9	99.9	99.1	92.9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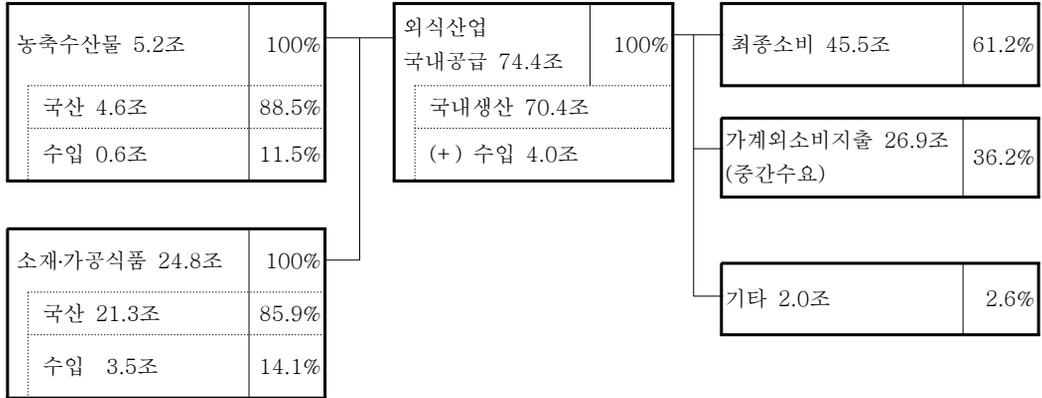
주: 제당은 자기부문 투입분으로 산출.

자료: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09 산업연관표」

외식업 생산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2조 원, 소재·가공식품은 24.8조 원 규모가 투입된다. 외식업 국내공급액 74.4조 원은 최종소비에 61.2%, 가계 외 소비지출에 36.2% 등으로 배분·이용된다. 가계 외 소비지출은 회의비, 다과비, 교제접대비 등 기업의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산업연관표상 중간수요로 분류된다.

10) 전분의 원료로 옥수수 외에 감자, 고구마 등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보호를 위해 시장접근 물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분 생산과정에서 국내산 원료의 투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8년 국제금융 위기로 국제 옥수수가격과 환율이 상승하여 옥수수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며, 대체품목으로 감자 등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감자 전분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외식업의 투입과 배분 구조



주: 가계 외 소비지출은 기업의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민간소비지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회의비, 다과비, 교제접대비 등의 지출이 이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2009년 외식업용 농축수산물 투입·이용액은 국산이 2008년 4.1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12% 가량 증가했으나 수입은 0.7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외식업용 원료농축수산물의 국산 비중은 2008년 85.5%에서 2009년 88.5%로 상승하고 수입은 14.5%에서 11.5%로 하락했다. 외식업용 소재·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이 2008년 85.8%에서 2009년 85.9%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14.2%에서 14.1%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4-5. 외식업용 농축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투입액의 국산·수입 비중

단위: 조 원, %

구 분	농축수산물		소재·가공식품	
	2008	2009	2008	2009
농축수산물 계	4.8 (100.0)	5.2 (100.0)	22.6 (100.0)	24.8 (100.0)
국내산	4.1 (85.5)	4.6 (88.5)	19.4 (85.8)	21.3 (85.9)
수입	0.7 (14.5)	0.6 (11.5)	3.2 (14.2)	3.5 (14.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09 산업연관표」

1.2. 식품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식품산업의 성장이 모든 산업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이나 2008년에 비해 증대되었다. 생산유발계수는 식품제조업이 2008년 2.083에서 2009년 2.128로 상승하고 외식업은 동기간 2.023에서 2.065로 상승했다.

식품제조업 생산이 2009년에 10억 원 증가하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1.3억원, 농림어업 부문에는 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05년에 비해 전체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전체: 2.093→2.128, 농림어업: 0.357→0.346)는 증가하였다.

외식산업이 10억 원 성장하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0.6억 원, 농림어업 부문에는 1.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외식산업의 생산유발효과(전체: 2.024→2.065, 농림어업: 0.155→0.163)는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346으로 식품제조업의 농어업 생산유발계수인 0.163보다 크게 나타나 외식업이 상대적으로 농어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4-6. 식품산업 생산유발계수

구 분	2005		2008		2009	
		농림어업		농림어업		농림어업
식품제조업	2.093	0.357	2.083	0.338	2.128	0.346
외식업	2.024	0.155	2.023	0.156	2.065	0.163
* 농림어업	1.746	1.105	1.862	1.117	1.875	1.120
* 제조업	2.064	-	2.061	-	2.081	-
* 산업전체	1.926	-	1.937	-	1.954	-

주: 산업연관표상 통합대분류 수준의 음식료품제조업(식품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외식업)으로 구분함.

자료: 한국은행, 「2009 산업연관표」

1.3. 식품산업의 고용효과¹¹⁾

식품제조업 10억 원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피용자(임금근로자)는 2.2명(고용계수),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3.0명(취업계수)이 필요하다. 외식업 10억 원 생산에는 피용자 9.9명,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20.5명이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외식업이 식품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을 의미한다. 고용 및 취업계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근래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의 고용효과는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산업의 고용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전 산업의 경향과 비슷하다.

표 4-7. 식품산업의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단위: 명/10억 원

구 분	2005				2008				2009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농림어업	4.1	42.6	7.2	51.1	4.0	35.6	7.1	43.6	3.7	32.6	6.9	40.5
식품제조업	2.8	3.9	8.0	24.7	2.3	3.1	6.8	19.9	2.2	3.0	6.8	19.2
외식업	11.3	24.6	16.4	38.6	10.3	21.6	14.9	34.6	9.9	20.5	14.6	33.1
전(全)산업	6.1	8.7	9.9	14.7	5.1	7.1	8.3	12.1	5.2	7.2	8.6	12.4

자료: 한국은행, 「2005 산업연관표」, 「2008 산업연관표」, 「2009 산업연관표」

11) 고용계수는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이며,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된다. 취업계수(고용계수+ α)는 피용자 및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고용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을 위해 직접 필요한 노동량(고용계수)과 생산과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피고용 임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 α)는 피용자 및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다.

2. 시장경쟁구조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집중도는 품목군에 따라 다양해지고 상승 품목군이 하락 품목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개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CR4)이 상승한 품목은 특수영양식품, 면류, 다류, 식용유지, 어육제품, 과자류, 조미식품, 두부·묵류, 기타식품이다¹²⁾. 반면 상위기업 매출액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군은 음료류, 당류, 식육제품, 김치·절임식품이다.

시장경쟁구조는 품목군에 따라 일부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다. 2005년 상위기업 점유율이 70% 이상이었던 특수영양식품, 면류 등의 품목군은 점유율이 모두 상승하였다. 반면 2005년 상위기업 점유율이 25% 미만이었던 품목군 중 건포류를 제외한 식육제품, 일반가공식품, 김치절임식품의 상위기업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였다.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품목군의 점유율은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음료류와 당류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표 4-8. 식품제조업 업종별 상위 4개 기업 매출액점유율(CR4) 변화

단위: %

점유율 증가 품목군			점유율 감소 품목군		
품목명	2005	2010	품목명	2005	2010
특수용도식품	78.6	81.0	음료류	62.4	56.5
면류	76.0	79.1	당류	61.7	57.5
용기류*	71.0	74.9	식품조사처리업*	32.7	25.0
다류	61.0	62.3	식품첨가물	29.6	28.9
식용유지	55.9	57.9	식육제품	21.5	19.7
어육제품	39.8	43.8	기구·용기·포장지*	21.1	17.8
과자류	39.0	40.0	일반가공식품	14.5	14.2
조미식품	36.1	38.8	김치·절임식품	13.3	12.2
두부·묵류	31.5	36.7			
기타식품류	25.0	25.9			
건포류	23.2	23.8			

주: 1) 2005년과 2010년 품목군이 비슷한 품목으로 집계하여 산출함.

2) * 표시 업종은 식품제조업 관련 업종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12) CR은 집중도계수(Concentration Ratio)의 약자로 CR_k는 상위 k개 업체의 점유율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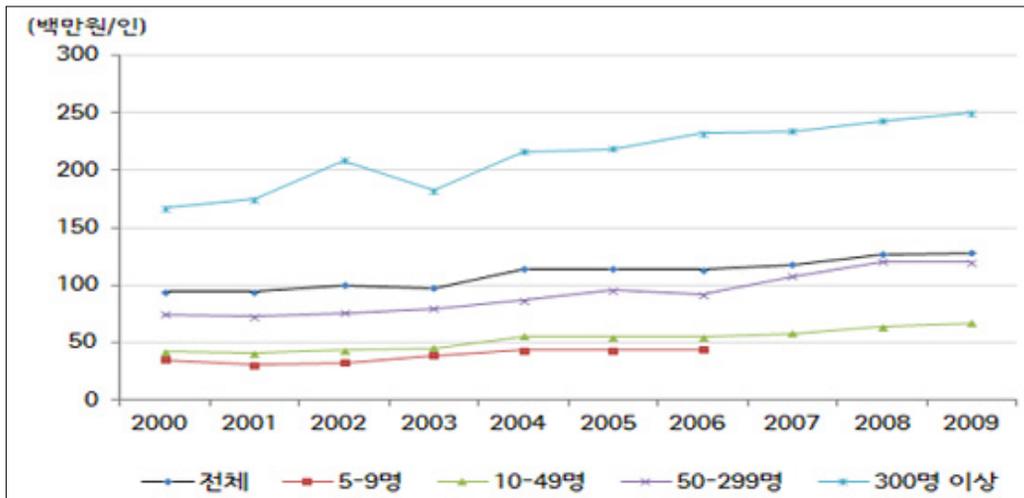
닐슨코리아의 데이터에 의하면 김치류의 포장김치 시장의 CR4도 7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치·절임식품의 상위기업 점유율은 낮지만 ‘가정용 포장김치’ 시장만을 볼 때에는 점유율이 높아 시장집중도가 시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생산성 변화와 R&D 투자

3.1. 생산성 변화

식품제조업 종사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액으로 산출한 노동생산성은 1.3억 원 수준이다. 한편 종사자 10~49인 규모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7,000만 원 수준인데 비해, 종사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5억 원으로 소규모 업체의 3.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식품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



주: 1)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

2) 전체는 10인 이상 업체

3) 9차 개정(2007~09년)은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수치를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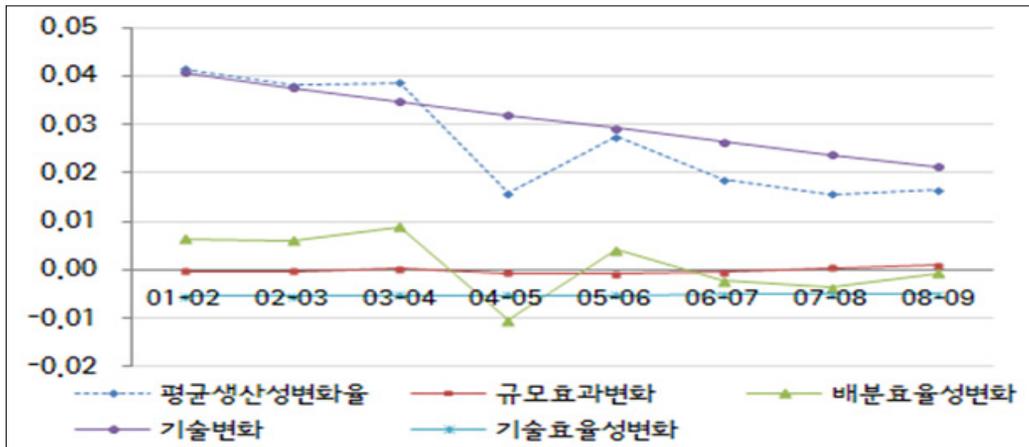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식품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증가세가 매우 완만한 추세이고 식품기업의 규모 간 생산성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중대규모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규모 업체의 노동생산성은 완만히 증가하여 생산성 격차가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가 정체되는 것은 주로 기술진보의 제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노동량 증가와 자본투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총 요소생산성은 증가율이 2000년대 초 4% 수준이었으나 최근 2% 수준으로 낮아졌다. 총 요소생산성은 주로 기술변화에 좌우되었으며¹⁴⁾, 미미하지만 규모 증대의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배분효율성이나 기술효율성은 생산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원재료비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배분효율성은 연간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연도별 식품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와 변화요인



주: 규모효과는 규모 확대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되는 정도, 배분효율성은 요소간 이용배분의 효율성, 기술변화는 기술개발 및 기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생산성 변화를 나타냄.

자료: 최지현 외(2011),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생산성 변화 요인에 관한 부분은 최지현 외(2011)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확률경계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에 의해 생산성변화를 계측하고 그 변화를 규모효율성, 기술효율성, 배분효율성, 기술변화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14) 기술변화 요인은 식품제조업의 기술진보 외에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여건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계측된다.

3.2. R&D 동향

연구개발투자는 추가적인 노동이나 자본 투입 없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식품제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액은 2006년 2,519억 원에서 2009년 2,964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2,71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식품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연구개발집약도)은 2006년 0.68%에서 2009년 0.99%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 0.89%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식품제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2008년 이후부터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식품제조업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액과 집약도 추이(2006~2010)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개발비	집약도								
고기·과채·유지	5,413	0.50	69,359	1.95	18,901	0.52	21,423	0.52	22,548	0.47
유가공	22,845	0.48	27,584	0.60	30,789	0.58	32,250	0.57	26,065	0.53
곡물	13,703	0.71	10,992	0.53	10,483	0.72	24,496	1.06	10,091	0.88
기타 식품	191,794	0.79	122,187	0.55	184,108	1.28	208,719	1.31	195,745	1.10
음료	18,115	0.39	9,049	0.46	7,847	0.37	9,546	0.46	17,117	0.88
합계	251,870	0.68	239,171	0.70	252,128	0.94	296,434	0.99	271,566	0.89

주: 1) 집약도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임.

2) 2007년 이후 음료업에서 주류가 제외되어 산출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업종별 연구개발지출은 기타식품제조업이 가장 많고 매출액대비 비율(연구개발집약도)도 1.10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기타식품제조업 다음으로 곡물가공업과 음료제조업이 높으며, 특히 2010년에 음료제조업이 급등하였다. 기타식품제조업, 곡물가공업, 음료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이 최근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매출 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개발주체별 식품제조업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감률 ('10/'06)
기업자체지출	252,942	251,042	265,241	303,938	249,846 (92.0)	-1.2
정부지출	3,681	4,777	3,990	5,030	14,372 (5.3)	290.4
공공지출	1,843	3,247	4,283	2,472	4,540 (1.7)	146.3
민간지출	2,704	3,697	3,623	1,760	2,079 (0.8)	-23.1
외국지출	2,124	675	1,418	989	729 (0.3)	-65.7
합 계	263,294	263,438	278,555	314,189	271,566 (100.0)	3.1

- 주: 1) 정부지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출연기관
 2) 공공지출: 사립대학+기타비영리법인
 3) 민간지출: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체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비용의 지출은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공공 부문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기업자체가 2,498억 원으로 전체의 9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144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과 정부를 제외한 개발주체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대비 40.7% 증가한 73억 원이다.

4. 식품산업 트렌드

4.1. 제품 트렌드¹⁵⁾

가공식품의 제품 트렌드는 고급화와 프리미엄 제품 출시, 건강 중시, 간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15)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외 식품산업 모니터링」, 「식품저널」 및 「식품세계」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4.1.1. 고급화/프리미엄 제품 출시

음식료, 특히 가공식품 업계는 가격전가력 약화, 출산을 저하, 가공식품 선호도 축소 등에 따른 성장성 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프리미엄제품 출시 및 제품 리뉴얼을 통해 판매단가 인상과 수익성의 제고를 도모해 왔다. 특히 웰빙 트렌드에 부응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출시와 장수제품의 고급화 과정에서, 고가 전략을 추진하여 외형을 확대시키는 반면 기존 제품 대비 상대적인 고마진을 확보함으로써 원재료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 교섭력에 따라 그 성과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주요 업체별 프리미엄 제품군

구 분	업체명	프리미엄 제품군
제 과	롯데제과	‘마더스 핑거’
	오리온	‘닥터유’, ‘마더스 핑거’, ‘마켓오’
	크라운제과	‘후레시 스토리’
	해태제과식품	‘뷰티 스타일’
	빙그레	‘뚜레도르’
상온식품	CJ 제일제당, 대상	쌀 원료 프리미엄 장류
라 면	농심	‘건면세대’, ‘후루룩 국수’, ‘동지 쌀국수’ 등 건면, 백색국물 라면
유제품	매일유업	고가 분유 브랜드 ‘궁’
커피음료	롯데칠성음료	프리미엄 원두커피 ‘칸타타’

자료: 한국신용평가, 「2012 Industry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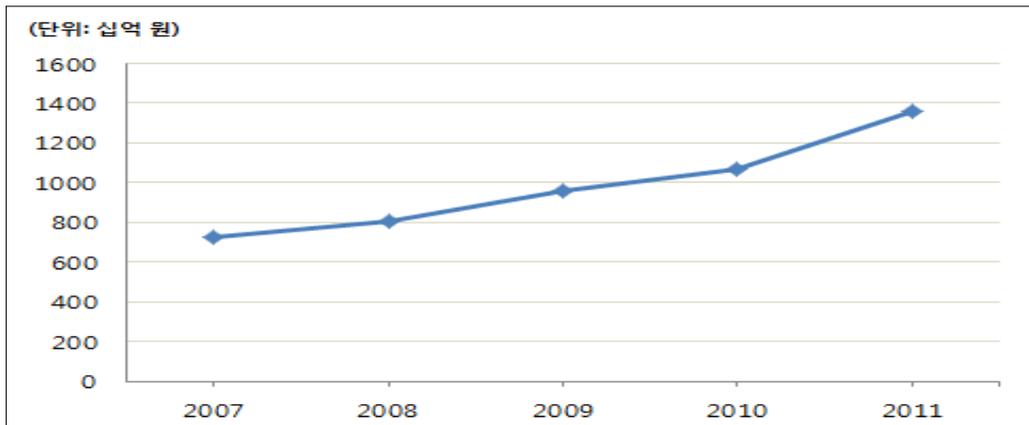
한편 커피와 커피크림의 수요 감소를 원두 중심의 커피음료와 고가의 티백 형태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커피음료의 프리미엄화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믹스에만 집중하던 동서식품이 에스프레소 추출액을 냉동 건조한 인스턴트 커피분말 95%와 분쇄한 원두커피 5%를 섞어 만든 프리미엄 분말커피 ‘카누’를 출시하였다. 또한 남양유업은 커피에서 중요한 것은 원두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크리머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지방 우유를 혼합한

프리미엄 커피믹스 ‘프레치카페 카페믹스’를 출시하였다. 한편 한국네슬레는 네스카페만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의 커피믹스를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크아웃 컵에 즐길 수 있고, 커피전문점에 견주는 고급스런 맛과 향을 제공하는 ‘네스카페 마이컵’을 출시하였다.

4.1.2. 건강 중시

2011년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1.4조 원으로 2010년 1조 원 대비 28.2%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삼제품이 7,190억 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비타민 및 무기질 1,561억 원, 개별인정형 1,434억 원, 알로에 691억 원, 오메가-3 지방산 함유 50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웰빙, 프리미엄 제품이 식품업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풀무원식품은 오메가-3를 함유한 생식용 두부 ‘내 몸을 맑게 한 모’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식용 두부로, 오메가-3를 약이나 캡슐로 섭취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출시되었다. 한국암웨이는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식물인 밀크시슬을 이용한 ‘뉴트리라이트 밀크씨슬 이엑스’를 출시하였고, CJ제일제당의 건강식품브랜드 CJ뉴트라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에버퀵’을 출시하였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설탕의 흡수를 줄여주는 ‘자일로스 설탕’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타가토스’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설탕 사용을 꺼리는 현대인들과 비만,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뚜기는 ‘네이처바이’ 브랜드를 통해 카레의 주원료인 커큐민, 토마토 껍질의 주성분인 리코펜 등 오뚜기의 주력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4.1.3. 간편성 제고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 제품이 개발 또는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워홈은 대구탕, 알탕, 동태탕 등 수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을 출시하였고, 이 제품은 간단하게 데우기만 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강점으로 탕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한국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떡과 사골로 우려낸 국물이 일품인 ‘사골 우린 쌀떡국’을 출시하였는데 이 제품은 사골분말과 야채플레이크, 김깨 수프가 함께 구성돼 집에서도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송식품은 최근 끓는 물을 붓고 2분이면 완성되는 ‘가정식 된장국’ 3종을 출시하였고, 삼풍비엔에프는 ‘누룽지 후레이크’를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전통 가마솥 방식으로 구수한 전통 누룽지 고유의 맛과 향을 살렸으며, 따듯한 물을 붓고 3분이면 완성된다. 대상 FNF 증가집은 ‘증가집 묵은지요리’ 3종을 출시하였고, 이 제품은 1년 이상 숙성한 증가집 묵은지요리를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냄비에 묵은지, 육수, 양념을 모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된다. 청정원은 최근 물과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3분 만에 조리가 가능한 ‘참쌀 인절미 믹스’ 3

종을 출시하였으며, 한식의 유일한 단점인 복잡한 조리과정을 최소화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4.2. 사업 트렌드

4.2.1. 식품기업과 산지 간 협업·제휴

최근 식품·유통기업과 산지 간 협업·제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협업·제휴 주체는 식품기업, 유통기업, 제약기업 등과 산지의 명인·전통업체, 농가나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협업·제휴를 통해 식품·유통 기업은 해당 기업만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안정적 원료조달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산지는 판로를 확보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기호는 다양성과 고품질을 추구하고 건강에 대해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식품·유통기업의 대응전략도 산지를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지는 전통적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한 상품이 인근 지역을 상권으로 제한적으로 판매하던 것을 식품유통기업의 마케팅 역할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제품개발의 분담이나 유통 상의 표준화를 통해 제품과 유통 상의 혁신을 가능케 하였다. 이 외에도 대외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관광에도 연계되어 농가와 지역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4-12. 식품·유통기업과 산지 간 협업·제휴 사례

품목	기업명	산지	협업·제휴 특징
쌀막걸리	CJ식품	창녕, 제천, 전주	온도관리기술로 품질표준화, 새지 않는 병마개 기술개발로 유통기한 연장
약주	국순당	고창, 정선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출자로 산지에 배당 소득
음료	광동제약	문경	오미자음료제품개발 및 안정적 원료공급
건강식품	장생도라지	진주	다년생도라지제품개발 및 계약재배
된장	대상식품	순창	기업이 원료생산자와 지역 업체와 연결
장아찌, 장류	신세계유통	순창, 담양	장류와 나물의 결합 상품개발, 장류 선물세트
조청	현대유통	울진	기업이 판매부대비용 부담
엽근채소, 나물	GS유통	양구	지정농장, 비빔밥 상품개발, 신선도 유지위한 저온물류체계 구축
천일염	사조해표	신안(태평염전)	천일염 및 가공제품 개발
우리밀	SPC그룹	군산	20여종의 빵류 제품 출시, 계약재배, 지역과 1사1촌 등 우리밀사랑 캠페인, 밀품종 개량 R&D
토마토	오뚜기	화천	스파게티소스 및 카레 상품화, 토마토 축제 지원
무화과	샘표식품	영암	식초 및 발효음료(흑초) 개발

자료: 이용선 외(2010), 한국식품연감(2011)

4.2.2. 컨버전스 마케팅: 식품과 IT 또는 문화사업간 결합¹⁶⁾

2010년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발달해 왔으며, 식품업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컨버전스 마케팅은 이종 사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으로 식품 업계에서 식품과 IT의 결합, 식품과 문화산업간의

16) CJ경영연구소의 「국내 식품시장 전망」을 참고하였다.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지에 QR코드를 도입해 제품의 설명과 광고 동영상, 이벤트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과 IT의 대표적인 컨버전스 마케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활동 뿐만 아니라 제품 정보와 요리법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도 또한 컨버전스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식품업계가 문화산업과 결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양조장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시음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김치에 대한 정보와 요리법을 제공하는 '김치 월드'를 세워 한식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로 된장의 재료와 제조과정, 맛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지원하면서 된장을 주제로 영화 시사회 파티를 여는 등 주요 고객층을 영화 고객층과 연계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4.2.3.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¹⁷⁾

성숙기에 이른 내수 산업으로서의 낮은 성장성, 대외변수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 이후 음식료 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증가 둔화, 소비 정체로 가격 인상에 의존한 성장이 지속되고, 유통업체의 교섭력 확대, 정부 규제 등 국내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주요 식품업체들은 안정성, 품질, 제품가격 등의 비교 우위를 앞세워 중국, 베트남, 인도 시장 등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다변화된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달원가와 물류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직접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제한적인 가공식품 시장이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 경기의 호조가 국내 음식료 업체의 해외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리온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해외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매

17) 한국신용평가의 「2012 Industry Outlook」을 참고하였다.

출 및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우수한 브랜드 구축, 유통망 확보, 현지화·차별화된 제품 보급 등을 통해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은 장기적으로 업체의 재무안정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해외 비중이 확대되는 업체의 투자·영업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표 4-13. 해외시장 진출 내역

구 분	지 역	품 목
오리온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일본	초코파이, 스낵, 껌, 비스킷, 브라우니
CJ 제일제당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라이신, 핵산, 가공식품
롯데제과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벨기에	껌, 초코파이, 초콜릿 등
KT&G	중동/중동아시아, 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담배, 홍삼
농심	중국, 미국, 일본	라면
대상	인도네시아	조미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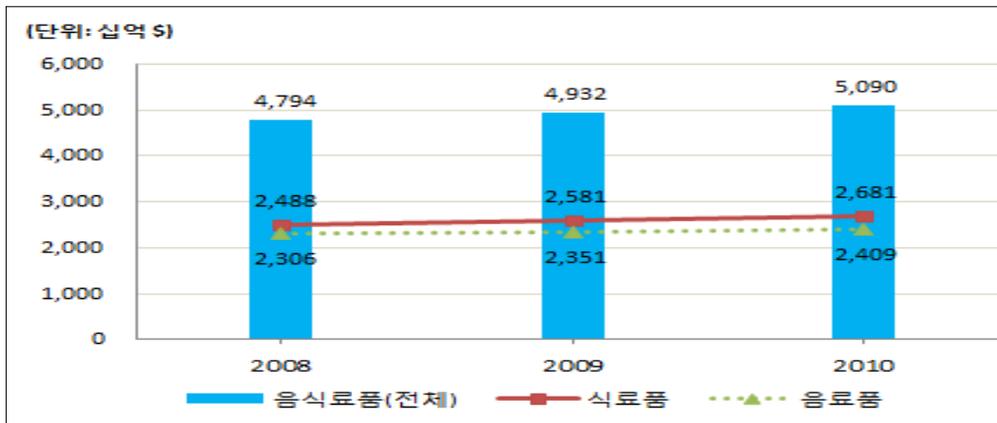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V | 세계 식품산업 동향

1. 식품시장 및 교역 규모

영국의 조사컨설팅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에 따르면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2008~10년간 연평균 3.1%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세계 식품¹⁸⁾시장의 규모는 5.0조 달러로 2009년 4.9조 달러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산업 중 식료품(가공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2.6조 달러였고, 2010년은 2009년보다 3.9% 증가한 2.7조 달러로 추정된다. 식품산업 중 음료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2.4조 달러였고, 2010년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2.4조 달러로 추정된다.

그림 5-1.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이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Datamonitor)

2010년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는 유럽이 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아시아-태평양 29.7%, 아메리카 26.5%, 중동·아프리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시장규모가

18)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합계.

증가하였으나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은 시장규모가 감소하였다. 2010년도 식료품시장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0조 달러로 전체 식료품시장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을 높고, 그 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5조 달러로 약 30%, 미주 지역이 1.3조 달러로 약 27%,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35억 달러로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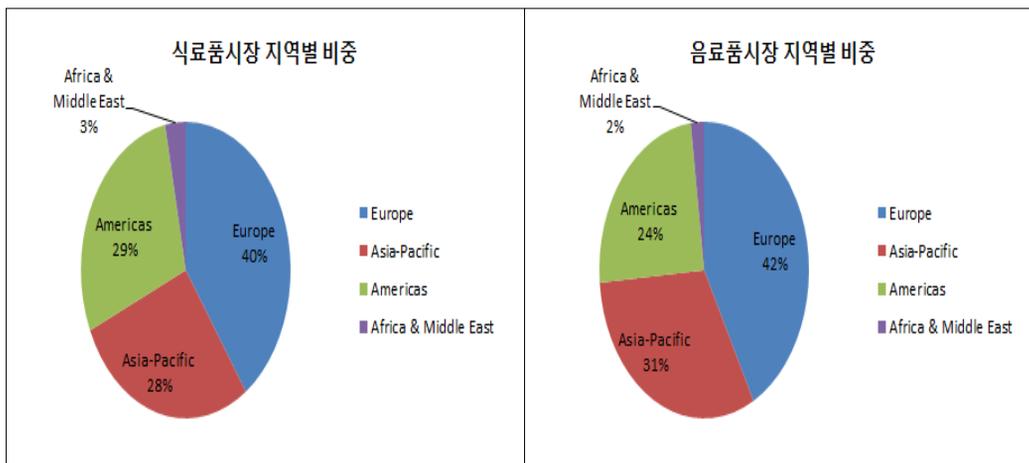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세 계	4,640 (100.0)	4,792 (100.0)	4,932 (100.0)	5,090 (100.0)
유 럽	1,987 (42.8)	2,027 (42.3)	2,058 (41.7)	2,096 (41.2)
아시아·태평양	1,288 (27.8)	1,361 (28.4)	1,430 (29.0)	1,510 (29.7)
미 주	1,246 (26.9)	1,281 (26.7)	1,315 (26.7)	1,349 (26.5)
아프리카·중동	118 (2.5)	123 (2.6)	129 (2.6)	135 (2.7)

주: 1) 2010년 데이터는 연간 추정치를 이용한 자료임.

2)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Datamonitor)

그림 5-2. 세계 식품시장 지역별 비중(2010)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Datamonitor)

음료품시장의 규모는 유럽이 1.0조 달러로 전체 음료품시장의 약 4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580억 달러로 약 31%, 아메리카 지역이 5,850억 달러로 약 24%,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500억 달러로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3.9% 증가한 2.7조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육·가금류, 어류, 가금류 제품이 5,275억 달러로 전체에서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냉장식품(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등)이 4,723억 달러로 17.6%, 축산 제품이 3,488억 달러로 1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즉석식품이 전년 대비 6.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가공식품 품목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표 5-2.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2008	2009	2010		증감률		
			판매액	비중	'09/'08	'10/'09	평균 증감률
육·가금류(Meat, fish & poultry)	489,177	507,958	527,577	19.7	3.8	3.9	3.9
냉장식품(Chilled food)	436,923	454,222	472,361	17.6	4.0	4.0	4.0
낙농품(Dairy food)	321,940	333,303	348,855	13.0	3.5	4.7	4.1
빵류(Bakery & Cereals)	322,210	332,831	343,638	12.8	3.3	3.2	3.3
냉동식품(Frozen food)	177,905	184,342	190,920	7.1	3.6	3.6	3.6
과자류(Confectionery)	141,188	145,708	149,255	5.6	3.2	2.4	2.8
조미료(Sauces, dressings & condiments)	92,554	95,907	99,287	3.7	3.6	3.5	3.6
건조식품(Dried food)	87,557	90,388	93,354	3.5	3.2	3.3	3.3
통조림(Canned food)	76,344	78,510	80,652	3.0	2.8	2.7	2.8
스낵(Savory snacks)	71,055	74,869	78,831	2.9	5.4	5.3	5.3
유지류(Oils & fats)	72,002	74,632	77,352	2.9	3.7	3.6	3.6
즉석식품(Ready meals)	62,754	67,232	71,349	2.7	7.1	6.1	6.6
아이스크림(Ice cream)	51,292	53,248	55,370	2.1	3.8	4.0	3.9
면류(Pasta & noodles)	41,577	43,416	45,282	1.7	4.4	4.3	4.4
스프레드(Spreads)	18,556	19,216	19,883	0.7	3.6	3.5	3.5
수프(Soup)	15,445	16,151	16,862	0.6	4.6	4.4	4.5
유아식(Baby food)	9,397	9,846	10,322	0.4	4.8	4.8	4.8
계	2,487,877	2,581,178	2,681,150	100.0	3.8	3.9	3.8

주: 육·가금류(Meat, fish & poultry)에는 냉장, 냉동제품 포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원자료는 Datamonitor)를 일부 보완

국가별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14.7%에 해당하는 3,932억 달러의 시장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11.3%), 일본(9.4%), 독일(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시장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세에 있다.

2010년 시장규모 상위 20개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약 2.2조 달러로 세계 시장규모의 8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8	2009	2010		증감률		
				시장규모	비중	'09/'08	'10/'09	평균 증감률
1	미국	368,774	381,067	393,167	14.7	3.3	3.2	3.3
2	중국	253,106	274,621	301,801	11.3	8.5	9.9	9.2
3	일본	241,118	246,892	253,027	9.4	2.4	2.5	2.4
4	독일	173,227	176,408	179,661	6.7	1.8	1.8	1.8
5	프랑스	135,209	137,756	140,375	5.2	1.9	1.9	1.9
6	브라질	122,460	127,461	132,610	4.9	4.1	4.0	4.1
7	이탈리아	119,111	122,474	125,884	4.7	2.8	2.8	2.8
8	영국	100,640	104,765	108,895	4.1	4.1	3.9	4.0
9	러시아	97,930	101,152	104,471	3.9	3.3	3.3	3.3
10	멕시코	87,376	90,428	93,362	3.5	3.5	3.2	3.4
11	스페인	77,590	80,010	82,413	3.1	3.1	3.0	3.1
12	캐나다	48,949	50,094	51,299	1.9	2.3	2.4	2.4
13	호주	33,455	34,621	35,832	1.3	3.5	3.5	3.5
14	네덜란드	34,019	34,763	35,524	1.3	2.2	2.2	2.2
15	한국	30,177	31,226	32,295	1.2	3.5	3.4	3.4
16	폴란드	27,401	28,187	28,982	1.1	2.9	2.8	2.8
17	터키	24,650	25,846	27,072	1.0	4.9	4.7	4.8
18	콜롬비아	22,951	23,791	24,658	0.9	3.7	3.6	3.7
19	벨기에	22,518	23,193	23,872	0.9	3.0	2.9	3.0
20	사우디아라비아	21,426	22,579	23,751	0.9	5.4	5.2	5.3
상위 20개국 계		2,042,086	2,117,386	2,198,952	82.0	3.7	3.9	3.8
합 계		2,487,877	2,581,178	2,681,150	100.0	3.8	3.9	3.8

주: 육·가금류(Meat, fish & poultry)에는 냉장, 냉동제품 포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원자료는 Datamonitor)

국가별 2009년 식품 교역액은 상위 5개국의 식품 교역액이 전체 식품 교역액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800.5억 달러의 식품 수입, 765.9억 달

러의 식품 수출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교역액 상위 5개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35.9억 달러의 식품 수입과 41.9억 달러의 식품 수출을 기록하여 식품 교역액을 기준으로 23위에 해당한다.

표 5-4.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2009)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국 가 명	식품 수입액	식품 수출액	식품 교역액
1	미국	80,046.4	76,587.0	156,633.4
2	독일	66,168.0	60,413.1	126,581.1
3	프랑스	46,597.0	56,601.1	103,198.1
4	네덜란드	31,161.0	49,940.3	81,101.3
5	영국	49,897.0	22,898.9	72,795.9
6	이태리	37,457.0	30,529.9	67,986.9
7	벨기에	29,742.0	34,206.7	63,948.7
8	스페인	23,968.0	28,101.6	52,069.6
9	중국	16,749.9	34,154.0	50,903.9
10	캐나다	23,881.6	26,464.0	50,345.6
11	브라질	6,068.0	38,904.0	44,972.0
12	일본	41,672.5	2,892.0	44,564.5
13	러시아	33,304.0	8,876.0	42,180.0
14	멕시코	13,811.7	14,666.0	28,477.7
15	태국	6,260.8	21,781.0	28,041.8
16	호주	8,317.1	19,065.0	27,382.1
17	덴마크	10,146.0	17,010.6	27,156.6
∴	∴	∴	∴	∴
23	한국	13,590.5	4,191.0	17,781.5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Datamonitor)

세계 주요 식품기업의 매출액은 스위스의 네슬레(Nestlé)가 1,120억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펩시콜라(PepsiCo)가 578억 달러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식품기업 중 KT&G가 유일하게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8개로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세계 주요 식품기업 순위(2010)

단위: 십억 달러

순 위	업체명	국 적	매출액
1	Nestle	Switzerland	112.0
2	PepsiCo	United States	57.8
3	Coca-Cola	United States	35.1
4	Anheuser-Busch	Belgium	36.8
5	Unilever	Netherlands	59.3
6	Kraft Foods	United States	49.2
7	Tesco	United Kingdom	79.6
8	Philip Morris International	United States	27.2
9	British Amer Tobacco	United Kingdom	23.2
10	McDonald's	United States	24.1
11	Archer Daniels	United States	68.6
12	Imperial Tobacco Group	United Kingdom	23.6
13	Altria Group	United States	16.9
14	Danone	France	22.8
15	Metro AG	Germany	90.2
16	Japan Tobacco	Japan	27.0
17	Wesfarmers	Australia	43.3
18	Carrefour Group	France	120.6
19	SABMiller	United Kingdom	14.2
20	Wilmar International	Singapore	30.4
∴	∴	∴	∴
93	KT&G	South Korea	3.0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Forbes)

2. 외식업 동향¹⁹⁾

세계 외식산업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Consumer Food Service Global Overview」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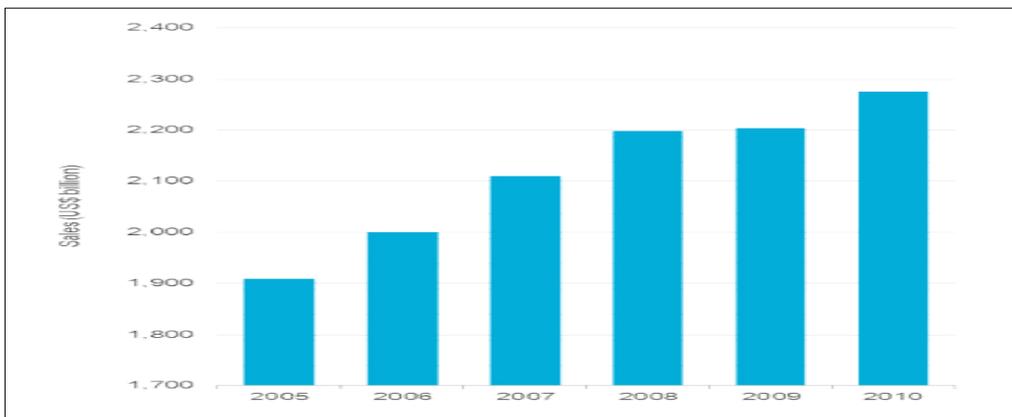
표 5-6. 세계 외식산업 동향

구분	내용
회복의 시작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으나 북미 및 서유럽의 성장세는 여전히 약하며 향후 수년간 이러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패스트푸드 중심의 성장	가치 중심의 사고가 강해짐에 따라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다양화 하거나 점포를 재설계하는 등 공격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
고객 유치	특히 저성장 중인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사 고객의 유치가 자사 매출액 증대에 중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한 고객 유치 전략이 중요
다양성이 중요	소비자의 가치와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 메뉴와 가격 측면의 다양화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신흥시장의 경우 소득 격차 따른 다양성을 요구
채널의 정의가 더욱 모호해짐	풀 서비스 사업자가 저가 정책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을 찾고 있음. 패스트 푸드 체인의 고객유치 노력은 풀 서비스와 여타 형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풀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여타 모든 형태의 식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풀 서비스 식당이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상	아시아는 세계 외식시장의 중심으로 성장. 10년 이내에 세계 외식시장의 상위 5개 중 4개가 아시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세계 외식산업은 2009년 성장률이 정체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가 회복됨에 따라 2010년 모든 지역에서 양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북미 및 서유럽에서는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3. 세계 외식산업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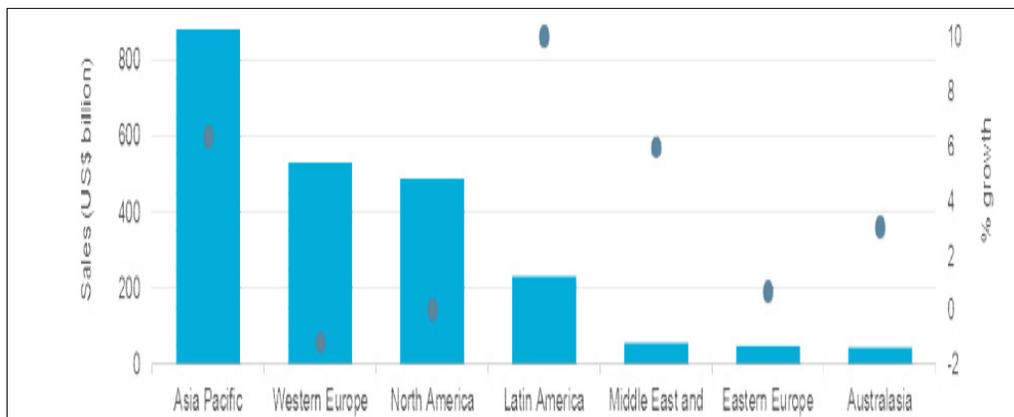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가치와 편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지속됨에 따라 패스트푸드와 길거리 음식(street stalls/kiosks)과 같은 퀵 서비스 형태(Quick-service categories)는 2009년의 강한 성장세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 정부지출 삭감 등 재정긴축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서유럽의 성장률 정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북미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0년 전 세계 총 외식산업에서의 약 40% 정도를 점유하였으며, 빠른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외식서비스 수요에서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미 충분히 큰 외식시장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2010년 성장률이 6%에 이르는 등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4. 지역별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 추이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반면 북미와 서유럽은 여전히 대규모 시장과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보이거나 시장이 성숙 포화 단계에 진입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자들이 점포수를 줄이고 점포당 매출이나 이용 빈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성장률이 지체되고 있다. 시장 크기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뒤져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을 추월했으며 그

뒤로 중동 및 아프리카가 순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더이상 성장률이라는 측면만이 아닌 절대적 시장크기라는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외식시장으로 확고한 자리 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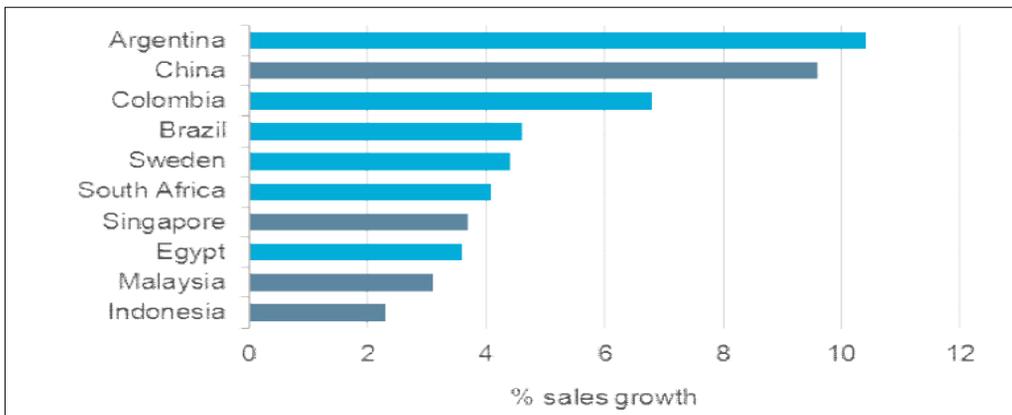
표 5-7. 국가별 외식산업 규모(상위 10개 국)

국 가	순위	2010년 매출액 (10억 US\$)
미국	1	436.9
중국	2	333.4
일본	3	240.5
브라질	4	128.2
스페인	5	110.5
이탈리아	6	101.8
인도	7	87.4
영국	8	83.4
프랑스	9	62.1
한국	10	58.9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0년 시장크기 기준으로 상위 10개 시장 중 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숫자 면에서 유럽과 동일하나 성장률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 5-5. 국가별 외식산업 성장률(상위 10개 국)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자주 언급되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식 중심의 사회생활이 중요해지면서 일본, 한국과 같이 고소득 시장에서의 점포 보급률과 1인당 소비수준을 고려할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비지출의 증가와 정부재정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현재 주요 성장 시장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주요 외식업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가 774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암브랜드 377억 달러, 버거킹 153억 달러, 스타벅스 14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주요 외식업체 매출액 및 점포수

Company	Sales (US\$ mn)	Outlets	Sales growth 2009/10 (%)	Outlet growth 2009/10 (%)
McDonald's Corp	77,380.0	36,318	4.6	2.5
Yum! Brands Inc	37,731.1	40,009	5.0	1.4
Burger King Holdings Inc	15,263.6	12,410	1.3	2.4
Starbucks Corp	14,928.5	17,520	7.3	1.5
Doctor's Associates Inc	14,727.7	34,552	7.9	6.6
Seven & I Holdings Co Ltd	13,730.2	39,929	3.8	8.8
Wendy's/Arby's Group	11,925.5	10,039	-2.8	-1.4
Dunkin' Brands Inc	7,433.3	17,040	3.4	6.9
Darden Restaurants Inc	7,241.5	1,865	5.0	4.1
DineEquity Inc	7,151.5	3,439	0.2	4.1
Domino's Pizza Inc	6,466.3	9,385	11.0	4.3
Tim Horton's Inc	5,601.9	3,684	5.9	2.4
Family Mart Co Ltd	4,423.7	15,710	1.7	7.4
OSI Restaurant Partners Inc	4,128.9	1,439	-0.7	-2.6
Brinker International Inc	3,908.3	1,489	-12.6	-9.2
Lawson Inc	3,606.1	10,283	0.4	13.6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2011.7

3. 주요 국별 식품산업 동향

3.1. 미국

3.1.1. 출하 동향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출하액은 2007년 12.0%에서 2010년 14.1%, 부가가치는 동기간 12.0%에서 13.5%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의 경우 2007년 8.4%에서 2009년 8.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2007년 11.6%에서 2010년 1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제조업이 고용측면에서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9.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7	12.0	12.0	11.6	8.4
2008	12.6	12.1	11.9	8.6
2009	15.1	14.5	13.4	8.8
2010	14.1	13.5	13.6	-

주: 사료 및 담배제조업 미포함.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10년도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5,996억 달러로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25.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낙농제품 제조업이 13.6%, 기타 식품 제조업이 12.1%, 곡물 및 유지작물이 12.0%,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0.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6,389	100.0	6,893	100.0	6,686	100.0	6,924	100.0
식료품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5,508	86.2	6,012	87.2	5,772	86.3	5,996	86.6
곡물 및 유지작물	695	10.9	940	13.6	862	12.9	830	12.0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272	4.3	266	3.9	275	4.1	290	4.2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610	9.5	632	9.2	648	9.7	643	9.3
낙농제품 제조업	917	14.4	981	14.2	845	12.6	941	13.6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1,601	25.1	1,699	24.7	1,631	24.4	1,756	25.4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110	1.7	102	1.5	105	1.6	107	1.5
빵류 제조업	555	8.7	587	8.5	589	8.8	589	8.5
기타 식품 제조업	748	11.7	804	11.7	816	12.2	840	12.1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880	13.8	881	12.8	914	13.7	929	13.4
청량음료 및 얼음 제조	472	7.4	481	7.0	448	6.7	451	6.5
맥주 제조업	212	3.3	196	2.8	241	3.6	257	3.7
와인 제조업	126	2.0	134	1.9	148	2.2	150	2.2
증류주 제조업	71	1.1	70	1.0	76	1.1	71	1.0

자료: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10년도 음료품 출하액은 929억 달러로 음식료품제조업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청량음료 및 얼음 제조업이 6.5%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맥주 제조업 3.7%, 와인 제조업 2.2%, 증류주 제조업 1.0% 순으로 나타났다.

3.1.2. 소비 동향

2010년도 미국가계의 연간소비지출은 4.8만 달러이며 연평균 1.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는 13.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5,530달러에서 2008년 6,887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0년에는 6,541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1. 미국 전가구 식품소비지출 및 엔겔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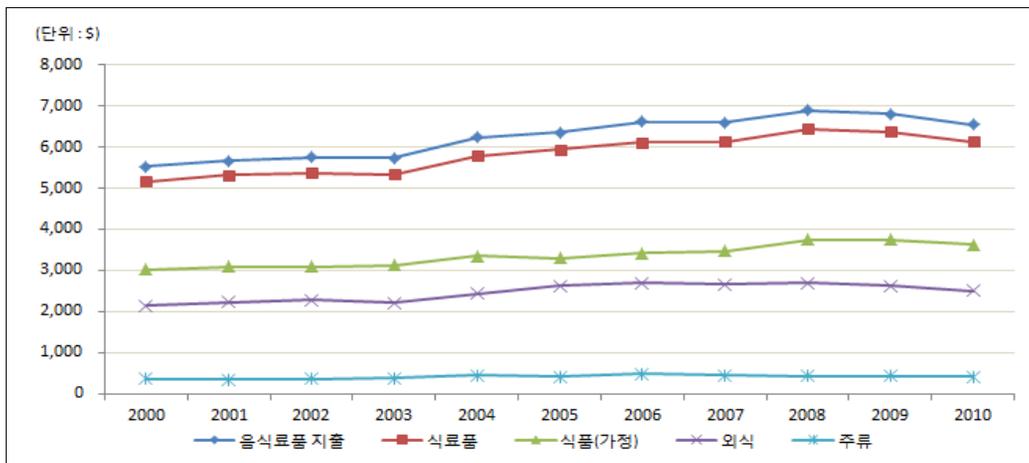
단위: 달러, %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소비지출(A)	38,045	46,409	50,486	49,067	48,109
음식료품비(B)	5,530 (100.0)	6,357 (100.0)	6,887 (100.0)	6,807 (100.0)	6,541 (100.0)
식료품(C)	3,021 (54.6)	3,297 (51.9)	3,745 (54.4)	3,753 (55.1)	3,624 (55.4)
주류	372 (6.7)	426 (6.7)	444 (6.4)	435 (6.4)	412 (6.3)
외식	2,137 (38.6)	2,634 (41.4)	2,698 (38.5)	2,619 (38.5)	2,505 (38.3)
음식료품비 비중(B/A)	14.5	13.7	13.6	13.9	13.6
엔겔계수(C/A)	7.9	7.1	7.4	7.6	7.5

자료: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식품 부문별 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2000년 3,021달러에서 2010년에는 3,624달러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에서 5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미국의 식품소비지출 추이



자료: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반면 외식은 2000년 2,137달러에서 2005년 2,434달러, 2010년 2,505달러로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식품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8.6%에서 2005년 41.4%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38.3%로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2000년 7.9%에서 2010년 7.5%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본

3.2.1. 출하 동향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종사자수의 경우 2007년 14.3%에서 2010년에는 15.8%, 사업체수도 2007년 14.0%에서 2010년 15.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측면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액의 비중은 2007년 9.0%에서 2010년 10.5%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의 경우도 2007년 10.1%에서 2010년 12.1%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2.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7	9.0	10.1	14.3	14.0
2008	9.3	10.7	14.7	14.1
2009	11.5	13.6	15.7	14.8
2010	10.5	12.1	15.8	15.1

주: 사료 및 담배제조업 미포함.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10년도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24조 엔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

하는 기타 식료품제조업이 20.0%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축산식료품제조업이 17.2%, 빵·과자 제조업이 15.1%, 수산식품 제조업이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도 음료품 출하액은 6조 엔으로 식품제조업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주류 제조업이 11.5%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청량음료제조업 7.4%, 차·커피 제조업 1.7%, 제빙업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3.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단위: 조 엔,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30.47	100.0	31.14	100.0	30.91	100.0	30.46	100.0
식료품제조업	24.20	79.4	24.94	80.1	24.45	79.1	24.11	79.2
축산식료품제조업	5.05	16.6	5.27	16.9	5.23	16.9	5.25	17.2
수산식품 제조업	3.41	11.2	3.40	10.9	3.22	10.4	3.12	10.3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 식료품제조업	0.83	2.7	0.80	2.6	0.79	2.5	0.77	2.5
조미료 제조업	1.93	6.3	1.93	6.2	1.85	6.0	1.83	6.0
당류 제조업	0.48	1.6	0.48	1.5	0.55	1.8	0.47	1.6
정곡·제분업	1.26	4.1	1.41	4.5	1.35	4.4	1.23	4.0
빵·과자 제조업	4.43	14.5	4.56	14.6	4.56	14.8	4.59	15.1
동식물성유지 제조업	0.88	2.9	1.04	3.3	0.86	2.8	0.76	2.5
기타식료품제조업	5.93	19.5	6.06	19.5	6.04	19.5	6.10	20.0
음료제조업	6.28	20.6	6.20	19.9	6.46	20.9	6.34	20.8
청량음료제조업	1.99	6.5	2.00	6.4	2.21	7.2	2.26	7.4
주류 제조업	3.69	12.1	3.59	11.5	3.65	11.8	3.52	11.5
차·커피 제조업	0.56	1.8	0.58	1.9	0.56	1.8	0.53	1.7
제빙업	0.03	0.1	0.03	0.1	0.03	0.1	0.03	0.1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3.2.2. 소비 동향

2010년도 일본 전가구의 연평균 월별소비지출은 29만 엔이며 2000~10년간 연평균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에서 식품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약 8만 엔에서 2010년 6.8만 엔으로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살펴보면 2000년 18.3%에서 2010년 18.2%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일본 전가구 월평균 식품소비지출

단위: 엔, %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소비지출(A)	317,328	300,531	296,932	291,737	290,244
음식료품비(B)	73,954 (100.0)	68,699 (100.0)	69,001 (100.0)	68,322 (100.0)	67,563 (100.0)
식료품(C)	57,924 (78.3)	53,858 (78.4)	53,918 (78.1)	53,574 (78.4)	52,952 (78.4)
주류	3,660 (4.9)	3,343 (4.9)	3,367 (4.9)	3,250 (4.8)	3,201 (4.7)
외식	12,370 (16.7)	11,498 (16.7)	11,716 (17.0)	11,498 (16.8)	11,410 (16.9)
음식료품비 비중(B/A)	23.3	22.9	23.2	23.4	23.3
엔겔계수(C/A)	18.3	17.9	18.2	18.4	18.2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2000~10년 기간 동안 부문별 식품소비지출 구성비 추이를 보면 식료품은 약 78%이며 외식 약 17%, 주류 약 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의 경우 2000년 5.8만 엔에서 2010년 5.3만 엔으로, 주류는 2000년 3,660엔에서 2010년 3,201엔으로 각각 연평균 0.9%, 1.3% 감소하였다. 또한 외식은 2000년 12,370엔에서 2005년 11,498엔, 2010년 11,410엔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전가구의 음식료품비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보면 어개류가 2000년 8,659엔에서 2010년 6,398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0%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일본 전가구 월평균 식품 부류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엔, %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00-10)
곡류	7,280	6,454	6,582	6,631	6,373	-1.3
어개류	8,659	7,240	6,891	6,678	6,398	-3.0
육류	6,525	6,074	6,511	6,343	6,136	-0.6
유제품	3,753	3,410	3,244	3,268	3,258	-1.4
야채·해조류	9,013	8,340	8,264	8,145	8,252	-0.9
과일	3,067	2,733	2,624	2,564	2,531	-1.9
유지류 및 조미료	3,213	3,065	3,232	3,270	3,204	0.0
과자류	4,885	4,740	5,027	5,128	5,059	0.4
조리식품	8,000	8,128	7,926	7,907	8,011	0.0
음료	3,530	3,674	3,615	3,638	3,732	0.6
주류	3,660	3,343	3,367	3,250	3,201	-1.3
외식	12,370	11,498	11,716	11,498	11,410	-0.8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그 다음으로 과일 1.9%, 유제품 1.4%, 곡류 1.3%, 주류 1.3%, 야채·해조류 0.9%, 외식 0.8%, 육류 0.6%씩 감소하였으며, 과자류와 음료 지출비가 조금 증가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식품소비 지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3. 유럽연합(EU27)

3.3.1. 출하 동향

유럽연합(EU) 국가의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모든 면에서 2004년 이후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또한 2000년 대비 2007년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를 제외한 고용, 출하, 부가가치 측면에서 식품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수의 경우 2000년 13.5%에서 2007년에 13.1%로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종사자수의 경우 2000년 12.0%에서 2007년 13.1%로, 출하액의 경우 2000년 11.8%

에서 2007년 12.0%로, 부가가치의 경우 2000년 10.0%에서 2007년 10.5%로 증가하였다.

표 5-16. EU의 식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00	2004	2005	2006	2007
사업체수	13.5	13.2	13.1	13.1	13.1
종사자수	12.0	13.1	13.2	13.1	13.1
출하액	11.8	13.1	12.7	12.2	12.0
부가가치	10.0	11.3	11.1	10.7	10.5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Eurostat)

2007년도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7,285억 유로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빵류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료품제조업이 28.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EU의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추이

단위: 억 유로,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음식료품제조업	7,981 (100.0)	7,983 (100.0)	8,209 (100.0)	8,685 (100.0)
식료품제조업	6,681 (83.7)	6,692 (83.8)	6,879 (83.8)	7,285 (83.9)
육류 및 육제품 생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825 (22.9)	1,756 (22.0)	1,847 (22.5)	1,900 (21.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96 (2.5)	210 (2.6)	228 (2.8)	232 (2.7)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03 (6.3)	522 (6.5)	529 (6.4)	581 (6.7)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374 (4.7)	388 (4.9)	410 (5.0)	424 (4.9)
낙농제품 제조업	1,200 (15.0)	1,200 (15.0)	1,200 (14.6)	1,300 (15.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354 (4.4)	317 (4.0)	335 (4.1)	385 (4.4)
기타 식품 제조업	2,228 (27.9)	2,300 (28.8)	2,330 (28.4)	2,464 (28.4)
음료제조업	1,300 (16.3)	1,291 (16.2)	1,330 (16.2)	1,400 (16.1)

주: ()은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Eurostat)

그 다음으로 육류 및 육제품 생산, 가공, 저장 처리업이 21.9%, 낙농제품 제조업이 15.0%,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도 음료품 출하액은 1,400억 유로로 음식료품제조업의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맥주 제조업이 5.0%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청량음료 및 생수 제조업 4.8%, 와인 제조업 2.7%, 증류주 제조업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국가의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008~10년간 연평균 1.7% 증가하여 2010년 시장규모는 2조 달러로 나타났다. EU국가 중 독일이 3,800억 달러로 EU 국가의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12.0%), 이탈리아(11.0%), 영국(10.8%), 러시아(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EU국가 중 상위 8개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1.6조 달러로 EU국가 시장규모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EU 주요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증감률		
			시장규모	비중	'09/'08	'10/'09	평균 증감률
유 럽	2,027	2,058	2,096	100.0	1.5	1.9	1.7
독 일	372	375	380	18.1	0.9	1.4	1.2
프랑스	245	247	251	12.0	1.1	1.4	1.2
이탈리아	223	226	230	11.0	1.4	1.6	1.5
영국	216	221	227	10.8	2.4	2.7	2.5
러시아	177	179	182	8.7	1.3	1.6	1.4
스페인	162	165	168	8.0	1.9	2.1	2.0
네덜란드	59	60	61	2.9	1.5	1.5	1.5
폴란드	54	55	57	2.7	2.4	2.9	2.6
상위 8개국 계	1,507	1,528	1,555	74.2	1.4	1.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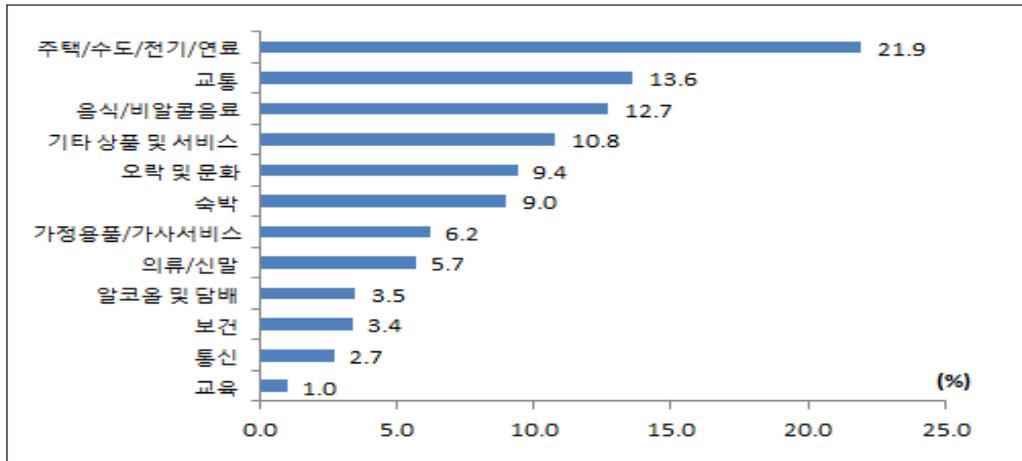
자료: FIS 식품산업통계정보(원자료는 Datamonitor)

3.3.2. 소비 동향

2006년도 EU국가의 연간소비지출 중 주택, 수도, 전기, 연료가 전체 지출의

21.9%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 13.6%, 음식료품비가 12.7%,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10.8%, 오락 및 문화비가 9.4%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EU 가계소비지출 현황(2006)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10년간 EU 주요 국가의 엔겔계수를 살펴보면 소폭의 변동이 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10년간 EU 27개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국가들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으로 나타난 반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EU 주요 국가별 식품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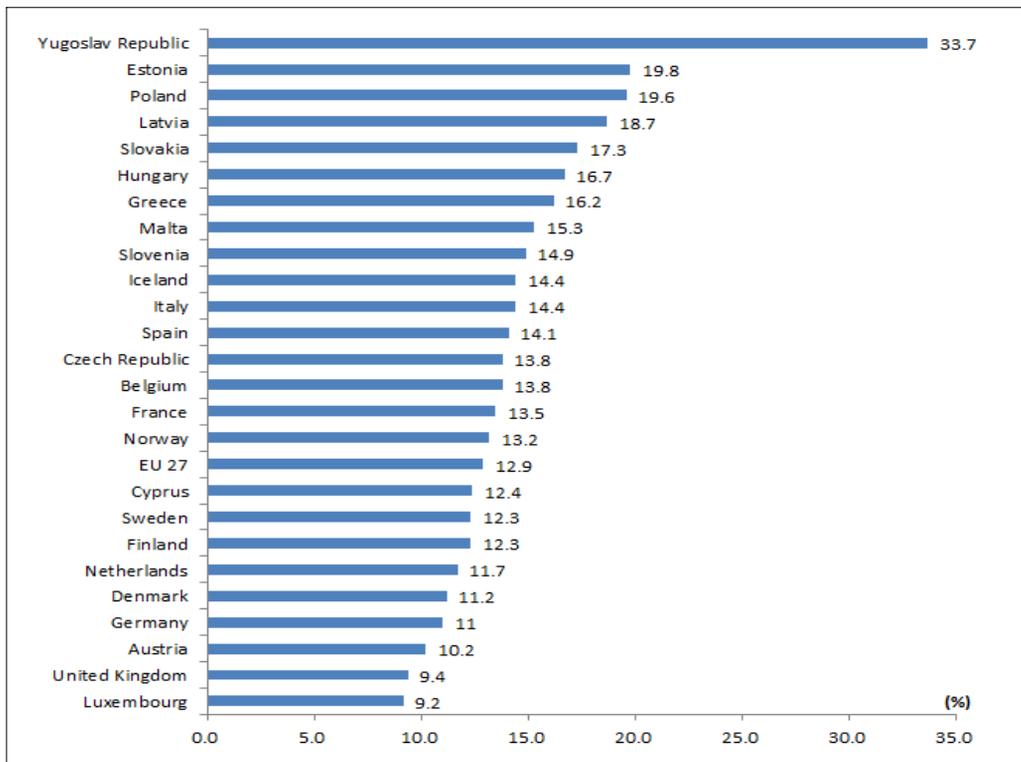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U (27 countries)	12.7	12.5	12.5	12.9	13.1	12.9
Germany	11.0	10.9	11.0	11.3	11.1	11.0
Spain	13.8	13.6	13.4	13.7	13.9	14.1
France	13.6	13.3	13.1	13.4	13.5	13.5
Italy	14.8	14.7	14.7	14.6	14.7	14.4
Netherlands	10.6	10.9	10.9	11.3	11.8	11.7
Poland	21.1	20.9	20.6	20.2	20.1	19.6
United Kingdom	9.0	8.9	8.9	9.2	9.6	9.4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10년도 EU국가의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앵겔계수는 12.9%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EU 27개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국가들을 보면 영국 9.4%, 오스트리아 10.2%, 독일 11.0%, 덴마크 11.2%, 네덜란드 11.7%, 핀란드 12.3%, 스웨덴 12.3%, 키프로스 12.4%로 나타났다.

그림 5-8. EU 국가별 가계 식품소비지출 비중(2010)



주: 1) 가계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대한 지출 비중, 즉 앵겔계수를 나타냄.
 2) 그리스는 잠정치임.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4. 식품산업 트렌드

4.1. 제품 트렌드

네덜란드 소재 푸드밸리(Food Valley)의 식품연구소에서 2012년 식품 트렌드로 다음의 10가지를 발표하였다. 즉 합성첨가물 무첨가 천연제품, 지속가능성, 원산지 정보, 프리미엄 제품, 노화방지 제품, 기능성 제품, 식품안전성 강화, 틈새시장, 단백질 식품 등이 그것이다²⁰⁾.

첫 번째, ‘Purity(순도)’가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제품에 ‘Pure’ 또는 ‘Purity’의 용어가 이용되고 있고, 2008~11년에 출시된 신제품들에서는 ‘Pure’가 사용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식품첨가물명을 E-number로 구분하고 있는데, ‘Pure(제품의 순도)’ 트렌드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No E-number(식품첨가물 미포함)’를 내세운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첨가물명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합성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전략이 점차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산업에서는 제품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친환경 포장, 더 개선된 사육 환경, 공정무역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르게 생산된 제품을 제 값을 주고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맞물려 이른바 ‘착한 제품’들의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이제 제품의 원료뿐만 아니라 포장지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²¹⁾.

세 번째,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표기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제품에는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표시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국의 생산자를 돕거나

20) 이하 설명은 이노바마켓인사이드를 통해 2011년 11월에 발표한 「Top 10 Food Trends for 2012」와 서울푸드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21) 예를 들어 2011년 Friesland Campina의 경우 브랜드 제품 포장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진 임지의 목재로 생산된 포장지에만 부여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았다.

ethnic food(각 나라의 전통식품)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 수입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우려, 정통성에 대한 요구 등으로 나타나는데, 특정 국가나 지역의 원산지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많은 정보를 포장지에 담을 수 없어 포장면의 QR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 2011년 중반부터 다시 시작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저렴하거나 슈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된 소비패턴 속에서 중간 브랜드 제품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리미엄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에 고급 원료를 사용했음을 부각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전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기업들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용기 포장 기능과 건강 증진 영양 보조 부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EU 표시기준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읽을 수 있도록 영양정보표시에 명확한 가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령인구도 영양 정보 표시를 읽을 수 있게 크고 선명하게 표기하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의학발달과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식품산업에서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화방지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40~60세 소비자들의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에 맞춰 이와 관련된 영양성분 섭취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²²⁾.

일곱 번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강조표시를 사용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점차 기능성 강조 표시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규제로 인해 건강기능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련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³⁾. 따라서 추후 신제품 개발에는 식품 영양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 예를 들어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치매의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데 비타민 B6, B12 및 엽산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코엔자임 Q10과 은행잎 추출물, 폴리페놀, 카르니틴, 녹차, DHA 등이 영양성분이 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23) 한 예로, 2010년 말에 비타민C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승인 이후 해당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의 출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여덟 번째,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규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프랑스 및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비만과의 전쟁을 위해 비만을 유발시키는 고칼로리 및 당 첨가 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업계 및 일부 소비자들의 반대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 지방과 첨가당, 나트륨의 함량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식품회사들이 제조방안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홉 번째, 식품산업에서도 소셜마케팅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틈새시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는 혁신적 소규모들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를 활용해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국적 기업 등의 대기업들은 해당 커뮤니티 및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에 맞춤형된 제품들을 시도하고 있다²⁴⁾.

열 번째, 2002~03년 황제다이어트를 시작으로 소득증가와 영양적인 중요성에 따라 단백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의 트렌드로 동물의 복지를 중요시한 육가공 제품부터, 대두와 완두, 밀 등의 식물성 원료들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제품은 후무스(hummus), 그리스식 요구르트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상품화 되었는데, 이는 동물성 육제품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고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2. 사업 트렌드

4.2.1. 아시아의 식품산업 트렌드

아시아지역은 식품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식품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세계 식품산업의

24) 예를 들어 네슬레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고급 초콜릿 브랜드제품을 출시하여 개인의 초콜릿 취향에 맞는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데, 처음 네슬레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5가지 시식용 초콜릿을 받게 되고,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원하는 초콜릿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트렌드를 조망하기 위해 중요하다. 식품산업 트렌드는 소비자 트렌드, 식품시장의 경쟁 및 규제 동향, 식품공학의 발전, 식품 유통 및 포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²⁵⁾.

첫째,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이 성장하는 것은 미래의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는 아시아 시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동아시아의 노령화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보다 신체에 유익한 식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기능성식품, 약효식품(nutraceuticals) 시장을 이끌어갈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외식산업이 팽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그러하고 최근 중국의 외식산업의 비중은 일본의 10~20년 전 수준에 해당하지만, 향후 일본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둘째,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경쟁 및 규제 동향이다. 아시아의 기업들은 농산물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농장 개척에 투자하고 있다. 아시아의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더 많은 식품표시제(labeling)를 요구할 것이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중국산 식품에 대한 검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생명과학을 중국이 주도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기술의 발달은 기후 변화와 자원의 한계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기계화에서 나노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기술로 동아시아의 식품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GM(유전자변형)식품은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용될 것이지만, 'non-GM(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한 제품들 역시 동아시아의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넷째, 농식품의 유통 및 포장의 개선이다. 가공식품과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포장 산업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농작물들은 여전히 대용량 방식으로 유통될 것이다. 향후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

25) 이하 내용의 원자료는 미국 곡물위원회에서 발간한 「FOOD 2040」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농업(제 139호)」을 참고하였다.

대되며, 이로 인해 식품수송을 위한 보다 확대되고 개선된 기반시설 구축과 추적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산물 남획으로 인해 수산물의 어획이 감소할 것이고, 환경적인 제약, 특히 물과 땅의 부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4.2.2. 글로벌 식품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이들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미 20여년 전에 중국에 진출했던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슬레는 태국에 우유와 커피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장 중이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투자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오리온, 롯데제과, 농심, CJ제일제당 등 식품기업들도 중국, 베트남, 중동, 러시아 등의 국가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²⁶⁾.

26) CJ경영연구소의 「국내 식품시장 전망」을 참고하였다.

VI | 2012~13년 식품제조업 전망

1. 환경변화와 외생변수 가정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식품제조업에 국한된 부분균형모형으로서 국제 시장 및 식품제조업 이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인구, 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가처분소득, 이자율, 국제 유가,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 농산물 가격 및 국제원자재가격 전망치는 가정의 일관성을 위해 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총량모형인 KASMO로부터 도입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²⁷⁾.

표 6-1. KASMO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구 분	'08~'10 평균	2011	전 망		변화율(%)		
			2012	2013	'11/'12	'12/'13	'11~'13
인구(천명)	49,180	49,779	50,004	50,220	0.5	0.4	0.4
GDP 성장률(%)	3.0	3.6	3.5	4.2	-0.1%p	0.7%p	0.3%p
GDP 디플레이터 (2005년=100)	108.6	114.4	116.4	122.0	1.7	4.8	3.3
국제원유가격 (미달러/배럴) ¹⁾	77.7	104.2	104.6	112.9	0.4	7.9	4.2
밀(미달러/톤) ²⁾	263	285	259	270	-9.1	4.2	-2.4
옥수수(미달러/톤) ³⁾	191	246	248	258	0.8	4.0	2.4
대두(미달러/톤) ⁴⁾	466	552	554	565	0.4	2.0	1.2

주: 1) 세계 평균 현물가격, FOB

2) U.S. FOB GULF

3) FOB GULF

4) FOB Decatur 48%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FARRI, EIA, Global Insight

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는 품목별 또는 부류별 수급, 농업부문 거시지표의 중장기적 전망, 정책효과 분석 등에 이용되며, 국내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으로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된다.

KASMO에서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 추계인구를 이용하였고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이용하였고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9%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GDP 디플레이터는 단기적으로는 Global Insight의 Economic Outlook을 이용하였고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는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제농산물 중 밀, 대두(박), 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가격전망치는 미국의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전망자료를 이용하였고, 전망기간 동안 각각 -2.4%, 2.4%, 1.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식품제조업부문 전망

기본모형은 김명환 외(2009)의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FISMO; 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을 사용하였고, 시범관측대상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 추정된 계수를 활용하였다.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추정계수를 연간 전망에 활용하였다.

FISMO는 거시경제변수부문, 식품제조업부문, 식품제조업 총량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GDP, 가처분소득, 이자율, 국제유가, 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부문은 외생적으로 KASMO로부터 도입하여 생산자가격지수(총지수, 상품지수, 서비스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임금 등을 전망한다.

식품제조업부문은 개별품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생산함수, 재고함수, 수요(중간수요, 최종수요)함수, 수입함수, 수출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한다.

품목별 수급은 총공급(생산, 이월재고, 수입)과 총수요(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출, 기말재고)에 의해 결정되고, 총공급과 총수요의 차이가 시장수급 조정요인으로써 가격과 수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장균형에서는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되며,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정의된

다. 또한 생산자가격은 연결방정식에 의해 소비자가격으로부터 전환된다. 모형의 구조는 크게 공급부문, 수요부문, 시장규형, 가격연결부문으로 구분된다.

총공급 중 생산함수는 전기 가격, 생산비용, 시장집중도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생산비용은 중간재가격, 대체재 생산자가격, 임금, 이자율의 투입비중을 이용하여 가중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수입함수는 수입가격(원화 환산)과 국내가격 또는 상대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관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재고함수는 가격과 총공급량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총수요는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출로 구성된다. 중간수요함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격, 그리고 주요 중간소비처인 외식업(음식점 및 주점업, 서비스업)의 생산자 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최종수요함수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민간수요로서, 소비자가격과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설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가격으로 대체하였다. 수출함수는 수출가격과 환율의 함수로 설정하였고, 수출가격은 연결방정식에 의해 생산자가격으로부터 도출된다.

총공급(생산량+수입량+전기재고량)과 총수요(소비량+수출량+재고량)의 차이가 시장수급 조정요인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은 다시 수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되는 시점에서 시장균형가격이 도출된다.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정의하였고,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연결방정식에 의해 생산자가격이 도출된다.

총량부문은 수급모형에서 도출된 생산량과 가격을 이용해 산출액, 중간투입비, 부가가치를 산출하도록 설정된다. 산출액은 생산량과 생산자가격의 변동률을, 중간투입비는 생산량과 중간투입재가격의 변동률을 적용해 도출하였다. 이 때 중간투입재의 가격 변동률은 산업연관표로부터 구한 투입비율을 가중평균한 값을 이용하였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투입비를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CURQ_i = \sum_{i=1}^n PP_i Q_i, PQ = PP_i \times Q, i = 1, \dots, n$$

$CURQ_i$: 산출액, PP_i : 생산자가격지수, Q_i :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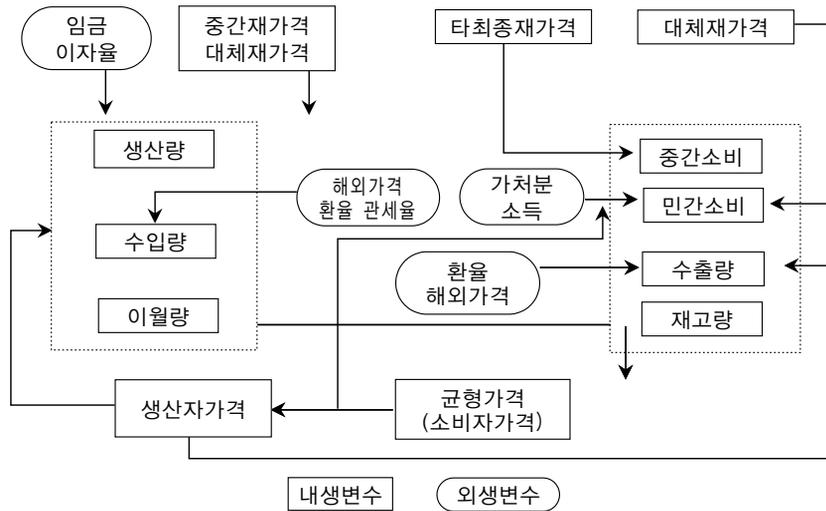
$$CUIST_i = f(CUIST_i(-1), Q_i, \sum_{h=1}^n a_{hi} PP_h), \quad h \neq i = 1, \dots, n \text{ 분기모형}$$

$CUIST_i$: 중간투입비, a_{hi} : (평균)투입계수, PP_h : 중간재가격

$$CUADD_i = CURQ_i - CUIST_i, \quad i = 1, \dots, n$$

$CUADD_i$: 부가가치

그림 6-1. FISMO 모형구조



자료: 김명환 외(2009),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 FISMO 개발」, KREI

2.1. 출하액 전망

2011년 식품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60조 4,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식료품 출하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52.1조 원으로 추정되고, 2011년 음료품 출하액은 8.4조 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식품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63.2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 때 식료품과 음료품 출하액은 전년대비 각각 4.6%와 3.4% 증가한 54.5조 원과 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년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2012년보다 4.2% 증가한 65.8조 원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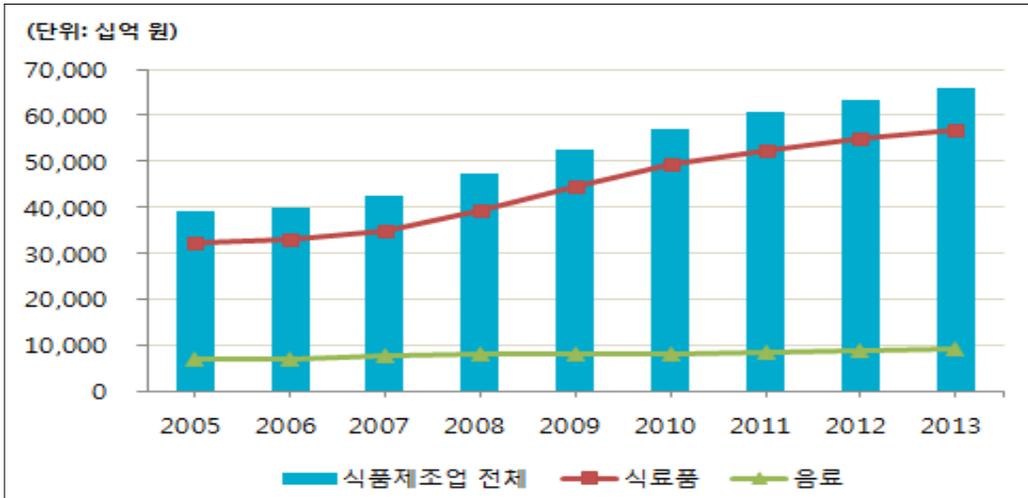
표 6-2. 식품제조업 산출액 전망

단위: 십억 원(경상), %

구 분	2010	2011 (추정)	2012 (전망)	2013 (전망)	증감률		
					'11/'10	'12/'11	'13/'12
식료품	49,270	52,118	54,515	56,653	5.8	4.6	3.9
음료품	7,850	8,362	8,644	9,140	6.5	3.4	5.8
식품제조업 전체	57,120	60,480	63,158	65,793	5.9	4.4	4.2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과 담배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SMO(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

그림 6-2. 식품제조업 산출액 추이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과 담배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SMO(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

2.2. 부가가치 전망

2011년 식품제조업 전체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22.4조 원으로 추정된다. 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6.9조 원으로 추정되고, 2011년 음료품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식품제조업 전체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22.9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 때 식료품과 음료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각각 2.5%와 1.5% 증가한 17.7조 원과 4.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년간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2012년보다 2.7% 증가한 23.5조 원으로 전망된다.

표 6-3.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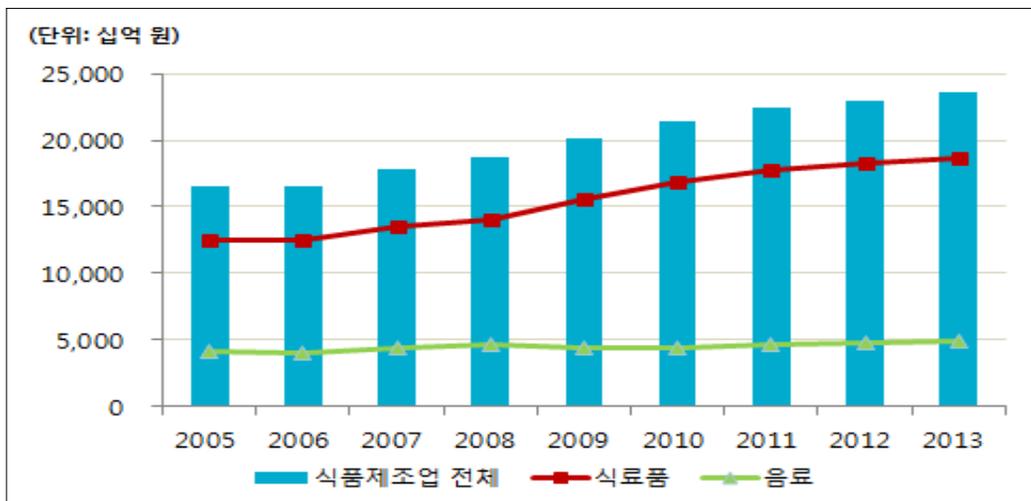
단위: 십억 원(경상), %

구 분	2010 (추정)	2011 (추정)	2012 (전망)	2013 (전망)	증감률		
					'11/'10	'12/'11	'13/'12
식료품	16,919	17,706	18,139	18,586	4.7	2.5	2.5
음료품	4,461	4,693	4,765	4,946	5.2	1.5	3.8
식품제조업 전체	21,379	22,399	22,904	23,532	4.8	2.3	2.7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과 담배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SMO(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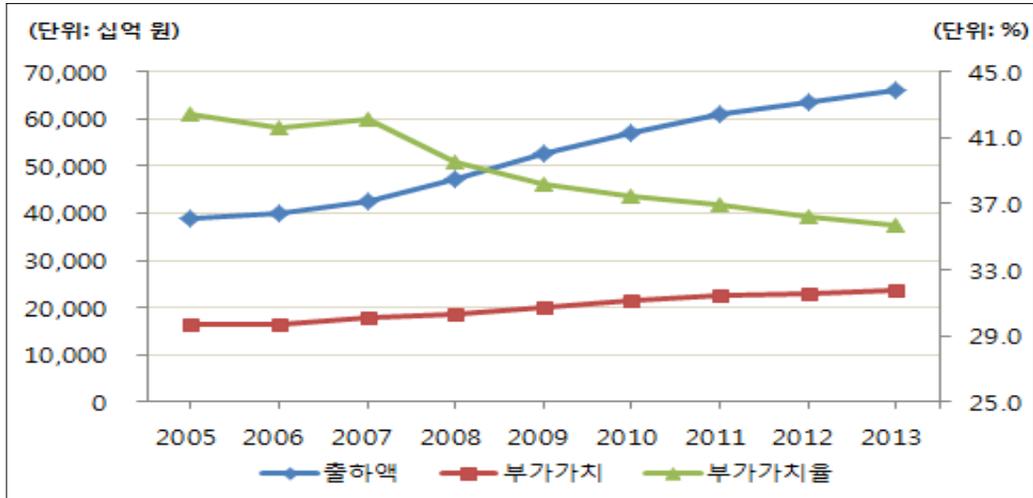
그림 6-3.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과 담배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SMO(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

그림 6-4. 식품제조업 생산액,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율 전망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이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과 담배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SMO(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

2.3. 세부업종별 전망

향후 3~5년간 중기적으로 볼 때 식품산업은 성장이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종 또는 제품유형별 성장세는 최근 추세처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내수의 경우, 과거의 가격합리성과 편리성 위주에서 건강과 품질을 중시하며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의 인구사회 구조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년 기타식품제조업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예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 커피, 초코파이 등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선호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향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선진국과 같이 보다 건강지향적이고 품질과 다양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이 경제성장지역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막걸리, 인삼제품, 두유, 커피음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지현외(2010, 2011)²⁸⁾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육가공업은 베이컨이 뚜렷이 증가하고 양념육과 프레스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가공품이나 김치제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화학첨가물 무첨가제품, 유기(친환경)원료사용제품, 저염제품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채소가공품인 김치의 경우, 향후 1~2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편리성 추구 등으로 시판김치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계층에 따라 어린이용, 노약자용, 여성용, 조리용, 간편식용 등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급식용 국산 김치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의 확대와 한식세계화 추진에 따라 해외 김치시장도 확대될 것이지만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제고되면서 국내 업무용 김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가공품은 밀가루가공품의 대체식품으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쌀국수, 쌀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류는 냉장 장류와 혼합장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인삼·약초 식품에 대한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홍삼제품과 천연물의약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료시장은 차음료와 생수, 기능성음료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즙음료로 냉장유통주스와 생과채를 착즙한 생과즙 주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에 의한 성장이 향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출 증대를 산업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 증대가 내수와 병행하거나 내수를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막걸리가 일본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도 함께 활성화된 경험은 소득 수준의 접근과 식문화의 전파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병행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주요 국가의 FTA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수출을 식품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식품클러스터사업, 농공상융합(협력지원)사업, 식품R&D대책 등의 정부 정책은 중장기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식품산업 성장의 둔화를 완화하고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28) 최지현외(2010, 2011),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전략」, KREI를 참조하였다.

제 2 부

.....

소재식품 시범관측

시범관측품목과 수급모형

1. 시범품목 선정

본 보고서에서 시범관측품목을 선정하여 식품산업 관측을 제안하는 이유는 식품산업 관측 시행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즉 국민식생활과 관련 깊은 품목에 대한 시범관측 결과물을 도출하고, 관측결과와 실제 관련지표와의 일치성, 관측의 공익성 및 관측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수단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측은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요·공급자(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소비자)에게 향후 중간재 수급 변화의 지표로 활용되어 의사결정에 미리 반영토록 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관측품목 선정기준으로는 타 업종에 대한 영향력, 가격변동성, 국민식생활 다소비품목, 기초통계 구비 여부를 바탕으로 밀가루, 설탕,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수수유)를 선정하였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곡물가공식품은 37.2%가 중간수요로 이용되며 이는 청과가공품 36.6%, 수산가공품 33.1%, 기타 식료품 24.5%, 음료 24.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물가공식품 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식용유, 전분당 등은 1차 가공품으로 고차가공을 위한 소재식품으로 분류된다.

표 1-1. 시범관측품목과 선정기준

구 분	영향력	가격변동성	기초통계구비
밀가루	소재식품	높은 편	유
설탕	소재식품	높은 편	유 (일부부족)
식물성유지류 (대두유, 옥수수유)	소재식품	높음	유 (일부부족)
	중간투입재로서의 활용도	변이계수, 진폭률	-

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변이계수와 진폭률을 산출하였다. 변이계수는 유지류는 20.0, 곡물가공품 및 전분당은 14.3으로 육가공품 21.5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나타나 생산변화의 기복이 심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표 1-2. 생산자물가의 변동성 지표

단위: 2005=100, %

구분	평균(a)	표준편차(b)	변이계수(b/a)	진폭률
염건어류	93.2	5.8	6.2	0.37
육가공품	117.4	25.2	21.5	0.73
수산물가공품	111.2	12.8	11.5	0.41
과실 및 채소가공품	114.1	11.5	10.1	0.49
유지류	125.5	25.1	20.0	0.69
낙농품	112.8	11.4	10.1	0.32
곡물가공품, 전분당	122.5	17.5	14.3	0.54
빵, 과자 및 면류	112.6	11.3	10.0	0.27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113.8	11.6	10.2	0.31
기타식료품	110.4	9.2	8.3	0.33
주류	102.4	3.8	3.7	0.11
비알콜성음료	112.0	8.5	7.6	0.36

주: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월별 자료로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원료의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제분·제당은 99.5%, 식물성유지는 82.7%로 다른 식품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료소급 수입의존도 역시 제분은 98.9%, 제당은 100.0%, 식물성유지는 89.6%로 다른 식품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2. 모형 추정 방식

본 보고서의 수급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외(2009)에 의해 개발된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이하 FISMO: 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을 기본모형으로 하였고, 모형구축을 위해 통계 DB 구축 - 품목별 개별 행태방정식 재추정 - 품목별 수급모형 구축의 모형 구축과정을 따랐다. 또한 국제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 원자재가격, 국제유가 등을 도입하여 가격방정식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2.1. 품목별 수급방정식 추정

수급모형에서 생산, 재고, 수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출 등 수요 및 공급 관련 방정식은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구축된 자료를 근거로 전통적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추정하였다. 수요 및 공급 관련 방정식 추정시 추정계수 값 부호의 이론부합 여부와 일반적인 적합성 검정통계량(R-squared, F-statistic and Probability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예측치의 경우 예측 진단통계량(MAPE: mean absolute percent error, Theil's U: Theil's inequality coefficient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방정식 설정시 설명력 제고와 정책실험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였고, 품목별 수급의 계절성,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하기 위해 계절더미, 외환위기 등의 구조적 더미를 사용하였다. 또한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자율, 관세율 등의 정책변수도 도입하였고, 식품제조업 시장이 불완전 경쟁상황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공급반응함수에 시장집중도 변수를 도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시범관측품목모형에서는 기존 모형을 개선하여 첫째, 기존 1995~2008년 분기별 자료를 1995~2011년 분기별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였고, 시범관측품목에 대하여 개별 방정식을 재추정하였다. 둘째, 기존 공급반응함수의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던 중간재 가격과 임금 및 이자율의 가중평균 변수를 산업연관표(2008 접속불변표)에 근거한 투입비중을

이용하여 생산비용 한 개의 설명변수로 대체하였다. 셋째, 기존 모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던 더미변수들을 계절더미와 구조더미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한 후 재추정하였다.

2.2. 수급모형 구축

품목별 개별행태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Eviews 7.0을 이용하였고, 추정된 수급 및 가격방정식을 연결하여 품목별 수급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으로 EXCEL을 이용하였다. 이는 모형을 스프레드시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각적 확인을 위한 수급표와 그래프 등의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수급모형의 구조

3.1. 모형의 특징

FISMO는 거시경제변수부문, 식품제조업부문, 식품제조업 총량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경제변수부문에서는 인구, GDP, 가처분소득, 이자율, 국제유가, 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를 외생적으로 KASMO(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로부터 도입하여 생산자가격지수(총지수, 상품지수, 서비스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임금 등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품제조업부문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생산함수, 재고함수, 수요(중간수요, 최종수요)함수, 수입함수, 수출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품목별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였다.

3.2. 모형 구조

품목별 수급은 생산, 재고, 수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출 등에 의해 결정

되고, 총공급과 총수요의 차이가 시장수급 조정요인으로써 가격과 수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장균형에서는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되며,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정의된다. 또한 생산자가격은 연결방정식에 의해 소비자가격으로부터 전환된다. 모형의 구조는 크게 공급부문, 수요부문, 시장균형, 가격연결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2.1. 공급부문

- 1) $Q_i = f(PP_i(-1), PP_h(-1), PP_j(-1), w_i(-1), k_i(-1), CR_i)$,
 $h \neq j \neq i = 1, \dots, n$
 Q_i : 생산량, PP_i : 생산자가격, PP_h : 중간재가격, PP_j : 대체재 생산자가격,
 w_i : (음식료품)임금, k_i : 이자율, CR_i : 시장집중도,
 $PP(-1), w_i(-1), k_i(-1)$ 에서 (-1)는 전기를 의미
- 2) $M_i = f(MP_i(-1), PP_i(-1))$, $i = 1, \dots, n$
 M_i : 수입량, MP_i : 수입가격
- 3) $ST_i = f(PP_i, Q_i + M_i + ST_i(-1))$, $i = 1, \dots, n$
 ST_i : (기말)재고량
- 4) $TS_i = Q_i + M_i + ST_i(-1)$, $i = 1, \dots, n$
 TS_i : 총공급량

총공급은 생산, 수입, 전기이월 재고로 구성된다. 생산함수는 전기 가격, 생산비용, 시장집중도의 함수로 설정하였다²⁹⁾. 여기서 생산비용은 중간재가격, 대체재 생산자가격, 임금, 이자율의 투입비중을 이용하여 가중평균값을 이용

29) 기업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P = c(Q, W) - \lambda \cdot h(Q, Z)$ 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P는 가격, Q는 생산량, Z는 (자재)가격 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대체재가격, 소득 등), W는 투입재가격, $c(\cdot)$ 는 한계비용, $P + \lambda \cdot h(\cdot)$ 는 기업이 감지하는 한계수입을 의미한다. 즉 λ 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요약통계로서 $\lambda = 0$ 은 완전경쟁을, $\lambda = 1$ 은 독점 또는 완전담합 상황을 의미한다. 과점의 경우 $0 < \lambda < 1$ 의 값을 가진다(Bresnahan, 1982). 위의 관계식을 재장리하면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기업의 공급은 시장지배력 λ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장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용성 문제로 시장지배력 대신 대안적으로 시장집중도를 외생변수로서 도입하였다. 시장집중도도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는 상당 정도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집중도를 외생변수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수급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였다. 수입함수는 수입가격(원화 환산)과 국내가격 또는 상대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고,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환율, 관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재고함수는 가격과 총공급량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3.2.2. 수요부문

- 5) $ID_i = f(PP_i, PP_j), j \neq i = 1, \dots, n$
 ID_i : 중간소비량, PP_i : 생산자가격,
 PP_j : 제품 i 를 중간재로 소비하는 제품 j 의 생산자가격
- 6) $PD_i = f(CP_i, CP_h, DINC), h \neq j \neq i = 1, \dots, n$
 PD_i : 최종소비량, CP_h : 대체재 소비자가격, $DINC$: 가처분소득
- 7) $X_i = f(XP_i, EXCH), i = 1, \dots, n$
 X_i : 수출량, XP_i : 수출가격, $EXCH$: 원/달러 환율,
- 8) $TD_i = ID_i + PD_i + X_i + ST_i, i = 1, \dots, n$
 TD_i : 총수요량

총수요는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출로 구성된다. 중간수요함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격, 그리고 주요 중간소비처인 외식업(음식점 및 주점업, 서비스업)의 생산자 가격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최종수요함수는 가정에서 소비되는 민간수요로서, 소비자가격과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설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가격으로 대체하였다. 수출함수는 수출가격과 환율의 함수로 설정하였고, 수출가격은 연결방정식에 의해 생산자가격으로부터 도출된다.

3.2.3. 시장균형

- 9) $TS_i = TD_i \Rightarrow$ 시장균형가격: $CP_i, i = 1, \dots, n$

총공급(생산량+수입량+전기재고량)과 총수요(소비량+수출량+재고량)의 차이가 시장수급 조정요인으로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은 다시 수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되는

시점에서 시장균형가격이 도출된다.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가격으로 정의하였고,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연결방정식에 의해 생산자가격이 도출된다.

3.2.4. 가격 연결부문

$$10) \quad PP_i = f(CP_i), \quad i=1, \dots, n$$

$$11) \quad XP_i = f(PP_i), \quad i=1, \dots, n$$

수입단가는 모형에 외생적으로 도입된 국제가격과 수입단가의 연결방식에 의해 도출하였고, 국제가격 전망치가 없는 품목은 수입단가의 2011년 4분기의 가격이 향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데이터베이스

품목별 수급관련 방정식 추정을 위해 1995~2011년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축된 통계 DB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품목별 수급관련 자료 중 생산량·재고량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이용하였고, 생산자가격은 통계청의 생산자물가지수(2005=100), 소비자가격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2010=100)를 이용하였다. 또한 수출입 관련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AG 코드)와 한국무역협회 KITA(HS 코드)를 이용하였고, 수출·입 단가는 수출·입 금액(천 \$)을 수출·입 물량(톤)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거시변수 중 인구(장래인구추계), 가처분소득(=국민처분가능소득/인구),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서비스, 상품), 소비자물가지수, 임금(2005=100)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고, GDP(계절조정, 실질), 이자율(3년 AA+ 회사채), 환율(원/미국달러(종가), 평균)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간투입재로서 콩, 특용작물, 음식점 및 주점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은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전망치는 KASMO로부터 도입하거

나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외생적으로 도입하였다. 밀, 옥수수, 대두, 원당과 같은 주요 농산물 원자재 가격은 통계청의 수입물가지수(원화)를 이용하였고, 관세율은 관세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망치는 KASMO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시장집중도는 식약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의 1998~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1995~97년은 보간법을 사용하였고, 2011년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품목별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과 품목별 생산함수를 설정하기 위해 품목별 중간투입계수와 투입비중을 파악하였다. 산업연관표에 근거하여 1995~2009년 품목별 중간투입계수를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³⁰⁾, 2010년 이후 중간투입계수를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2008 접속불변표)에 근거하여 품목별 투입비중을 파악하였으며, 생산함수에서 독립변수의 가중치로 이용하였다.

표 1-3. 변수별 데이터베이스 출처

변수명	단위	출처
생산량, 재고량	톤	통계청
수입량, 수출량	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AG 코드) 한국무역협회 KITA(HS 코드)
인구(장래인구추계)	천 명	통계청
국민처분가능소득	천 원	통계청
임금	2005=100	통계청
물가지수(생산자, 수입)	2005=100	통계청
물가지수(소비자)	2010=100	통계청
국내총생산(실질, 계정조정)	십억 원	한국은행
이자율(3년, AA+ 회사채)	%	한국은행
환율(증가, 평균)	원/미달러	한국은행
관세율	%	관세청
시장집중도(CR4)	%	식약청

30)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으로 두 점에 주어진 함수값을 기초로 그 점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 계산법을 말한다.

5. 수급모형 추정결과

5.1. 최종수요함수, 중간수요함수

최종수요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소비자가격(소비자물가지수)과 가처분소득이 사용되었고, 필요에 따라 대체재 소비자가격과 계절더미, 구조더미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PD_i = \alpha + \beta_1 CP_i + \beta_2 CP_h + \beta_3 DINC, \quad h \neq i = 1, \dots, n$$

PD_i : 최종소비량, CP_i : 소비자가격,

CP_h : 대체재 소비자가격, $DINC$: 가처분소득

중간수요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생산자가격(생산자가격지수), 제품 i 를 중간재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j 의 생산자가격(외식생산지수)이 사용되었고, 필요에 따라 계절더미, 구조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ID_i = \alpha + \beta_1 PP_i + \beta_2 PP_j, \quad j \neq i = 1, \dots, n$$

ID_i : 중간소비량, PP_i : 생산자가격

PP_j : 외식생산지수

표 1-4. 시범관측품목 수요함수 추정결과

기본부문	품목	최종수요함수		중간수요함수	
		자체 소비자가격	가처분소득	자체 생산자가격	외식 생산지수
제분	밀가루	-0.0889	0.4627***	-0.0148	0.1326***
제당	설탕	-0.1453**	0.4157***	-0.1740***	0.1830***
식물성 유지	대두유	-0.0406	0.2064**	-0.3222***	0.9115***
	옥수수유	-0.8668**	0.1724	-1.3453***	0.5629
	참기름	-0.0451**	0.6269***	-0.1860	0.2363
	마가린	-0.2662**	0.1242	-0.1967**	0.2443***

주: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밀가루의 탄성치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가계수요나 외식수요에 있어서 밀가루는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밀가루 최종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0.0889 , 소득 탄성치는 0.4627 로 추정되었으나, 가격 탄성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중간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0.0148 , 외식생산지수 탄성치는 0.1326 으로 계측되었다.

설탕의 탄성치들도 전반적으로 약간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가계수요나 외식수요에 있어서 설탕도 필수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탕 최종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0.1453 , 소득 탄성치는 0.4157 로 계측되었다. 설탕 중간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0.1740 , 외식생산지수 탄성치는 0.1830 으로 계측되었다.

식물성 유지 최종소비의 가격 탄성치는 대두유의 경우 -0.0406 , 옥수수유 -0.8668 , 참기름 -0.0451 , 마가린 -0.2662 로 옥수수유는 높고 대두유와 참기름은 낮게 추정되었다. 최종소비의 소득 탄성치는 대두유 0.2064 , 옥수수유 0.1724 , 참기름 0.6269 , 마가린 0.1242 로 참기름의 탄성치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낮게 나타났다.

식물성 유지 중간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대두유의 경우 -0.3222 , 옥수수유 -1.3453 , 참기름 -0.1860 , 마가린 -0.1967 로 옥수수유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 중간수요가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간수요의 외식생산지수 탄성치는 대두유 0.9115 , 옥수수유 0.5629 , 참기름 0.2363 , 마가린 0.2443 으로 대두유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유는 중간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5.2. 공급반응함수, 재고함수

공급반응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생산자가격(생산자물가지수), 중간재가격(생산자물가지수), 임금 및 이자율³¹⁾, 시장집중도(CR4)가 사용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대체재 생산자가격과 계절더미, 구조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31) 실제 추정에 있어서 품목별로 산업연관표(2008 접속불변표)에 근거하여 투입비중을 이용한 중간재 가격, 대체재 생산자가격(필요에 따라), 임금과 이자율의 가중평균값을 이용하였다.

$$Q_i = \alpha + \beta_1 PP_i(-1) + \beta_2 PP_h(-1) + \beta_3 PP_j(-1) + \beta_4 w_i(-1) \\ + \beta_5 k_i(-1) + \beta_6 CR_4 \quad h \neq j \neq i = 1, \dots, n$$

Q_i : 생산량, PP_i : 생산자가격, PP_h : 중간재가격,
 PP_j : 대체재 생산자가격, w : (음식료품)임금,
 k : 이자율, CR_4 : 시장집중도

재고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생산자가격(생산자물가지수), 총공급량(생산량+수입량+전기재고량)이 사용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계절더미, 구조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ST_i = \alpha + \beta_1 PP_i + \beta_2 Q_i + \beta_3 M_i + \beta_4 ST_i(-1), \quad i=1, \dots, n$$

ST_i : (기말)재고량, PP_i : 생산자가격, Q_i : 생산량, M_i : 수입량

표 1-5. 시범관측품목 생산 및 재고함수 추정결과

기본 부문	품목	공급반응함수			재고함수	
		생산자가격	생산비용	CR4	생산자가격	총 공급량
제분	밀가루	0.0770*	-0.1103**	-0.0004	-0.1137	0.1037
제당	설탕	0.0495**	-0.0664***	-	-	-
식물성 유지	대두유	0.0336***	-0.0177	-0.0005	-1.2898***	0.7831***
	옥수수유	0.0265*	-0.3337	-0.0173***	-0.2739	0.1998
	참기름	0.3468	-0.1325	-0.0037	-0.3020	1.7180***
	마가린	0.0225**	-0.1511*	-0.0051**	-0.5722***	0.4740

주: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밀가루 생산의 가격 탄성치는 0.0770, 생산비용 탄성치는 -0.1103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생산비용의 변화가 생산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자가격의 변화가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은 생산비용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밀가루 재고의 가격 탄성치와 공급량 탄성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생산의 가격 탄성치는 0.0495, 생산비용 탄성치는 -0.0664로 추정되어 생산자가격 변화와 생산비용 변화가 설탕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의 분류가

2008년 이후 당류에서 설탕으로 변경되면서 100%에 근접한 독과점 구조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집중도 변수를 제외하였다.

식물성 유지 생산의 가격 탄성치는 대두유 0.0336, 옥수수유 0.0265, 마가린 0.0225로 낮게 추정되었고, 참기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산비용 탄성치는 마가린의 경우 -0.1511로 추정되었고, 대두유, 옥수수유, 참기름의 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시장집중도 탄성치는 옥수수유 -0.0173, 마가린 -0.0051로 추정되었으며, 대두유와 참기름의 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물성 유지의 재고량은 대두유의 경우 공급량 변화보다 생산자가격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기름 경우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탄성치는 대두유 -1.2898, 마가린 -0.5722로 추정되었으며, 옥수수유와 참기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급량 탄성치는 대두유 0.7831, 참기름 1.7180으로 추정되었고, 옥수수유와 마가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3. 수출입함수

수입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상대가격이 사용되었으며, 수출함수의 설명변수로는 수출가격(천 달러/톤)과 환율³²⁾을 이용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절더미와 구조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M_i = \alpha + \beta_1 MP_i (-1) * FX_i * (1.1 + TE_i / 100) / CP_i (-1), \quad i=1, \dots, n$$

M_i : 수입량, MP_i : 수입가격, FX_i : 환율,

TE_i : 관세율, CP_i : 소비자가격

$$X_i = \alpha + \beta_1 XP_i + \beta_2 FX_i, \quad i = 1, \dots, n$$

X_i : 수출량, XP_i : 수출가격, FX_i : 환율

32) 수출함수에서 수출가격과 환율을 분리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한 이유는 수출가격은 독립변수인 수출량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환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수출가격과 환율을 곱하여 하나의 설명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을 경우 추정된 파라미터가 편의(biased)된 추정치를 얻기 때문이다.

표 1-6. 시범관측품목 수출입함수 추정결과

기본부문	품목	수입함수	수출함수	
		상대가격	수출가격	환율
제분	밀가루	-0.6200***	-0.5609***	0.2159
제당	설탕	-1.2656***	-0.3174***	0.1146
식물성 유지	대두유	-0.1227	-0.6588*	0.3329
	옥수수유	-1.4572***	-2.6517***	0.0776
	참기름	-2.7551***	-1.2104***	0.6922
	마가린	-1.5285***	-1.1109***	0.1231

주: *** 1%, ** 5%,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밀가루 수입의 가격 탄성치는 -0.6200으로 추정되어 밀가루 수입량이 상대가격의 변화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수출의 가격 탄성치는 -0.5609로 추정되어 밀가루의 수출량이 수출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 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설탕 수입의 가격 탄성치는 -1.2656로 추정되어 설탕 수입량이 상대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수출의 가격 탄성치는 -0.3174로 추정되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물성 유지 수입의 가격 탄성치는 옥수수유 -1.4572, 참기름 -2.7551, 마가린 -1.5285로 추정되어 대두유를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수입량은 상대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두유의 가격 탄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물성 유지 수출의 가격 탄성치는 대두유 -0.6588, 옥수수유 -2.6517, 참기름 -1.2104, 마가린 -1.1109로 추정되어 대두유를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탄성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모형 적합도(예측력)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된 기간에 대해서 모형에서 추정된 예측치(관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구축된 모형의 적합도 또는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시뮬레이션(ex-post simulation)을 실시하여,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치를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Theil 불평등계수(Theil's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은 1995년 1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17년 68분기에 대해 시범관측품목별 수급관련 46개 방정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MAPE = \frac{100}{n} \sum_{t=1}^n \left| \frac{Y_t^s - Y_t^a}{Y_t^a} \right|, \quad Y_t^s: \text{예측치}, \quad Y_t^a: \text{실제치}$$

$$\text{Theil's } U = \frac{\sqrt{\frac{1}{T} \sum_{t=1}^n (Y_t^s - Y_t^a)^2}}{\sqrt{\frac{1}{T} \sum_{t=1}^n (Y_t^s)^2} + \sqrt{\frac{1}{T} \sum_{t=1}^n (Y_t^a)^2}}, \quad Y_t^s: \text{예측치}, \quad Y_t^a: \text{실제치}$$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재고, 수입, 수출, 수출가격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중간수요, 최종수요, 생산자가격은 MAPE가 10%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heil's U의 경우도 재고, 수입, 수출, 수출가격을 제외하고 모두 0.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수입부문과 수출부문은 실적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평균적인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7. 시범관측품목 수급모형 적합도

구 분	MAPE	Theil's U				
		Bias	Variance	Covariance		
밀가루	생산	2.8377	0.0181	0.0001	0.1452	0.8547
	재고	18.7780	0.1201	0.0106	0.2430	0.7464
	중간수요	3.7833	0.0242	0.0007	0.1336	0.8657
	민간수요	6.3966	0.0413	0.0026	0.0678	0.9296
	수입	51.3647	0.2038	0.1507	0.4961	0.3532
	수출	21.2844	0.1332	0.0165	0.3218	0.6617
	생산자가격	1.7465	0.0118	0.0001	0.0006	0.9993
	수출단가	22.0611	0.1283	0.0168	0.3958	0.5874
설탕	생산	3.9830	0.0356	0.0000	0.3134	0.6866
	중간수요	5.5775	0.0315	0.0315	0.0010	0.0217
	민간수요	5.3016	0.0337	0.0009	0.0073	0.9918
	수입	55.9265	0.1618	0.0303	0.2618	0.7079
	수출	12.3490	0.0763	0.0066	0.2096	0.7838
	생산자가격	1.5253	0.0110	0.0003	0.0287	0.9710
	수출단가	16.5087	0.1679	0.3788	0.3511	0.2701
대두유	생산	13.9785	0.0670	0.1580	0.2970	0.5521
	재고	27.8320	0.1558	0.0211	0.0773	0.9016
	중간수요	7.4986	0.0482	0.0013	0.0065	0.9922
	민간수요	8.7087	0.0482	0.0003	0.0031	0.9965
	수입	14.7684	0.0768	0.0037	0.0370	0.9592
	수출	39.7896	0.2060	0.0397	0.2183	0.7419
옥수수유	수출단가	5.9189	0.0432	0.0019	0.0403	0.9578
	생산	9.8270	0.0649	0.0045	0.0973	0.8982
	재고	24.6227	0.1574	0.0250	0.2921	0.6829
	중간수요	18.0921	0.0995	0.0115	0.0765	0.9120
	민간수요	19.1114	0.1017	0.0116	0.0669	0.9216
	수입	132.5030	0.3749	0.0467	0.0975	0.8558
	수출	76.9233	0.2564	0.1523	0.0279	0.8198
참기름	수출단가	12.3365	0.1057	0.0056	0.2367	0.7577
	생산	8.5898	0.0586	0.0163	0.0560	0.9277
	재고	24.4533	0.1782	0.0102	0.0020	0.9878
	중간수요	10.9762	0.0696	0.0451	0.0430	0.9119
	민간수요	9.7572	0.0566	0.0042	0.0569	0.9389
	수입	70.0225	0.2485	0.0392	0.0322	0.9286
	수출	160.9498	0.4491	0.1299	0.7182	0.1519
마가린	생산자가격	2.0662	0.0148	0.0005	0.0186	0.9810
	수출단가	42.2556	0.2480	0.0243	0.3854	0.5903
	생산	5.6005	0.0394	0.0644	0.0793	0.8563
	재고	10.2130	0.0780	0.0045	0.1147	0.8809
	중간수요	5.2240	0.0329	0.0011	0.1253	0.8736
	민간수요	6.0471	0.0366	0.0011	0.0195	0.9793
	수입	20.4493	0.0958	0.0148	0.1192	0.8660
수출	84.2590	0.3073	0.0585	0.2899	0.6517	
수출단가	25.3059	0.2814	0.0226	0.3688	0.6086	

|| 2012년 1~2분기 품목 관측 결과

1. 밀가루

밀가루 공급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전기재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52.2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46.5만 톤으로 감소하지만 전망기간 동안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재고량은 2011년 1분기 4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4.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6.4%로 2011년 1분기 9,483톤에서 2012년 1분기 4,790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밀가루 수급모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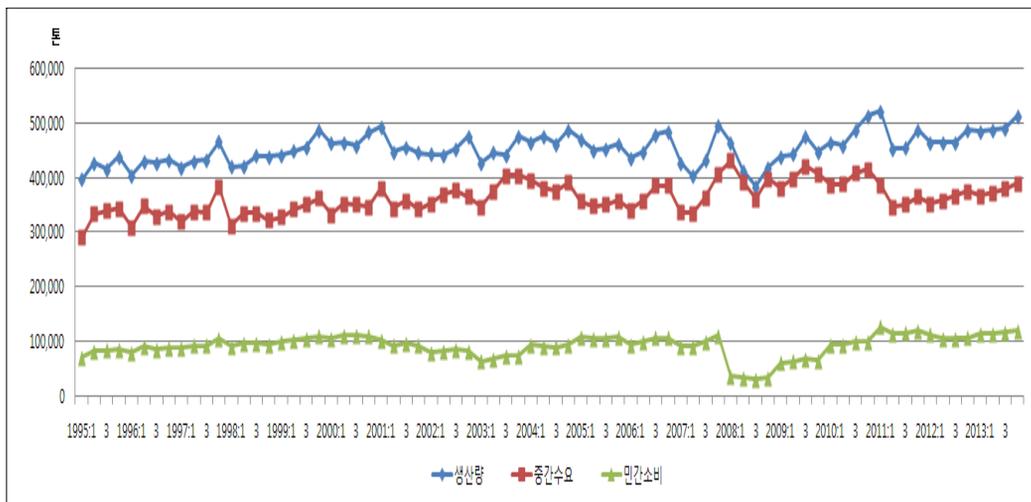
단위: 톤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재고량	42,871	46,677	40,828	34,474	40,448	53,141	47,388	41,650	46,664	47,712	2.3%
생산량	464,424	458,315	489,020	514,286	522,314	452,981	454,713	488,169	465,087	465,341	0.2%
수입량	23,054	21,449	15,772	12,998	9,483	7,626	9,009	6,199	4,790	4,105	-16.4%
수요											
소비량	481,455	482,938	507,916	516,783	515,693	462,072	466,834	485,975	465,078	465,936	-0.3%
중간수요	387,863	389,058	409,180	416,324	388,297	347,922	351,509	365,921	352,657	359,563	-0.7%
민간소비	93,592	93,880	98,736	100,460	127,396	114,149	115,326	120,054	112,421	106,373	1.9%
수출량	2,217	2,674	3,229	4,527	3,411	4,289	2,626	3,379	3,750	3,772	9.3%
기말재고량	46,677	40,828	34,474	40,448	53,141	47,388	41,650	46,664	47,712	47,450	1.3%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34.9	134.9	134.8	134.8	134.8	143.4	143.4	143.4	143.3	145.3	0.8%
소비자 가격지수	102.4	97.9	99.4	100.3	100.7	105.5	106.3	108.6	108.7	111.4	1.0%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밀가루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7%, 민간소비 1.9%로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가루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38.8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35.3만 톤으로 다소 감소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12.7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11.2만 톤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밀가루 수급 전망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기말재고량과 수출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각각 1.3%와 9.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5.3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1분기 4.8만 톤으로 다소 감소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3,411톤에서 2012년 1분기 3,750톤으로 소폭 증가하여 전망기간 동안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밀가루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생산자가격지수 0.8%, 소비자가격지수 1.0%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34.8에서 2012년 1분기 14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00.7에

서 2012년 1분기 10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밀가루 수출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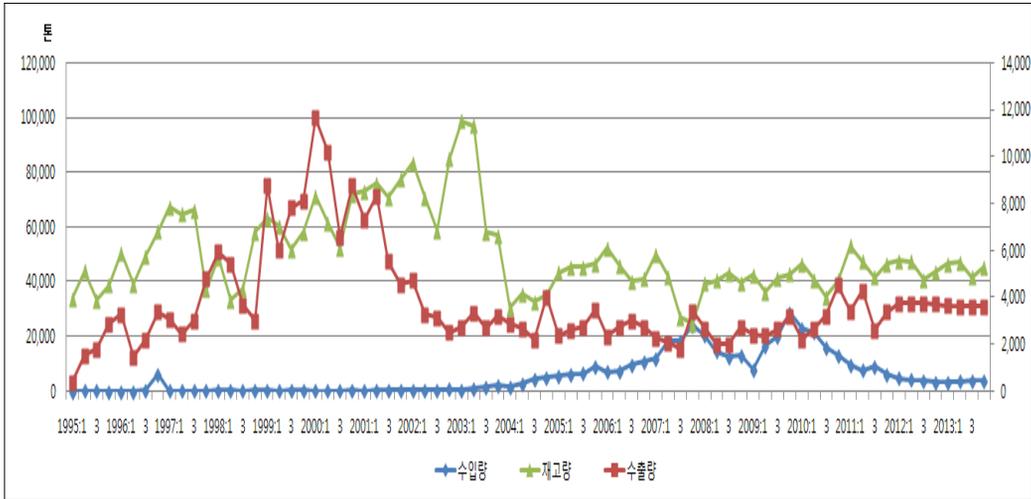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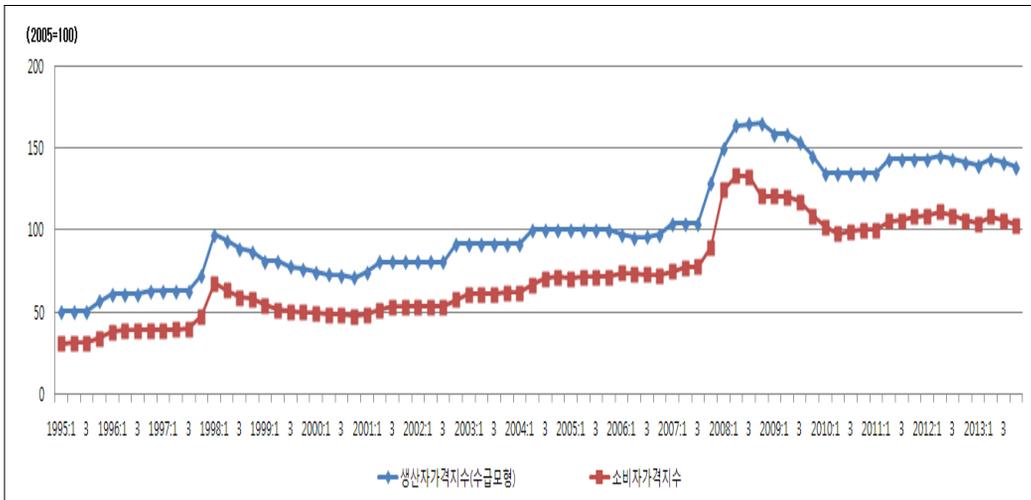


그림 2-3. 밀가루 가격 전망



2. 설탕

설탕 공급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0%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설탕 생산에 있어 독과점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09.0%로 2011년 2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전망기간 동안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35.5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35.7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량은 2011년 1분기 803톤에서 2011년 2분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1분기 4,014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 설탕 수급모형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재고량											
생산량	354,935	354,935	354,935	354,935	355,074	355,074	355,074	355,074	356,649	355,431	0.0%
수입량	523	1,097	707	1,555	803	8,079	5,986	4,609	4,014	3,666	109.0%
수요											
소비량	291,253	264,156	247,406	249,303	262,960	276,737	261,868	258,175	277,111	271,097	-0.6%
중간수요	265,040	240,382	225,140	226,866	257,494	251,830	238,300	234,939	253,100	246,880	-0.6%
민간소비	26,213	23,774	22,267	22,437	25,466	24,906	23,568	23,236	24,011	24,217	-0.7%
수출량	64,205	91,876	108,236	107,187	72,917	86,417	99,192	101,508	83,552	88,000	5.7%
기말재고량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51.2	151.2	156.8	165.6	186.0	202.5	204.6	204.6	204.6	208.5	3.7%
소비자 가격지수	98.4	98.4	101.1	102.1	111.5	124.2	126.8	128.2	128.6	128.5	3.1%

주: 1)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2) 생산량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자료로 발표하여 분기별로 재조정하였음.

설탕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6%, 민간소비 -0.7%로 소비량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25.7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25.3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2.5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2.4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출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5.7%로 증가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매 1분기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계절성이 나타났다. 수출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7.3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8.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 설탕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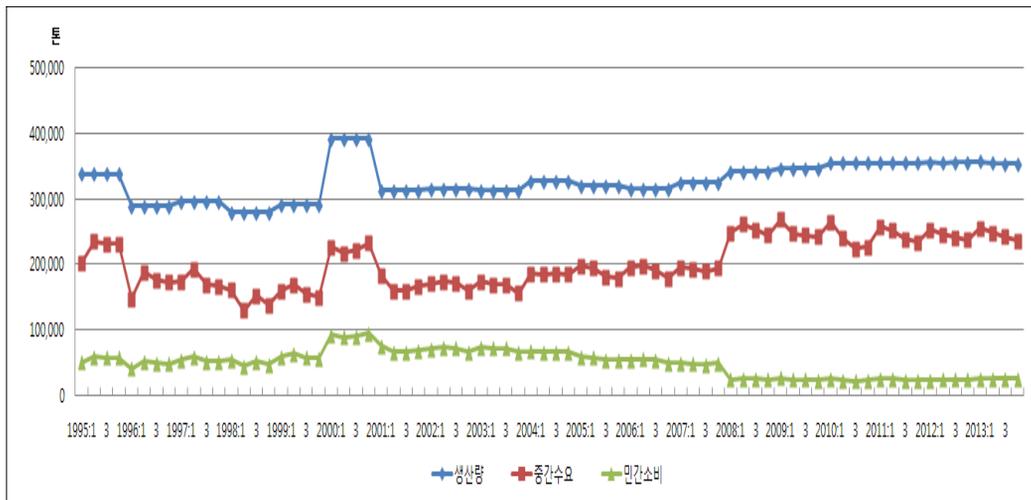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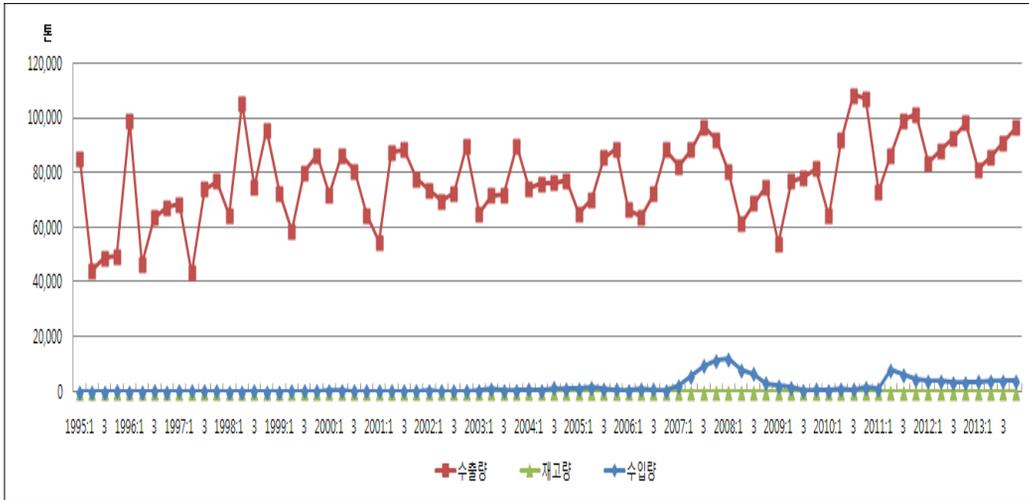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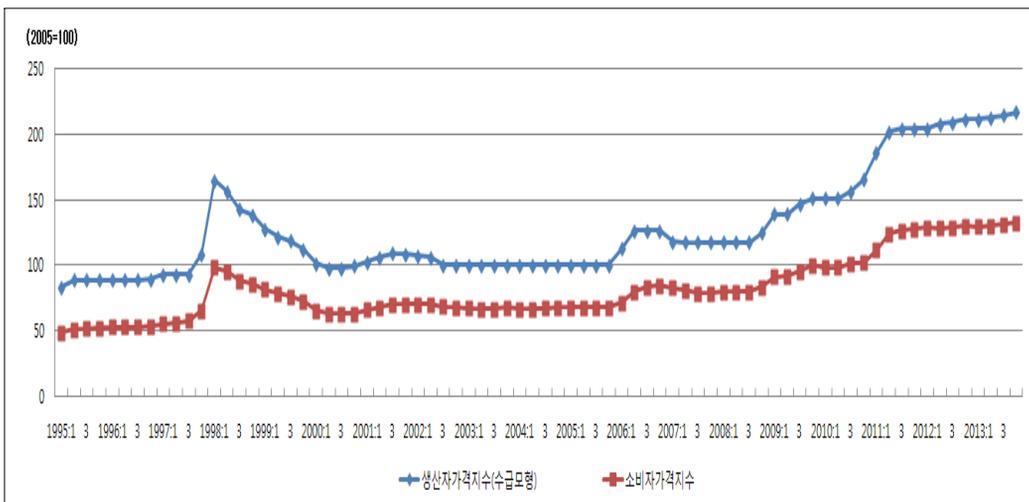


그림 2-5. 설탕 수출입 전망



설탕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는 생산자가격지수 3.7%, 소비자가격지수 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86.0에서 2012년 1분기 20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11.5에서 2012년 1분기 1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6. 설탕 가격 전망



3. 식물성 유지류

3.1. 대두유

대두유 공급부문의 경우 계절성에 의해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입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2%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11.8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11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량은 2011년 1분기 6.2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7.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기제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1%로 2011년 1분기 7,061톤에서 2012년 1분기 8,679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대두유 수급모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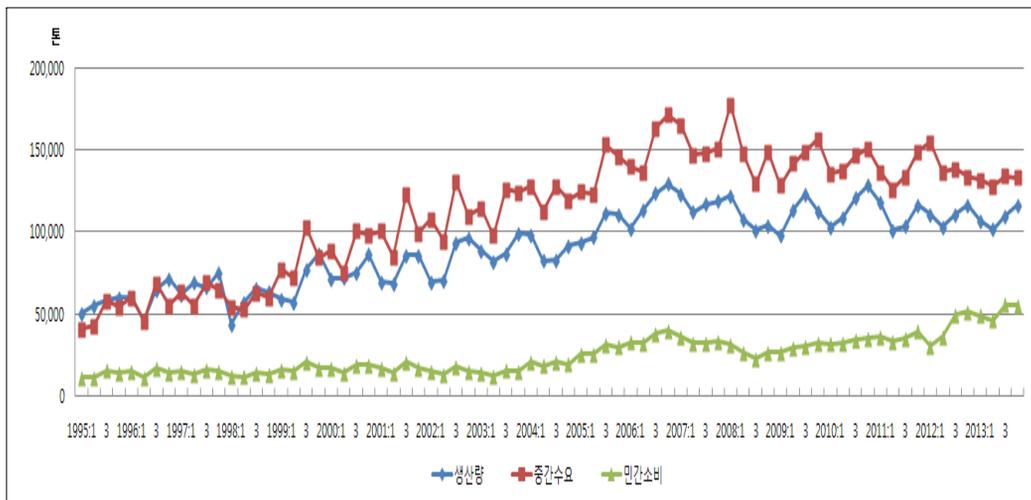
단위: 톤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제고량	11,517	10,119	10,857	5,415	7,061	7,917	7,674	5,264	8,679	6,233	-1.1%
생산량	102,983	109,021	121,056	128,575	118,012	100,964	103,654	116,440	110,576	103,438	0.4%
수입량	65,968	64,381	59,992	67,173	62,110	63,440	69,605	82,290	78,828	77,572	2.2%
수요											
소비량	167,910	170,007	181,246	186,782	172,506	159,350	169,540	188,960	185,533	173,078	0.6%
중간수요	136,086	137,786	146,895	151,381	136,521	126,109	134,174	149,543	155,028	136,806	0.4%
민간소비	31,824	32,221	34,351	35,401	35,985	33,240	35,366	39,417	30,505	36,272	2.1%
수출량	2,439	2,657	5,244	7,320	6,761	5,297	6,129	6,356	6,317	5,845	14.2%
기말재고량	10,119	10,857	5,415	7,061	7,917	7,674	5,264	8,679	6,233	8,321	3.9%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51.3	151.3	151.3	151.3	151.3	154.5	162.1	169.5	172.7	172.7	1.5%
소비자 가격지수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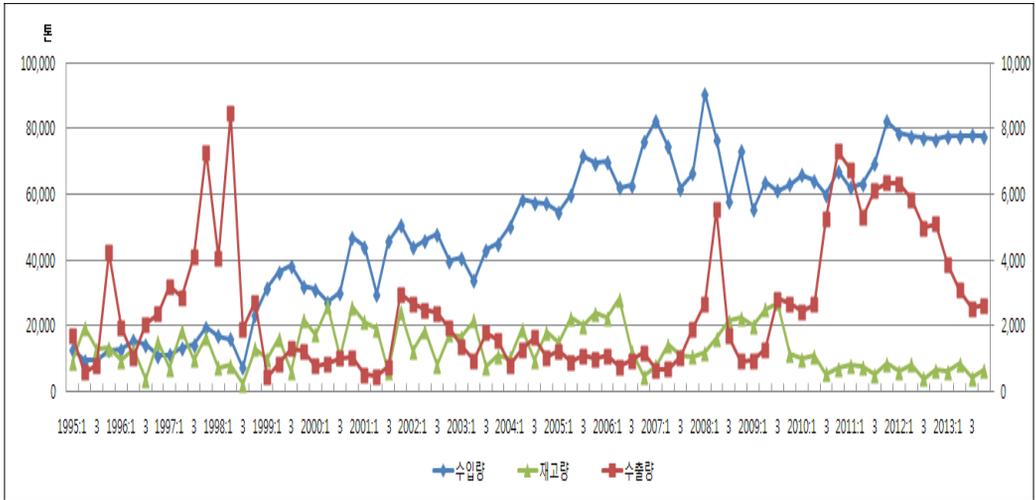
대두유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4%, 민간소비 2.1%로 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13.7만 톤에서 2012년 1분기 15.5만 톤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절성에 의해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3.6만 톤에서 2012년 3만 톤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 대두유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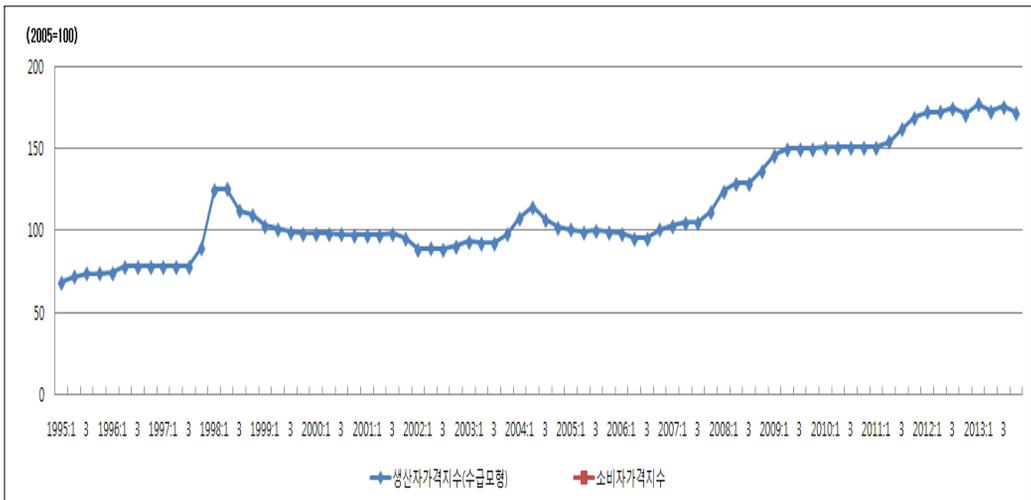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기말재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3.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4.2%로 나타났지만 2011년 1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7,917톤에서 2012년 1분기 6,233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출량의 경우 2011년 6,761톤에서 2012년 1분기 6,317톤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2011년 1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 대두유 수출입 전망



대두유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5%로 2012년 1분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유의 생산자가격지수는 2011년 1분기 151.3에서 2012년 1분기 17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9. 대두유 가격 전망



3.2. 옥수수수유

옥수수수유 공급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8%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같은 기간 동안 전기재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3.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수유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7,117톤에서 2012년 1분기 8,165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재고량은 2011년 1분기 887톤에서 2012년 1분기 2,151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수입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763.2%로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4분기 이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옥수수수유 수급모형 전망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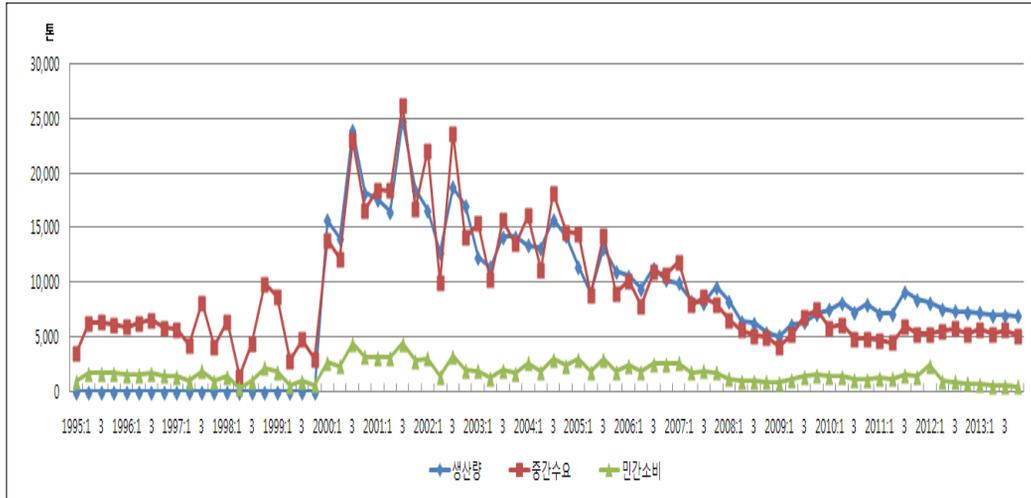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재고량	796	1,014	1,073	648	887	770	1,096	1,592	2,151	1,741	13.4%
생산량	7,505	8,106	7,262	7,994	7,117	7,135	9,140	8,424	8,165	7,611	0.8%
수입량	203	141	13	4	2	1	4	301	801	974	763.2%
수요											
소비량	7,233	7,536	6,007	5,928	6,003	5,670	7,529	6,612	7,597	6,526	0.0%
중간수요	5,862	6,108	4,868	4,805	4,751	4,488	5,959	5,233	5,233	5,526	0.2%
민간소비	1,371	1,428	1,138	1,124	1,252	1,183	1,571	1,379	2,364	1,000	2.5%
수출량	258	652	1,693	1,831	1,233	1,140	1,119	1,554	1,779	1,861	37.4%
기말재고량	1,014	1,073	648	887	770	1,096	1,592	2,151	1,741	1,940	11.7%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50.3	150.3	150.3	150.3	150.3	163.2	172.4	172.4	172.4	172.4	1.6%
소비자 가격지수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옥수수수유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2%, 민간소비 2.5%로 소비량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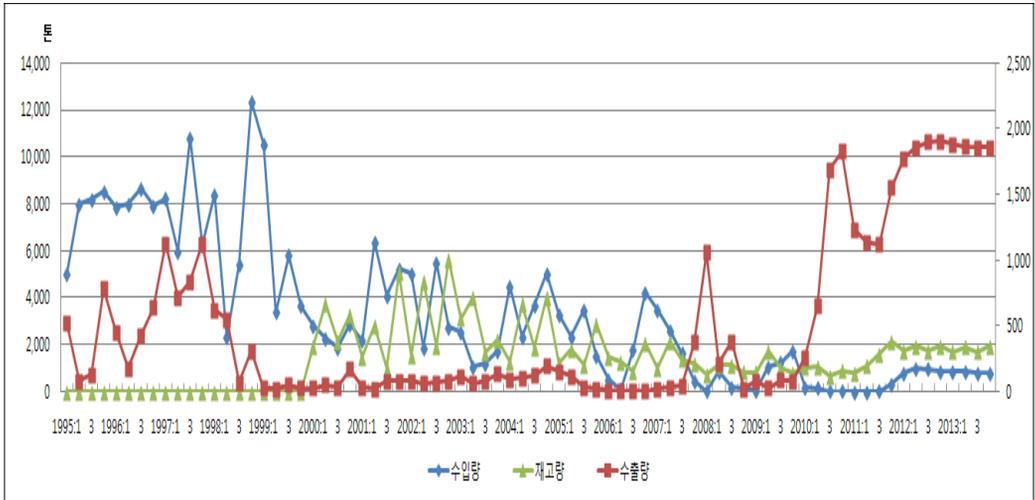
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유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4,751톤에서 2012년 1분기 5,233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1,252톤에서 2012년 1분기 2,364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0. 옥수수유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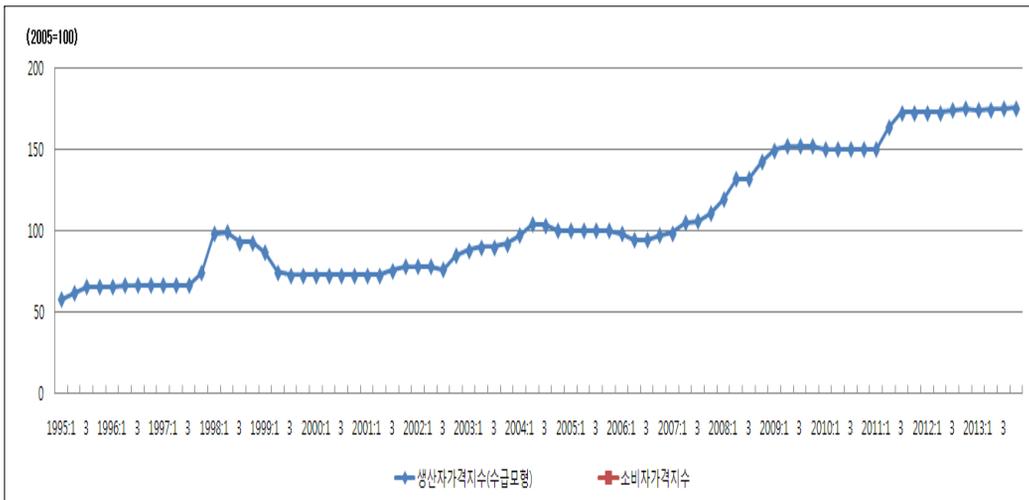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기말재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1.7%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37.4%로 나타났지만 2011년 1분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00톤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770톤에서 2012년 1분기 1,741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의 경우 2011년 1분기에 1,233톤에서 2012년 1분기 1,779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1. 옥수수유 수출입 전망



옥수수유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6%로 2012년 1분기 이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유의 생산자가격지수는 2011년 1분기 150.3에서 2012년 1분기 17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2. 옥수수유 가격 전망



3.3. 참기름

참기름 공급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1%이고, 동일 기간 전기재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1.0%로 매 3분기마다 계절성이 나타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량의 경우 매년 4분기에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기름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3,344톤에서 2012년 1분기 3,126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재고량의 경우 2011년 1분기 270톤에서 2012년 1분기 329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211.3%이고 2011년 1분기 72톤에서 2012년 1분기 59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참기름 수급모형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재고량	630	242	318	357	270	273	354	292	329	352	-1.0%
생산량	2,894	3,168	3,303	3,462	3,344	3,547	3,141	3,504	3,126	3,116	1.1%
수입량	9	152	113	248	72	218	290	100	59	154	211.3%
수요											
소비량	3,280	3,232	3,361	3,745	3,357	3,633	3,466	3,550	3,132	3,223	0.1%
중간수요	2,658	2,619	2,724	3,035	2,657	2,875	2,743	2,809	2,491	2,493	-0.4%
민간소비	622	612	637	710	700	758	723	740	641	730	2.1%
수출량	11	12	16	52	56	51	27	17	30	29	28.4%
기말재고량	242	318	357	270	273	354	292	329	352	371	6.4%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10.6	110.6	110.6	110.6	110.6	110.6	110.5	110.4	110.4	110.6	0.0%
소비자 가격지수	100.4	100.2	99.8	99.6	102.5	101.8	100.2	100.8	101.0	100.9	0.1%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참기름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4%, 민간소비 2.1%로 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기름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2,657톤에서 2,491톤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700톤에서 2012년 1분기 641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3. 참기름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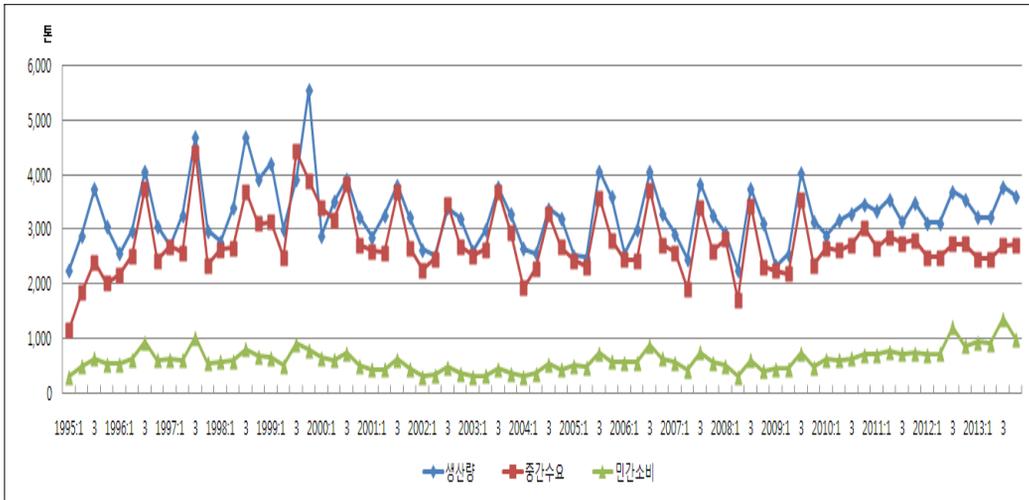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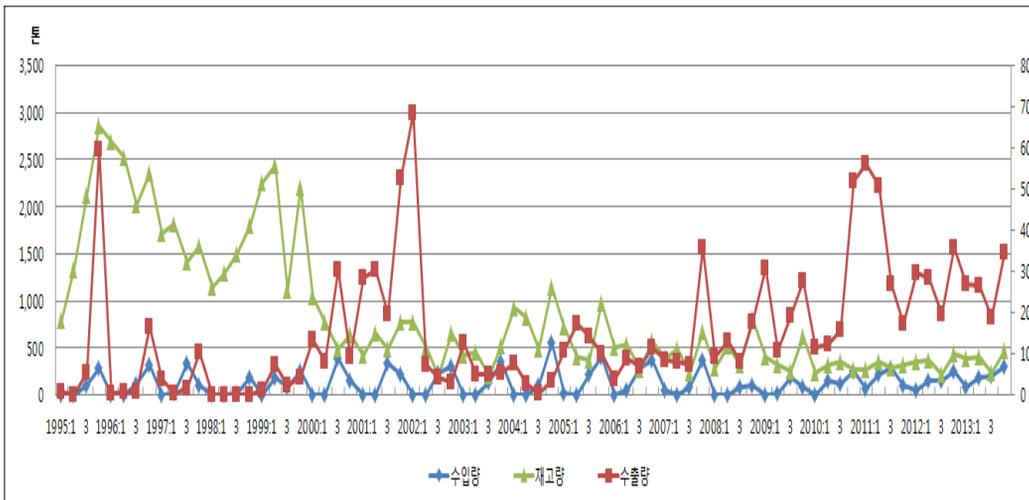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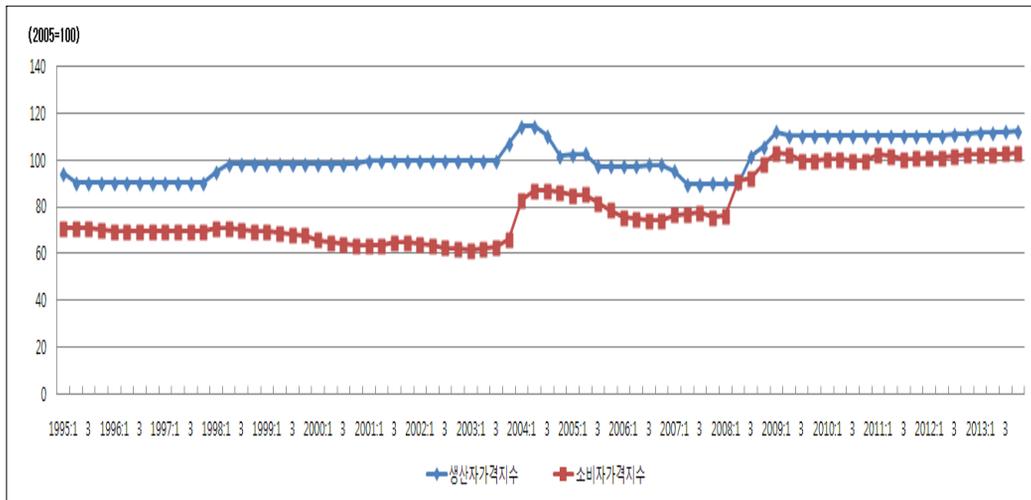


그림 2-14. 참기름 수출입 전망



참기름의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생산자가격지수 0.0%, 소비자가격지수 0.1%로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10.6에서 2012년 1분기 110.4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가격지수의 경우 2011년 1분기 102.5에서 2012년 1분기 101.0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5. 참기름 가격 전망



3.4. 마가린

마가린 공급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1%이고, 매년 4분기마다 계절성이 나타나며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채고량의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7%이고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300톤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가린의 생산량은 2011년 1분기 9,089톤에서 2012년 1분기 8,482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채고량도 2011년 1분기 1,451톤에서 소폭 감소하여 2012년 1분기 1,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마가린 수급모형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2011:3	2011:4	2012:1	2012:2	'10:1 ~ '12:2 분기별 평균 증가율
공급											
전기재고량	1,421	1,044	1,270	1,434	1,451	1,315	1,443	1,192	1,382	1,356	0.7%
생산량	9,453	10,043	9,325	10,829	9,089	8,869	8,598	10,058	8,482	8,981	0.1%
수입량	395	694	625	820	516	936	849	715	860	747	13.7%
수요											
소비량	10,225	10,500	9,772	11,609	9,730	9,667	9,695	10,569	9,357	9,718	-0.1%
중간수요	8,287	8,510	7,920	9,409	7,700	7,650	7,673	8,364	7,316	7,269	-0.9%
민간소비	1,938	1,990	1,852	2,200	2,030	2,016	2,022	2,205	2,040	2,449	3.1%
수출량	0	11	14	23	11	10	3	14	11	12	404.4%
기말재고량	1,044	1,270	1,434	1,451	1,315	1,443	1,192	1,382	1,356	1,354	2.6%
가격											
생산자 가격지수	118.0	116.8	119.1	122.3	126.0	127.4	127.4	127.4	127.4	127.7	0.9%
소비자 가격지수											

주: 생산자가격지수는 2005=100, 소비자가격지수는 2010=100 기준임.

마가린 수요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중간수요 -0.9%, 민간소비 3.1%로 소비량은 1만 톤 내외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가린의 중간수요는 2011년 1분기 7,700톤에서 2012년 1분기 7,316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소비의 경우 2011년 1분기 2,030톤에서 2012년 1분기 2,040톤으로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6. 마가린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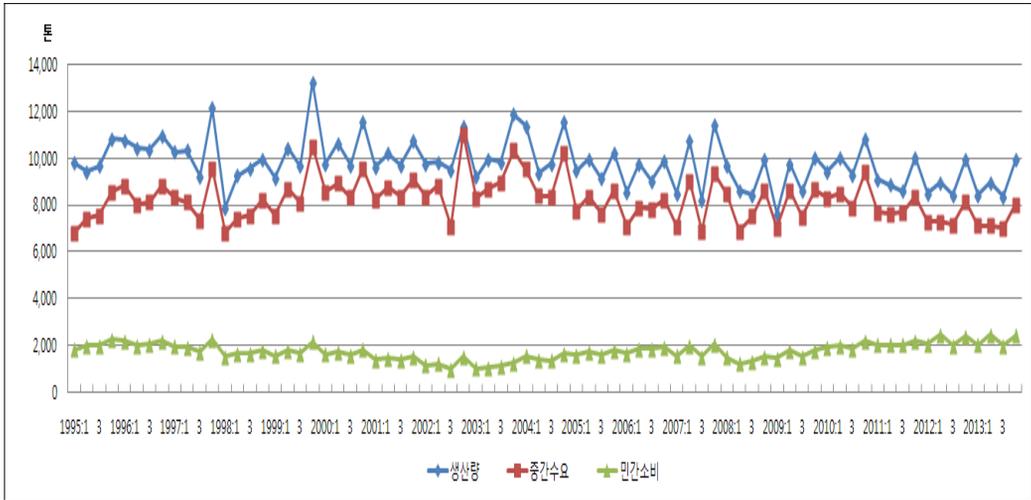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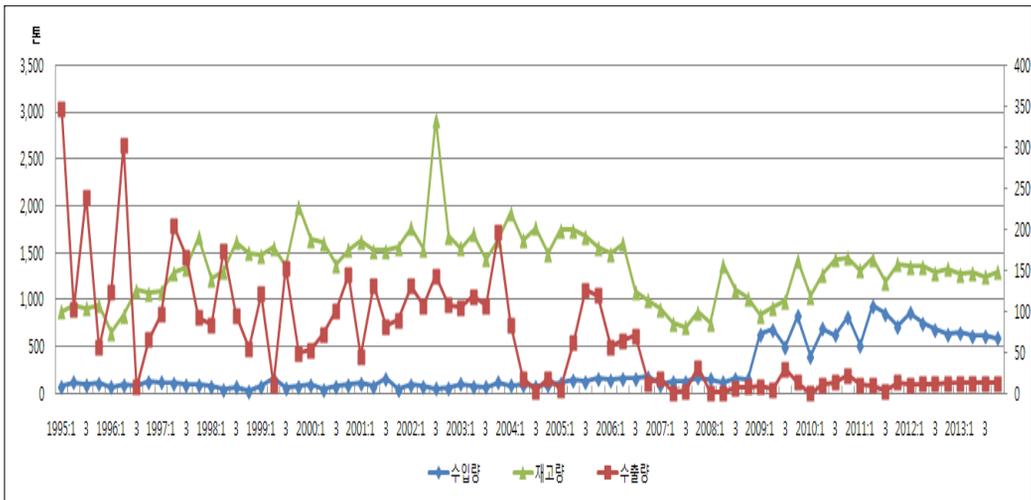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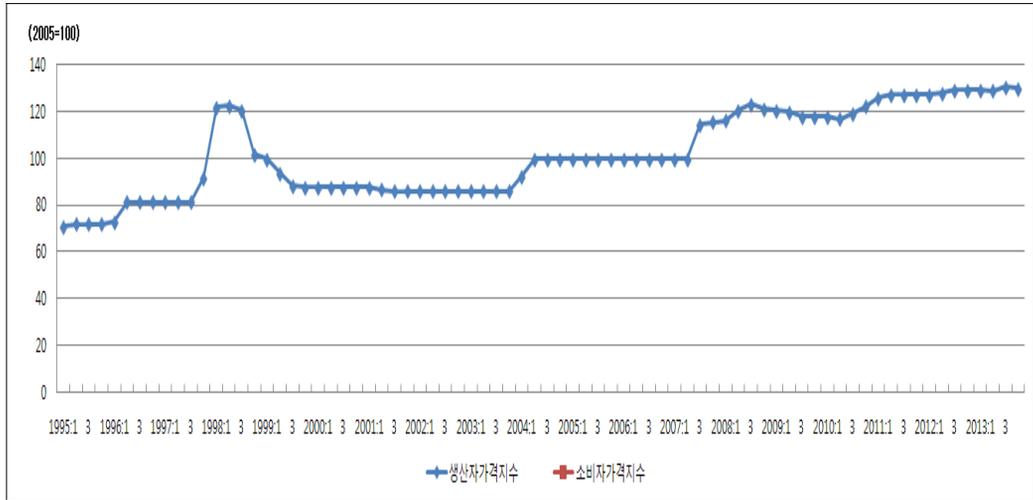


그림 2-17. 마가린 수출입 전망



마가린 가격부문의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증가율은 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가린의 생산자가격 지수는 2011년 1분기 126.0에서 2012년 1분기 12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8. 마가린 가격 전망



III 시범관측 평가

본 연구에서 4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범 관측을 실시한 것은 식품산업 관측 시행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식품제조업부문 중 주요 4개 품목(밀가루, 설탕, 대두유, 옥수수유)의 분기별 수급관측모형을 개발하고, 나아가 내·외 경제 환경 변화가 4개 품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기적 분석이 가능한 동태적 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1차 목적으로 삼았다.

수급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외(2009)에 의해 개발된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이하 FISMO: Food Industry Simulation Model)을 기본모형으로 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시범관측품목모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첫째, 기존 1995~2008년 분기별 자료를 1995~2010년 분기별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였고, 시범관측품목에 대하여 개별 방정식을 재추정하였다. 둘째, 기존 공급반응함수의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던 중간재 가격과 임금 및 이자율의 가중평균 변수를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비중을 이용하여 한 개의 생산비용 변수로 대체하였다. 셋째, 기존 모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던 더미변수들을 계절더미와 구조더미를 제외하고 모두 제거한 후 재추정하였다. 또한 모형을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각적 확인을 위한 수급표와 그래프 등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측모형은 관측품목에만 국한된 부분균형모형으로 국제시장 및 관측품목이외의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태적 수급전망모형을 활용할 경우 외생변수로 사용된 거시경제지표에서 예측오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동태적으로 향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4분기 이후의 예측치는 그 신뢰성과 활용상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형의 예측력 또는 적합도는 통상 분석된 기간에 대해서 모형에서 추정된

예측치와 실제치와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예측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시물레이션(ex-post simulation)을 실시하여, 도출된 시물레이션 결과와 실측치를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Theil 불평등계수(Theil's inequality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분기별 재고, 수입, 수출, 수출가격에서는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예측치에 대한 신뢰성과 활용상에 제약이 있다.

식품제조업은 상위 기업들에 의한 집중도가 높은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이나 산업분석모형 개발에 흔히 상정되는 완전경쟁시장 가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공급반응함수 추정에 있어 기업집중도를 직접적인 설명변수로 도입하였으나,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품목별 기업집중도가 아닌 품목군별 기업집중도가 이용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개발된 관측모형의 수출 및 수입함수는 각각 독립변수가 교역총량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외부충격에 의한 관측품목의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주요국별 수출입함수가 추정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국별 모형추정결과는 경제적, 통계적 이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범관측 대상품목인 밀가루, 설탕, 식물성유지류는 소재식품으로 고차가공을 위한 중간재로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소재식품 품목의 수급에 대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전방산업인 다양한 식품가공업에 사전적인 기초관단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기능이 있다.

그러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를 해결할 효과적 정책 수단을 갖지 못한다. 가공식품 시장이 개방된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민간의 조절(능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소재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과점체제와 유사하여 식품소재의 수급 정보를 정부가 대신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농업관측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탁으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이나 국제곡물의 수급관측 정보는 다수의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해외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관측정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미국 농무성 경제조사국(ERS)에서는 과거 Food Review라는 잡지가 발간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식품과 식품산업의 동향에 관한 것에 한정되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1990년대에 식품업체에 대해 업황 등을 조사하여 공표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식품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식품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명환 외. 2008. 「농업부문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2009. 「식품제조업 부분균형모형 FISMO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농축수산신문. 각 연도. 「한국식품연감」.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연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_____. 각 연도. 「식품 의약품 통계연보」.
식품저널. 각 호. 「식품저널」.
_____. 각 연도. 「식품유통연감」.
- 이동필 외.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선 외. 2010. 「인삼·약초를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외. 2011.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연도. 「식품산업동향」.
_____. 각 호. 「국내·외 식품산업 모니터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세계농업」. 제 139권.
_____. 2012. 「농업전망 201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연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외식정보. 각 연도. 「한국외식연감」.
한국은행. 각 연도. 「산업연관표」.
한국식품정보원. 각 호. 「식품세계」.
한국신용평가. 2012. 「2012 Industry Outlook」.
- CJ경영연구소. 2011. 「2011년 국내 식품시장 전망과 트렌드」.
미국 상무성 홈페이지 <<http://www.census.gov/manufacturing/asm/>>
미국 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bis.gov/cex/csxmulti.htm>>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홈페이지 <<http://seoulfood.or.kr/>>.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statistics/index.html>>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enu_seisaku/toukei/index.html>

유럽 연합통계청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hidi.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EIA 홈페이지 <www.eia.doe.gov>.

FAPRI 홈페이지 <www.fapri.iastate.edu>.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 <<http://fis.foodinkorea.co.kr/>>.

OECD 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index.aspx>>.

Balagtas, Joseph V. and Sounghun Kim. "Measuring the Effects of Generic Dairy Advertising in a Multi-market Equilibrium."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9(4). 2007.

MaKibbin, W. J., 2004. "New Developments in Global Economic Modelling," Center for Applied Macroeconomic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uth, R.E. 1964. "The Derived Demand Curve for a Productive Factor and the Industry Supply Curve." *Oxford Economic Papers* 16.

Suzuki, N., H.M. Kaiser, J.E. Lenz, K. Kobayashi, and O.D. Forker. 1994. "Evaluating Generic Milk Promotion Effectiveness with an Imperfect Competition Model."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6: 296-302.

Timothy F. Bresnahan. 1982. "The Oligopoly Solution Concept is Identified." *Economics Letter* 10: 87-92.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1. 「Consumer Foodservice Global Overview」.

Innova Market Insights. 2012. 「Top 10 Food Trends for 2012」.

Eurostat. 2010. 「Europe in figures - Eurostat yearbook 2010」.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2012년 5월 인쇄
2012년 5월 발행

편 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 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TEL: 02)6300-1397 FAX: 02)6300-1623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02-6300-13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한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한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